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5월 5일(음력3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472호

"문화재 사랑은 번호순이 아닙니다"

시민들 관심의 키워드는 '감동'과 '활용'
'…확대방안 공청회' 보존 전제돼야 의견도

'문화재 보존과 전시에서 이제는 활용을 통한 향유와 감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재의 가치도 국가가 정해준 번호 순서가 아닌, 직접 보고 만지며 느끼는 감동의 크기로 매겨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서 소외된 비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를 확대해보면 사찰 문화재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불교의 제1포교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28일 열린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공청회'는 최근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참여하는 시민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정책적 참여방안을 진단하는 자리였다.

특히 안동에서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권두현(안동대 민속학과 강사) 씨는 문화재 현장에서의 예술 공연과 안동문화재지킴이,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운동 등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권 씨는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현장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문화재 현장에서 '성주풀이'를 보며 문화재와 예술 공연으로부터 이중의 감동의 느끼고, 문화재지킴이들은 문화재 주변을 청소하면서 문화재와의 거리를 좁힘과 동시에 설명이 줄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권 씨는 "불교의 제1포교사는 사찰 문화재라 생각한다"며 "불교문화재를 사람들의 유해한 손길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해 시민들이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동지역의 시민참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1996년 만들어진 안동문화재지킴이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안동 문화 가꾸는 날'로 정해 '즐거운 문화재 소풍'을 떠나는데, 모든 회원을 가족단위로 받고 있다. 소풍의 일회적 성격을 보완하기 위한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운동'도 가족이 함께 특정문화재의 명예 관리인이 되는 제도다. 최근에는 지역 언론과 시의원, 농민들도 동참해 참여하는 시민 층이 두터워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흥선 스님(직지사 성보박물관장)은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과 감동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활용은 보존과 보호라는 전제가 유지된 다음에야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한 달 내내 '봉축특집' …금주 36면 발행

'현대불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봉축 특집'을 연속 발행합니다. '현대불교'의 특집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봉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봉축특집 주요 주제

▶첫째 주 (5월5일자) 나눔의 손잡기
나누면 모두 행복해 집니다 ——— 9면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열기 뜨겁다 ——— 10면
'나눔=행복' 등식 만들기 ——— 11면
찾아보면 나눌 것 많아요 ——— 12면
빗나간 웰빙 열풍(3회) ——— 35면
▶둘째 주 (5월12일자) 해외의 불교 붐
불교 공부하는 타종교인
▶셋째 주 (5월19일자) 禪바람을 이어간다
저명인사들의 초파일 감회
▶넷째 주 (5월26일자) 줄어드는 불교 인구, 대안을 찾아라
길에서 맞는 부처님 오신 날

'직지세계기록유산상' 제정

유네스코집행위서 결정

'직지심경'의 이름을 딴 '직지세계기록유산상(Jikji Memory of the World)'이 제정됐다.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문화과학기구)는 4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69차 집행위원회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인물에게 줄 상의 이름을 '직지세계기록유산상'으로 결정했다.

이 상은 2년에 한번 청주시가 정한 '직지의 날'에 청주시나 파리에서 시상하며, 시상금은 3만 달러(약 3470만원)로 청주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상은 2005년 9월으로 수상자 선정과 시상식 진행은 유네스코가 맡는다.

그동안 직지상 제정을 추진해온 청주시 직지세계화추진단은 "이 상의 제정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심경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가 다시 한번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유진 기자

北 용천 지원 "불심 모으자"

각 종단·단체 모금운동·물품 접수 이어져

북한 용천역 참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긴급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총지종은 4월 26일과 27일 신도들과 국민들에게 북한 돕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서는 한편, 모금 계좌와 구호물품 접수처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한불교청년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경북대구본부 등 불교계 단체들도 6월 초순까지 온라인 모금, 거리 모금, 법회 모금 등의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대북지원사업을 펼쳐왔던 한국JTS는 긴급 지원을 위해 활동가 2명을 4월 25일 중국에 급파하는 한편, 28일에는 의류 1만1천벌과 양초 4천여 개를 용천에 지원하고 계속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3세계 및 북한동포 지원사업을 펼쳐온 지구촌공생회와 대구 영남불교대학은 4월 28일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재 및 부상자 회복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맨 왼쪽) 등 한국방문단과 스리랑카 스님들이 '조계종마을'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스 '조계종마을' 4월 29일 준공

조계종 사절단, 스리랑카 종정 등 2천여명 참가

스리랑카 '조계종마을' 준공식이 조계종과 스리랑카 불교지도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 스리랑카 라투나푸라에서 봉행됐다.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의 전통 삼귀의례로 시작된 준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인종과 국가는 다르지만 모두 불자라는 점에서 큰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조계종 마을은 한국 불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드리카 쿠마라퉁 스리랑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한 존세나기나트라 법무부장관은 "오늘 준공식이 양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한국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오늘 조계종마을 낙성식을 고한다"며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고 고통은 환희로 변할 것"이라고 축원했다.

이날 한국 방문단은 현지 주민들에게 대형 텔레비전과 벽걸이 시계, 내의 등의 생필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조계종 마을'은 지난해 5월 스리랑카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한국 불자들이 '자비의 수재성금'을 모금해 만들어졌다.

스리랑카=남동우 기자

'할'



그림·조태호

- 현웅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8, 29면에서 만나세요) -

현대불교 구독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선원장 초청대법회(회향법석)
설정 스님 5월 9일 오전 10시 조계사

Since 1991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동행포럼·가산학회
● 대주제 :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동행포럼은 가산법인의 설립이념에 기초하여 인류의 遺産 중에 無上의 價値로 승인한 修行文化를 대중화하고 복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차 동행프럼 :
연구자그룹 산사 초청 수행체험
·일시 : 2004년 12월 14일~12월 16일
·진행 : 주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수행체험
● 전국연합연구공동체 가산학회
• 불교학분과·불교와 인문·사회과학분과·불교와 자연과학분과·불교예술분과

교육사업/불교원전전문학림삼학원
● 취지와 목적
佛教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戒定의 慧明과 佛燈의 修行 傳統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金堂.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선전강독·한국불교문헌강독·원전논서연찬
• 불교어학연수과정
불교한문강독·범어연습초급1·티베트어연습·빨리어연습
• 기초학습과정·불교근본교설의 이해
● 상학원생 원서교부中 / 일반수강생은 수시접수 가능

학술·교화·출판사업
● 가산학회 편 『伽山學報』 창간호~10호, 제11호 근간
● 이지관 저 「가야산해인사지」 / 「한국고승비문총서」 총간(1~7권)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 「남북전육부율장비교연구」 외 다수
● 가산삼학총서
• v001 율장부 범해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역주」
• a002 논장부 임승택 역주 「빠띠썸비다막가역주」
• s003 선종부 김영욱 역주 「진각국사어록」 (근간)
• e001 연구부 편찬위 「일천년 한국의 선지식」 (근간)
• e002 연구부 정병삼 외 「지성의 광장」 (근간)
● 세미나 및 기획자료집
「韓國佛敎文化思想史」(상·하) 등 다수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본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후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최다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전15권 년차 속간 예정
• 전권금액 2,1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 ~ 60개월로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중로구 명륜동 4가 206-6 TEL. 765-8602~3 FAX. 765-8673



찬송가 닮은 찬불가

"찬불가는 찬송가를 흉내 내어 부르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찬송가는 용어자체가 일반화되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찬불가는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찬불가 가락이 찬송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현재 불려지고 있는 찬불가는 대부분 가사만 찬불가지 가락은 찬송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찬불가는 찬송가를 흉내 내어 부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다.

찬불가는 1920년초에 백용성, 권상로, 조학유, 스님에 의하여 최초로 만들어 졌고, 김정묵 법사와 정운문 스님 등에 의하여 전승되었다. 찬불가 역사를 살펴보면, 쇠멸 위기에 처한 조선불교를 다시 살리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신불교운동과 함께 탄생된 새로운 불가(佛歌)인 것이다. 찬불가가 8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찬송가 흉내를 내는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80년 역사, 음악성 · 활용도 낮아
작곡가 육성·투자·기획 등 과제

찬불가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 초기에는 작곡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찬송가 가락처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찬불가는 만들어서도 안되고 불러서도 안 된다. 특히 예불의식에 불려지는 찬불가는 하루 빨리 불교의식에 적합한 불교음악다운 찬불가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뿌리 깊고 찬란한 역사와 예술성을 지닌 전통불교음악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을 작곡자들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 음악의 특징이 가미된 새로운 찬불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서양음악 기법에만 의존하여 불교음악과 무관하고 국적마저 알 수 없는 그런 찬불가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불려지는 찬불가는 보다 다양하고 폭 넓게 작곡되어 불자가 아닌 대중들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가 부르는 찬불가로부터 어른이 부르는 찬불가, 그리고 대중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찬불가가 창작되어 불려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찬송가는 의식뿐만 아니라 생활음악으로 일찍이 자리 잡았다. 노래방에서까지 찬송가를 부른다. 찬불가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의식에 불려지는 찬불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불가가 더욱 중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과 남다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작곡가 육성에서부터 불교음악 연구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사찰마다 불교음악전공자들을 기용해서 예불의식에 불교음악을 연주하고, 전문 합창단이 찬불가다운 찬불가를 노래하고, 대중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노래방에서, 찬불가를 노래할 때, 16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한국불교가 그 찬란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박범훈(중앙대학교 국악대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제1 차 포교종책연찬회 지상중계

종단·신도 수평관계서 시작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적 조류가 한국불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이러한 변화를 포교환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단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다변화되는 사회 속 향후 10년간의 포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제1차 포교종책연찬회'가 포교원의 주최로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포교정책은 기존 종단중심적인 상하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종단과 신도가 서로 돕고 이끄는 수평적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불교의 기본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인터넷 등의 매체 활용과 대내적인 사회활동 강화 등 포교종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박수호 산업연구원(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은 '정보화 시대의 포교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성종교 및 신흥종교들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통로와 종교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유통되는 장이 제공되고 있다"며 "정보사회 및 인터넷과 불교 사이의 친화성을 높여가며, 불교 시민사회 형성과 국제 연대 및 지방화, 신행결사운동과 리더십 강화, 전문화 · 협업화를 통한 개방형 조직체계로의 전환, 차별화 및 주도적 연대 등이 고려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 포교종책연찬회 현장.

기본가치확립 · 사회참여 병행 필요
인터넷 · 각종 결사운동 등 적극 활용

이어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불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세계의 흐름이 무한경쟁과 유연성, 불안정성,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 등의 속성을 가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귀결되고 있다"며 "불교계는 불교교리, 종단의 정통성, 불교의례 등 불교 기본적 가치들을 정립해 신념체계의 혼란을 막고, 불교 본래의 보편성을 회복해가며, 불교시민사회운동 등 사회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과 부산 포교당의 심산 스님 등은 사회적 변화모습과 실질적으로 단위 사찰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른 것 같다며, 이보다 어린이 · 청소년 등 불자새싹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동국대 조준호 강사 등 사회학자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노동당 활약 등 국내정치의 지형변화와 남북문제, 시민사회운동 등 국내의 독특한 사회현상에 대한 입장정리와 방안마련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포교원은 앞으로 8차에 걸쳐 포교종책연찬회를 진행, 향후 '포교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기뻐합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시지 발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기뻐합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마이클 피츠제랄드 대주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한달여 앞둔 4월 26일 불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마이클 대주교는 '인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눈을 돌리자'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오늘날 수많은 어린이들이 가정을 빼앗기고 심지어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불교인들은 어린이가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하고 특히 빈곤국 어린이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정부와 시민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 복지를 위해 힘쓰게 하자"고 제안했다. 강유신 기자

한·중·일 북경서 만난다

제7차 교류대회 10월22~24일

제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 영광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 불교우호교류협의회 등 한중일 3국 실무대표단은 4월 26일 중국 해남도 삼아시에서 예비회의를 갖고 제7차 교류대회의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했다.

'한중일 불교황금유대 신구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 3국 학술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예비회의에는 한국측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 태고종 총무부장 월해, 천태종 총무부장 춘광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혜인, 총지종 총무부장 지성 정사 등과 중국측의 중국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호위 스님, 일본측의 영평사 구마가야주코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법장스님 티베트 오세요" 中 대표단 초청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이 티베트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공식 초청했다.

궈진룽(郭金龍) 티베트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은 4월 27일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티베트에서는 종교 및 신앙 자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티베트 사람들을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며 "중국 방문시 티베트를 방문해 줄 것"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법장 스님은 "중국을 방문할 때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대회와 재중동포 및 불자들의 중국 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남동우 기자

'신도조직의 유형…' 포럼 개최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종교조직에서 신도의 역할과 신도운동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제2차 종책포럼'을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신도회 정책위원과 신도 · 포교단체 주요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이한메 순천향대 강사(前 원불교 교무)의 '신도조직의 유형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한메 강사는 한국 근대 신종교로서 원불교의 성립과 조직적 특성 등을 집으며 "원불교가 한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선도적 역할 담당, 수평적 조직구조와 조직력 등에 있다"며 "이러한 점을 불교계 신도조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범어사 11일 대성스님 주지진산식

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범어사는 5월 11일 오전 11시 대성 스님(사진) 주지진산식을 갖고 범어사 안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범어사는 진산식을 앞두고 7국장직을 비롯 주요 종무 소임 스님들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총무국장에 범산, 기획 국장에 정만, 교무국장 의정, 재무국장 원범, 포교국장 무관, 사서국장 정산 스님 등이 임명돼 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범어사는 이번 진산식을 주지 선출을 둘러싼 갈등,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으로 실추된 범어사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본사사령

강유신
命 편집국 취재부 기자
2004년 4월 27일

봉행

범어사 주지 진산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산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의 진산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5월 11일 (음력 3.23.화) 오전 11시
▣ 장 소 : 금정산 범어사 대웅전 앞
▣ 연락처 : 부산광역시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종무소 ☎ (051)508-3122~7
원주실 ☎ (051)508-3636
※ 범어사 주지 진산식을 맞아 5월 10~12일 3일간 무료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불기 2548년
봉축 준비 현장 대구 전통등 제작강습회



대구지역 10개 불교단체가 전통등 제작강습회에 참여해 총 5종의 전통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고 있다.

"초파일이 기다려져요"

"잘 잡아가며 묶어주세요. 꼬리가 올라가게…."

4월 24일 중구 대봉동 진각빌딩 1층에 모인 대구불자들은 연꽃, 법륜, 목어, 범종 등 각종 전통 장엄등 제작에 여념 없다.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지성)가 대구에서 첫 번째 전통등 제작 강습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 이번 강습회에는 사원주지 연합회를 비롯, 태고종, 진각종 대구불교대학, 동화사 청년회, 대광맹인불자회 연꽃봉사단, 룸비니 유치원 교사, 보현사 학생회 등이 참석했다. 대구 불교계가 총출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명을 한 팀으로 해서 총 10개 팀이 전통등 만들기에 들어갔다.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리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장인이 된 듯 촛불의 열기를 이용해 대나무를 자연스럽게 휘는가 하면, 한 켠에서는 대나무를 곧게 펴고 있다. 각목을 잘라 기초뼈대의 중심을 세우는 거사님, 안경을 코끝에 걸고 열심히 자의 눈금을 세는 보살님까지 사부대중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마당이다.

"너무 재미있어요. 부처님 오신 뜻을 환하게 밝힐 등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니, 더욱 즐거워요." 최금숙 대구불교대 부학생회장은 전통등 만들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들었다. 전통등 강습생은 4월21일부터 예비모임을 갖고 대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첫 모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제법 대나무 다루기며 휘기, 뼈대 잡기 등이 손에 익었다.

종단 구분않고 참가
"제작법 전수 받아 내년엔 우리 힘으로"

둘째 날, 틀이 잡혀가고 전통 장엄등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자, 강습생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대구봉축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전통 장엄등 만드는 법을 전수 받아,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지역 불자들에게도 널리 제작법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배지선 기자

"독립성 보장과 지속 지원을"

군승특별교구법 제정 공청회서 제기

조계종의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승특별교구의 위상을 일반교구와 동일하게 정립하되 종단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교구로 독립시키되 종단 지원체계를 갖춰야 군포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29일 열린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앙종회 의원 동광 스님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물적 · 인적 자원의 지원과 후원이 필수적"이라며 "종법에 규정된 중앙분담금을 당분간 면제하고, 종단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종단은 군승의 승가고시 응시자격, 수계, 법계 품수 등의 시행에 대해 군승 활동을 특별히 살피고, 예비역 군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군승특별교구법 초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인 교육사령부 군종실장은 "군승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자격을 제한한 것은 승려로서의 자격은 인정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라며 "군승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군법사는 "특별교구라는 이름은 종단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은 사실상 현행 군불교위원회 체제와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별교구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무원 기획국장 정범 스님은 "군승특별교구법에는 특별교구가 일반교구와 어떻게 다른 지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교구와의 차이점과 군승특별교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은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따른 과제로 군승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무국의 전문인력 확충, 군불교신도회와의 관계 정립, 군불교 지원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군승특별교구 주지에 대한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승교구 주지가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군승의 징계에 대해 종법과 군 · 사회법간 상충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최종안을 만들어 6월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회암사로

양주시, 봉선사에 공문

양주시가 회암사지 당간지주의 소유권을 회암사(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말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4월 24일 봉선사에 보내왔다.

이는 봉선사가 회암사지 토지수용과 유물 소유권 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양주시에 전달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회암사지를 발굴하고 있는 양주시는 회암사 소유 토지 3천 8백여평이 포함된 회암사지 1만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암사 주지 직인이 아닌 개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첨부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매입하면서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동의와 종단대표자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전통사찰보존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선사 측은 "양주시가 회암사지 당간지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공문 상에서도 예전의 입장을 번복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향후 회암사지 맷돌과 석조 2점 등 회암사 소유 땅에 위치한 문화재와 회암사지 부도탑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양주시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암사지 부도탑 소유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에는 회암사 소유로 기재돼 있으나 경기도가 1970년 발간한 <지정문화재대감>에는 소유주를 밝혀놓지 않아, 문화재청과 양주시 사이에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오유진 기자



콜롬버스 시네마10 김덕일 관장이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점에 보시금을 내고있다.

'나눔의 집' 2호점 광주에 개설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헌혈증서를 모아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점이 탄생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4월28일 광주 콜롬버스시네마10 본관 3층에서 '나눔의 집' 2호점 개설 기념식을 갖고 모금에 들어갔다. 이날 기념식에서 현장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더많은 이들이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 이어가기 운동'에 동참한 콜롬버스시네마10 김덕일 관장은 "백혈병으로 힘들게 투병중인 아이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며 "헌혈증서 기증자에게는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지역본부는 개설식에 앞서 영화관앞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치고 헌혈 참여자에게 무료영화 관람권을 제공했다.

이준엽 기자

양양 진전사지 복원
62평 규모 전통방식으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마근)는 4월 27일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에서 진전사 복원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복원되는 건물은 20평 규모의 대웅전과 42평 규모의 요사채로, 전통양식으로 지어진다. 또 내년에는 종조전을 건립하고 선원도 복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변 정비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조계종 종조(宗祖)인 도의국사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법을 선양했던 곳이다.

한명우 기자

"조계사 주지 교체 초파일 지나 결정"
아침을 여는 집 독거노인 잔치 연다

최근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 교체를 둘러싼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의 입장차이가 표면화된 가운데, 교체 시기가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가닥이 잡혔다.

조계종 총무원측은 "부처님오신날 이전 주지를 교체할 경우 각종 행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계사 사부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처님오신날 이후 단행하기로 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맡고 있어 재산관리인 주지를 직접 교체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계사측은 "그간 조계사는 공개경영으로 투명한 종무행정의 모범을 보여 왔다. 총무원의 일방적인 주지 교체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조계사 측은 "향후 상황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변함없어"
조계종 입장 재확인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가 기존 설치 반대 입장에 변함없음을 4월 27일 밝혔다.

중앙종회는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환경운동연합, 통영시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중앙종회는 통영미륵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 지난 2000년 9월 총무원 성명서, 2001년 조계종 환경위원회 및 하동 쌍계사 및 말사의 입장, 2003년 중앙종회 대정부 결의문 등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었다"며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재확인하고 건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조계종의 입장에 추호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제 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 생명 · 평화 · 나눔을 위하여 -

살아있는 자연과 불교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오대산에서 걷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 생명 · 평화의 기원, 나눔을 통한 자비실천의 체험을 통해 자기 수양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일 시 :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제한 3시간)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 상원사 □ 걷는거리 : 약 10km
□ 집 결 지 : 월정사(5월 16일 오전 10:00까지 집결)
□ 접 수 : 2004년 4월 25일 ~ 5월 16일 오전 10:30 □ 접 수 처 : 국립공원 매표소와 월정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 후 원 : 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불교라디오 춘천방송,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MBC 원주, KBS 강릉,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2. 참가안내

□ 참가자격 : 나이제한 없음(가족동반 환영)
□ 참 가 비 : ●일반인: 10,000원 ●대학생이하 및 10인 이상 단체: 5,000원
●참가자에게 기념품(티셔츠, 버튼, 풍선) 지급 ※참가비용은 장애우를 위해 사용함.
□ 입 금 : 농협 313065-55-000880 월정사
□ 신청방법 : ●인터넷 ⇒ http://www.woljeongsa.org
●우편 및 방문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 연등축제단
●전화 : 033)332-6661-6 / FAX: 033)332-6915

3. 코스 및 준비물

□ 대회코스
월정사 → 전나무숲길(생명의 쉼터) → 반야교 → 상원사 선재농장 → 오대산장(나눔의 거리) → 상원사(평화의 기원)
□ 준 비 물
●복 장 : 엷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는 것이 좋으며, 자켓, 모자 등 필요 ●신 발 : 워킹화 또는 경등산화
●편의식 : 빵, 초코렛, 초코파이, 찰떡, 생수, 우유, 음료, 과일 등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기 타 : 쓰레기봉투

「천년의 설레임, 함께 가는 중국 문수성지 순례」 동참



오대산 월정사는 자장율사께서 신라 선덕왕 12년(643년)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부처님 정골사리를 봉안한 곳으로써, 중국 오대산과 1,400여년만에 자매결연을 통해 수행교류 등을 확대하여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을 대중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대산 월정사 문수성지 순례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중국 오대산 문수성지 일대를 순례할 예정이오니 불자들께서는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 음

□ 방문일시 : 불기 2548(2004). 6. 24 ~ 29
□ 동참금액 : 91만원(개인소요 경비, 여권발급비용, 한국내 이동경비 불포함)
□ 입금계좌번호 : 313065-55-000325 농협 / 예금주 : 오대산 상원사
□ 준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현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및 서류마감 : 5월 31일
□ 문 의 처 : 오대산 상원사 종무소 (☎ 033-332-6666)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 후 원 : 오대산 월정사 신도회, 중국 산서성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산서성 여유국 등

불기 2548(2004). 4. 3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합장

불교적 교육의 키워드
'자각 · 실천 · 국제화 ·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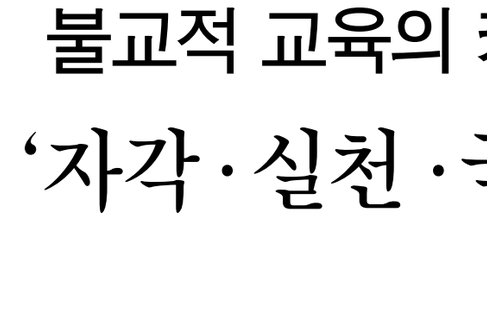
동국대 주최 대만 성운 스님 초청법회 · 토론회

동국대 초청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開山宗長) 성운 스님 초청 법회 및 토론회가 4월26일 오전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성운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자각 · 실천 · 국제화 · 인간적 교육 등 4가지 방향에서의 불교적 교육 방식을 언급하면서 국제 흐름과 현대 교육의 방향에 대한 불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운 스님과 동국대 홍기삼 총장, 그리고 대만의 불광대학 짜오닝 총장과 남화대학 첸마오쉥 총장, 미국 LA 서부대학 랭카스터 총장 등 대만 불광산사 교육기관인 3개 대학의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시대, 불교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화합 · 평등 · 이타행 등의 불교 가치관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법회 및 토론회에 앞서 동국대는 교육과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문화 예술의 창달에도 기여하면서 양국 불교 및 문화교류에도 많은 공헌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성운 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다음은 성운 스님의 법문과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성운 스님은 사회봉사와 불교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동국대에서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4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법문하고 있는 성운 스님.

성운 스님 법문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교육
기도 · 예불보다 실천이 중요
국제화 위해 언어는 필수
인간세계 떠난 불법은 없어

사람은 누구든, 어떤 나라든, 또 생명있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 단지 구별된다면 교육을 통해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떤 인재로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육방식이 존재하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네 가지 방식을 얘기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자 시절에는 스승이 있었지만 출가하고 나서는 당신 스스로가 스승이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이치를 증득하는 것이며, 수행은 바로 마음속의 지혜를 스스로 여는 것이다. 자각하는 교육은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말하며, 스스로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제자가 10년 동안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떠나겠다고 하자 스승이 옷자락에 떨어진 실밥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라고 말했고, 그 제자는 이 한 마디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삼을 벗어 흔든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제자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10년 세월 속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교육은 자료가 풍부하지만 실천은 부족하다. 지금 학생들은 실천할 줄을 모른다. 신도들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행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실천이 뒷받침되도록 해야만 가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실천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문을 닫아걸고 자기도취에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있고 새로운 문화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 문을 열고 국제무대로 걸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부처님 재세 시 단 한 번도 부처님이 사회와 격리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 조사 스님들이 불교를 점차 산으로 끌고 들어갔다. 인간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불법이라도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내가 인간불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세계를 떠난 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불교가 인간적인 교육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

4개大 총장과 토론회(요약)

세계화 시대, 불교는 무엇을 줄 것인가

△성운 스님– 지금 현재 세계 도처에서는 국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화와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간관계에서의 화합과 우호를 돈독히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임을 알아야 한다.

△홍기삼– 국가나 민족, 가족이나 기타 공동체를 포함한 어떤 집단의 이익도 존재와 사물 일반이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우선하지는 않다. 상호의존성, 즉 연기법에 의해 이 세계가 인드라망이 돼야하고, 이것이 곧 세계화의 지름길이다.

△랭카스터– 불교가 우수한 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교가 계급과 분별을 초월한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평등의 원칙이야말로 인류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

△첸마오쉥– 우리 불교가 진정으로 전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생사윤회와의 전쟁이다.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실천에 옮겨질 때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짜오닝– 이타행이야말로 전쟁과 환경 문제 등 현대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불교가 인간의 삶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홍기삼– 동국대에서는 불교생태학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불교생태학 연구는 생태학에서 불교의 근대적 연구방법을 찾는 것과 동시에 불교의 철학적 원리를 생태학에 제공하는 것이다. 경쟁원리가 아니라 공존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줄 수 있는 가르침이자 교육방식이다.

△랭카스터– 하나의 인(因)이 수많은 과(果)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와 도덕이 왜 중요한지 인과의 도리를 통해서 설명해주어야 한다.

△첸마오쉥– 석유를 생산하면서 매연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산자의 잘못이다. 바람직한 것은 매연이 나지 않는 석유를 생산하는 일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석유를 생산하기 보다는 매연이 나지 않는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적 교육논리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자각성에 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4개大 총장들은 한결같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14> 혜주 스님

빈틈없이 행동하는 수행자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가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수행자로서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회룡사 혜주(慧珠) 스님은 세수가 80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행동하는 수행자로 유명하다. 서울외곽고속도로 북한산 관통 반대에 앞장섰고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금도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며 실천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1925년 일본에서 태어난 스님은 청년시절 일본 적십자병원에서 간호교육을 받는 등 근대 교육을 받았다. 의료시설과 종사자가 부족했던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워 20세에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의료활동에 전념했다. 한국전쟁 때는 대구 동산병원, 9군단 민사처 병원 등 전장의 야전 병원에서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며 '왜 사는가'라는 인간 근원의 물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됐고 1959년 은사이신 도준 스님과의 인연으로 회룡사서 출가했다. 62년 도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66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군 · 교도소 등 소외지역서 포교
종립학교 설립 · 환경운동 앞장

혜주 스님은 비록 은사스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은사스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하신다. 해제철에도 선방에 앉아 홀로 수행을 했을 만큼 철저했던 은사스님은 가난했던 시절 어쩔 수 없이 논농사를 위해 모내기를 할 때도 죽비를 쳐 가며 울력을 하는 등 일상이 곧 수행처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혜주 스님은 사찰 수호와 불교홍포를 위해서 과감히 산문을 나섰다. 6 · 25 당시 미군에 의해 불타 버린 회룡사를 전쟁 이후 은사스님을 도와 대웅전 등 지금의 사격을 갖추는데 전력했고, 1963년에는 경내지의 수복 등기를 마쳐 삼보 재정의 유실을 막기도 했다.

스님은 회룡사 선방에서 40년 이상 안거를 성만했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참선 수행을 하는 등 수행에 열심이다. 포교에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군사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군종법사가 파견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군법당을 찾아가 군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고 교도소, 병원 등 소외지역 포교에도 매진해 왔다.

혜주 스님은 1970년대 초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 7명과 함께 불교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자비회를 창립했다. 초창기에는 기금 모금과 친목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80년대부터는 매월 2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또 지역에 불교종립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서원해 1974년 지금의 광동여고 전신은 광동전수학교를 설립했고, 1984년에는 자비회 기금을 바탕으로 자비유치원을 개원 20여년을 원장으로 활동하며 불교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공심으로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며 "최근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건강을 돌보시지 않고 다소 기력이 떨어진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부산불교계 "문화예술로 포교해요"

부산지역 불교계가 금정산생명문화축전과 장승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한 포교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정산생명문화축전에 경우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선찰 대본산 범어사가 위치한 금정산을 주제로 열리는 문화축제로, 지역문화 육성뿐 아니라 포교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호복지관의 장승축제 역시 복지관과 지역민이 공동주최자가 되어 지역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다.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금정산을 중심으로 열리는 '금정산생명문화축전 2004'는 부산민예총이 주최하는 행사로 부산시 지원금 5천만 원을 포함, 자체 경비와 후원금 등을 합해 총 1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이다.

'생명의 금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5월 22일 오후 7시 시작되는 금정산 야간산행인 '달빛사냥'을 시작으로 23일 열리는 효원국악연주단의 환경사랑 금정산 산상음악회, 바다사랑환경퍼포먼스(5월24, 25일), 자연과 하나되는 생명문화 체험(26일), 온천천 생명보전 시민마당(27, 28일), 학술심포지엄(29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29일 오전 10시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학술심포지엄에는 시인이자 미학자인 김지하와 실상사 전 주지로 전국을 돌며 생명순례 탁발에 나서고 있는 도법 스님을 초청, '생명공동체로 가는 길'을 주제로 생명사상강연회를 연다.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 장승축제 등
생명 · 환경 · 평화 주제 행사 다채
불법 전파 · 지역경제 활성 큰 기대

특히 30일 열리는 '생명평화 인간띠 잇기' 행사는 이번 축제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오전 10시부터 금정산 동문에서 북문광장까지 4.5㎞를 인간띠로 잇는다. 인간띠 잇기에는 전국 탁발순례를 하고 있는 도법 스님과 수경스님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의 '제1회 장승축제'는 5월 7일, 8일 용호동 관내 주민들을 위해 사라져 가는 장승을 도심에 다시 세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축제는 복지관 마당과 인근 도로 주변에 장승 10두를 세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새로운 지역축제 마당이다.

장승축제 기간동안 용호복지관 인근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용호대장군, 용호여장군, 오륙도대장군 등 지역색이 물씬 풍기는 장승 10두가 세워지며,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승제제가 올려진다.

장승축제는 57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장승제(7일 오후 2시), 장수잔치(7일 오후 3시), 주민참여축제(7일 오후 4시),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효 큰잔치(8일 오전 10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관현악 공연, 힙합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승 사진 콘테스트 및 장승 그림 대회(8일 오후 2시), 가족 노래자랑 등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의 장도 마련된다. 특히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하는 장승 사진 및 그림 대회는 초등, 중등, 고등 및 일반인 모두 참여가능하며 대상 금상 은상 등에 대해 시상이 이뤄지며 수상작은 복지관내에 전시하게 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프랑스 경제사학회 80명 템플스테이



프랑스경제사학회 회원들이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좌선을 하는 모습.

해인사서 1박2일 "세시봉"

프랑스경제사학회 회원 80명이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경제사학회는 대학교수, 교사 경제,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의 대표적 지식인 단체로, 80명이라는 많은 회원이 한국 전통 사찰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한국방문은 회장 쟈크마르세이유(jacquesMarsille, 파리1대학 역사학과 교수)와 그의 제자 외교안보연구원 정상천 외무행정관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프랑스 내에 불고 있는 불교 열풍을 짐작케 했다.

23일 오후6시 회색의 수행복을 갈아입으면서 시작된 한국의 산사체험은 푸른 눈의 수련생 에게는 이색 체험 그 자체였다. 범종각에서 들리는 법고와 범종소리는 이들을 매료시켰고, 예불시간의 장엄함에 빠져들었다. 입식생활에 익숙한 탓에 좌식의 산사체험이 힘들었지만 애써 자세를 잡아 좌선도 하고 발우공양도 했다.

한국불교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보경당에서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시간에 쏟아져 나왔다. "스님은 왜 출가했습니까?" "달라이라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등 질문은 끝이 없었다.

평생 처음 불교의식으로 예불을 드린 프랑스경제사학회 회장 쟈크마르세이유 교수는 "발우공양, 예불 등을 체험하며 해인사에서 보낸 하룻밤은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운경로 재현



전국에서 모인 천여명의 불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도를 도는 모습.

사부대중 1천여명 동참 정대불사 · 동판 봉정식 봉행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장엄한 염불소리와 함께 이어진 팔만대장경 이운 행렬은 팔만대장경을 제작한 750여 년 전 선조들의 호국불교 이념을 되살리며 장엄하게 이어졌다.

4월 27일 팔만대장경축제 제전위원회(공동 제전위원장 세민)가 주최한 팔만대장경 이운경로 재현 행사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해인사, 운문사, 청암사 스님과 불자 등 1,000여 명이 동참해 장관을 이뤘다.

팔만대장경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나라의 안정과 화합,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거행된 팔만대장경 이운 행사는 합천읍 공설운동장에서 영창교구간까지, 해인사 길상암에서 보경당 광장까지의 구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팔만대장경 이운행사에 참여한 불자들은 모두 옛날 복장으로 팔만대장경 모조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는 등 600여 년 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까지 이운한 당시 모습을 재현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과 심의조 합천군수 등도 당시 인물의 모습을 하고 나섰으며, 경판을 실은 소와 달구지, 지게가 등장하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빗속을 뚫고 이운된 팔만대장경판은 해인사 일주문을 지나 장경각에 봉안됐으며 1박2일의 정대불사가 이어졌다. 역대 큰스님들의 부도탑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시련으로 시작된 정대불사는 보경당에서 지관, 원융, 종묵 스님의 해인삼매 법문에 이어 밤새 영가천도와 대령관욕 의식이 거행됐다. 정대불사는 28일 오전 보경당 앞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천 여명의 불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도를 도는 정대요잡을 끝으로 회향했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마창불교 지도자 경제회복 기원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진해사암연합회(회장 도근) 공동 주최로 25일 창원 성주사에서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기원하는 마창 불교지도자 기원법회가 열렸다.

도근 스님의 기원문 낭독, 원정 스님의 봉행사, 불교지도자 및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안홍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의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 법회에 이어 2부 행사로는 제 8대 이사장 지태 스님, 회장 원정 스님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준공
4월 25일, 3천여명 참석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지원장 혜문)이 4월 25일 준공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포항사암연합회 회장 경천 스님, 오어사 주지 장주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준공법회는 현판식, 테이프 절단식, 축사, 법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원장 혜문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와 일체 유생 무생의 정성으로 준공된 도량이 부처님의 진리 세세생생 이어가는 여래도량으로 무궁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2002년 3월 24일 포항시 우현동 6,100여 평 대지에 기공식을 거행한 이래 연면적 399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동기와 지붕의 전통한식구조와 현대식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됐다. 신축법당은 불법승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물 양면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법당에는 36조사를 모셨다.

포항=배지선 기자

불심 홍법원, 부산신도회로 통합



불심홍법원 인수인계 이후 부산불교신도회 이사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홍법바라밀제, 장학금 지급 등 포교와 불교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왔던 (재)불심홍법원이 부산불교신도회로 통합됐다.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4월 22일 부산 신창농장 홍법사에서 불심홍법원의 이사직은 물론 사업 전반을 부산불교신도회로 인계했다.

하도명화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불교신도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국제불광회, 아주연합회 환영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협회장 심산)는 4월 22일 홍법사에서 국제불광회 아주연합회 환영 행사를 가졌다.

일본, 대만을 비롯 7개국의 국제불광회 아주 지역 임원 100여명과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회원 등 4백 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홍법사가 위치한 신창농장내 잔디마당에서 한국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천미희 기자

대구 맹인불자회 산행대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4월 25일 제 13회 시각장애인 불자 산행대회를 팔공산 갓바위에서 개최했다.

이날 산행대회에는 시각장애인 150여명과 자원봉사자 약 150여명이 동참해, 법회를 봉행한 뒤 갓바위 정상까지 산행을 했다.

이날 행사는 보현사 청년회를 비롯해 50사단 장병 100여명, 대구 오성고 학생 20여명, 대불봉사단, 성심회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 배지선 기자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회향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가사불사 회향과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1. 일 시 : 불기 2548(2004)년 5월14일(음 3.26) ~ 15일(음 3.27) 2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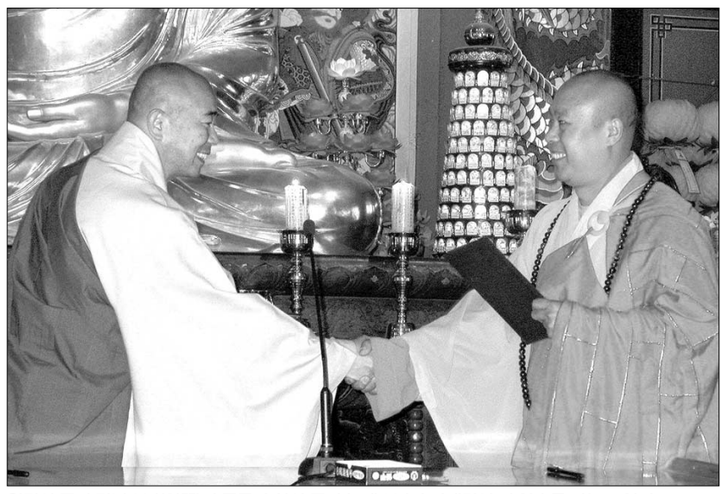
5월 14일	5월 15일
◇오후 2시 : 가사불사점안	◇새벽 3시 : 새벽예불
◇오후 3시 : 보살계 입재식	◇새벽 4시 : 보살계 법문
◇오후 4시 : 보살계 법문	◇오전 7시 : 보살계 법문
◇오후 7시 : 보살계 법문	◇오전 9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 의식
◇오후 8시 : 전국 불일회 및 21교구 신도회 총회	◇오전 11시 : 보조국사 종재
◇오후 10시 : 철야정진	◇오전 11시 30분 : 영가천도재

2. 동참방법 : 삼월불사나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9 / FAX : 061)755-0408

3. 동 참 금 :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 · 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0085 우체국(예금주 : 송광사)
● 가사불사 : 한 벌 동참금 : 300,000원
· 가사불사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1255 우체국(예금주 : 송광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한국과 중국의 '오대산' 손 잡았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왼쪽)이 중국 수상사 주지 능계스님과 자매결연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월정사, 中 오대산불교협과 자매결연
화엄사상 · 문수신앙 학술대회 등 추진
16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숲길 걷기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바뀌고 있다. 조용하던 예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정념 스님이 새 주지로 부임하면서 대내외 교류는 물론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월정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오대산과의 자매결연과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 대회'

월정사(주지 정념)는 4월 25일 월정사를 방문한 중국 산서성(山西省) 오대산 불교협회장 근통(根通) 스님과 오대산 수상사 주지 능계(能戒) 스님, 산서성 부성장(副省長) 송북삼(宋北杉) 등 중국 방문단과 자매결연을 맺는 한편, 오는 6월 24일 중국 오대산을 방문해 불교문화교류 및 수행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교문화교류는 매년 화엄사상과 문수신앙과 관련한 학술 대회 등을 포함한 문화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행교류는 양국의 스님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안거 정진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 오대산과의 자매결연은 문수신앙과 화엄사상을 꽃피운 상원사의 역사를 계승하고 중국 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불교를 적극 알린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월정사는 특히 이번 자매결연이 1,400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문수신앙이 서로 만났다는데 의미를 두고 양국 교류를 계속해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월정사를 출발해 상원사까지 약 10Km를 걷는 '제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는 월정사와 오대산의 문화유적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단순한 걷기 대회는 아니다. 월정사→전나무숲길(생명의 거리)→반야교→상원사 선재농장→오대산장(나눔의 마당)→상원사(평화의 기원)를 거치는 코스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고, 대회 동참자들은 그 주제에 맞게 생명과 평화, 자비, 자기 수양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전나무숲길(생명의 거리)에서는 묵언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고, 오대산장(나눔마당)에서는 전시회 및 바자회를 통해 장애우 돕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상원사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염원하는 기원문을 적어 부처님전에 봉헌한다. 이밖에도 사진전시회, 선원 개방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걷기 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당일 출발 전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일반 1만원, 대학생 이하 및 단체 5천원)는 전액 장애우를 위해 사용된다. (033)332-666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월정사 연수원장 무구 스님은 "걷기대회나 중국 오대산과의 자매결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지역민과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월정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육군 부사관학교 대법당 개원
매년 3000여명 계 받게 될 듯



법회 참석자들이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 개원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국내 최대 하사관 양성기관인 육군 부사관학교에 최대 1200여명의 군 불자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법당이 건립됐다.

전북 여산에 자리한 육군 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주지 정행 스님)는 4월24일 대웅전을 중창하고 법당 개원 및 불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향림사 조실),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보문종 전 총무원장 혜일 스님 등 중창불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스님과 신도, 육군 부사관학교장 송유창 준장 등 학교 관계자, 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 군승단장 장성화 법사 등 군법사와 부사관학교 불자생도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군복무기간이 짧아지면서 부사관의 수효가 늘어나 이들이 좀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게 됐다"며 "이곳에서 공부한 생도들이 각 부대에 나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충국사 중창을 기념해 법당앞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충국사는 대웅전 250평, 요사채 50평을 신축했으며 삼존불을 봉안했다.

한편 육군 부사관학교는 매년 1만여명의 하사관후보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새로 건립된 법당에서 해마다 3000여명의 군불자가 수계를 받고 야전에 배치될 전망이다.

충국사 주지 정행 스님은 "이들 하사관후보생들은 군에서 최대 30-40년 이상 군복무를 하는 군의 기둥이다"며 "군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충국사 운영을 위해 천불(千佛)봉안 불사에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천불봉안 동참 문의: 017-674-6236)

이준엽 기자

천태종 광주 금광사 전법도량 불사
교육관, 유치원 갖춰 2006년 준공



광주 금광사는 전통사찰 양식의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금광사는 4월 16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을 비롯 종단 임원 스님과 지역기관장,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금호동 백석산 금광사 경내에서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법어에서 "금광사 법당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귀의하는 이마다 모두 안심입명(安心立命)하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금광사 주지 설래장 스님은 개식사를 통해 "법당 불사를 통해 인류의 반목과 전쟁이 종식되고 인류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건립되는 금광사 법당은 연건평 900평에 전통사찰양식 3층 슬라브 건물로 법당, 교육관, 유치원과 기관 사무실이 들어서며 오는 2006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안양 지장선원

특별한 강좌…포교의 힘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각 스님의 특강을 경청하는 지장선원 신도들.

철저한 준비로 걸림없는 강의
유명 강사진·독특한 수업에 '만원'

수도권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면? 안양불교대학의 한 거사는 "망설일 것 없이 지장선원으로 가라"고 말한다. 종교나 종파를 초월해서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곳, 깨달음 추구와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장선원이라는 생각에서다.

지장신앙을 모태로 안양의 번화가에 자리잡은 지장선원은 '지역포교의 산실'로 불린다. 건물 한 층을 얻어 어렵사리 시작한 사찰이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찰도 꾸리기 힘든 불교대학을 수년째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장선원이 불법보급의 대명사가 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사진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초보불자와 교리박사 누구에게라도 걸림없는 강의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8개월동안 이어지는 기초반 강좌에서는 불자로서 갖춰야하는 기본상식은 물론, 그 어떤 법회나 의식에서도 여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생활불교를 지도한다. 경전반 강좌 역시 다양한 경전들을 쉽게 풀이하는 가운데 불자들의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하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과정을 수료하면 개근상, 공로상 등의 상패를 수여하기도 해, 신심있는 불자들에게 각별한 기쁨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강좌의 백미는 바로 한달에 한 번씩 마련되는 특강. 선원에서는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스님, 세민(수안불교대학장) 스님,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스님, 현각(동국대 불교대학장) 스님 등을 초청, 기초반과 경전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좌를 준비한다. 조금은 '특별한' 교수진의 수업을 매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참여와 호응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불교방송 진행자이자 탤런트인 김병조 · 김용림 · 최영준 씨 등을 초빙해 재미있는 생활불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준비돼있다. 또한 이종걸 씨 등의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법률상식 등의 특강도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장선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준비된 교수진'과 '알찬 강의'에 힘입어 5년 동안 1000여명의 학생들이 안양불교대학을 거쳐갔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을 지도하더라도 참된 불자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주지 현호 스님의 각오를 반영하듯, 학생들의 불법공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연재해를 겪은 이웃에게 일일이 성금을 전달하고, 불우이웃돕기와 교도소 위문공연 등의 활동 역시 5년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배운대로 구하기에 힘쓰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 지장선원 불자들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031)444-5935

강신재 기자

무료진단과 공개강좌 개시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한국 전통 기문미래 연구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물품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홍체학은 무엇인가? ◎

"최첨단 눈 동궁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스트 공홍진교수와 팔상 체질의학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개발 프로젝트 개발

- 자연치유 의학에 시작,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재)
- 자연치유 영양요법은 공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의 : 경희대졸, 유니피아 홍체 자연치유학회 전문위원, 침코리아 홍체 강의 중)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무료강좌

매주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 규봉선생과 소인선생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

평생 직업! 오후 2시부터는 특강반 모집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하게 사주, 작명, 인상학, 궁합, 택일,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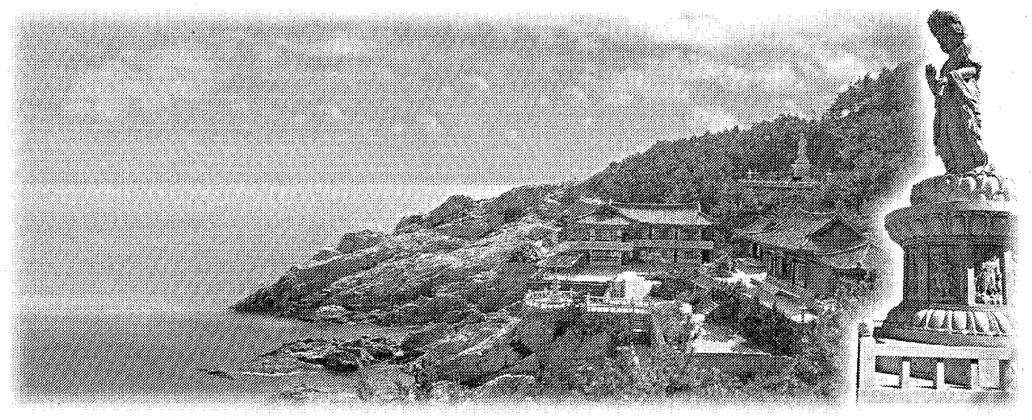
사단법인 : 한국 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9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태고·총지종 종정 6월 추대

태고-혜초·일우 스님, 총지-원봉·효강 정사 등 물망

태고종과 총지종이 현재 공석중인 종정(종령)을 새로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누가 후임 종정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종정 덕암 대종사가 지난해 11월 22일 원적한 이후 5개월째 새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는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부처님 오신날 이후인 6월 3일께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새 종정을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은 당초 2월 추대할 예정이었으나 원로회의 의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대를 늦춰왔다. 종단의 최고 어른을 모시는 중대한 일인 만큼 선출 보다는 추대가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미룰 경우 종단의 정체성도 흔들릴 것으로 우려, 시기를 6월초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차기 종정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님들에게 종단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종정 후보로 거론되는 스님은 서울 법륜사 조실 혜초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등이다. 그러나 종단 집행부와 원로의원들이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 좀처럼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덕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은 혜초 스님은 총무원장, 포교원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태고종내 최대 문도인 대륜문도회를 이끌어 왔다. 반면 일우 스님은 청도 보현사를 창건한 이후 줄곧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 왔으며, 대구 · 경북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등을 지냈다.

3월 29일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가 원적함에 따라 새 종령을 선출해야 하는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후보가 너무 많아 고민에 빠져 있다. 4월 22일 열린 승단총회에서 차기 종령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전 종령 수성 대종사의 49재가 지난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로 스승(교화 일선에서 은퇴한 스승)인 원봉 정사와 효강 정사, 부산경남 교구장 혜암 정사, 중앙종의회 의장 의강 정사 등 5~6명의 스승이 차기 종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리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에는 일체 함구령이 내려졌다.

수성 종령의 49재가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종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수성 종령이 새해불공 기간에 원적하면서 종단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록정 전 종령이 입적한 이후 6개월 동안 차기 종령을 선출하지 못했던 전례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종령 추대를 위한 승단총회는 6월 월초불공 직후 소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범 한달을 맞은 우승 통리원장 체제가 원활한 종단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후보군에 올라 있는 스승들의 면모가 쟁쟁한 것도 총지종의 종령 선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총지종립 동해중 이사장에 의강 정사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 교정부장 지회심 전수 임명


의강 정사


환수원 전수


지회심 전수

총지종은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통리원 부장, 종의회 의원 등 공석 중이던 종단 주요 요직을 메워나가고 있다.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는 4월 16일 제94차 이사회를 열고 의강 정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통리원도 4월 22일 부장 인사를 단행,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 교정부장에 지회심 전수를 임명했다. 또 4월 22일 승단총회에서 공석 중인 중앙종의회 의원에 법공, 해정 정사를 선출했다.

관음학사 새 이사장 의강 정사는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2년 총지종에 입문한 이후 사감원장, 원의원, 부산경남교구장, 중앙종의회 의장, 부산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종의회 의장, 부산 삼밀사 주교를 맡고 있다.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는 82년 총지종에 입문한 이후 중앙종의회 의원,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원의회 의원, 전당 건설위원 등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벽룡사에 주석하면서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규정부장 지회심 전수는 95년 전법관정 수계한 이래 정각사, 밀행사를 거쳐 포항 수인사에서 교화활동을 펼쳐 왔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홈페이지 입찰 심사

5월 중순 최종확정…종무행정 투명화 첫 시도

태고종이 열린 종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4월 28~30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서울종무처에서 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입찰 심사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사업을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종단의 사업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태고종 총무원 관계자는 "투명한 종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외주를 통해 이뤄지는 불사는 물론 종단내의 종무행정까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5월초까지 3개 업체를 선정하고 2차 인터뷰를 거쳐 5월 중순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올 연말 개통할 예정이다.


한 입찰 참가업체가 태고종 총무원에서 홈페이지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만월회 회원 7백명 돌파

매월 각자 1만원 불우이웃에

진각복지재단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 릴레이 만월회' 캠페인에 동참하는 회원이 7백명을 돌파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702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만월회 캠페인은 매월 1만원을 성금으로 내놓는 보시운동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또한 명의 회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승달이 점점 차올라 보름달이 되 듯 불우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회원을 늘려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월회(滿月會)라 명명됐다.

진각복지재단은 만월회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을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납골당 건립, 소외가정 후원 프로그램인 진각복지 119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대표단 13일 訪日

진언종 개산재 초청받아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를 비롯한 8명의 진각종 대표단이 일본 진언종 지산파 대본산인 평간사의 초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회성 정사는 "이번 방문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교류대회때 진언종 관계자로부터 올해 진언종 대개장(개산재) 행사기간 중 방문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진각종 대표단은 일본 방문기간 동안 평간사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양 종단의 교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홍법대사 탄생 봉축법회와 자등 호마공양 시연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호국기도도량으로 알려진 오사까 사천왕사의 37존상 본당 참배, 교토 동사의 교학 연구기관 참관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신도회 임원 연수 돌입

자원봉사·복지활동 교육 강화

조계종이 제3교구를 시작으로 신도회 임원 연수 일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마근)는 4월 24~25일 설법전에서 본말사 신도회 임원 연수를 실시했다. 소속 16개 사찰의 신도회 임원과 불교대학 임원,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강의, 토론을 비롯해 참선, 108참회, 수계식 등 실참 수행도 병행됐다.

올해 연수회부터 자원봉사와 복지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조계종의 방침에 따라 신흥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에서는 '자원봉사'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 특강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와 원주 성불원장 현각 스님이 강사로 나서 '불교 자원봉사활동의 이해'와 '불교자원봉사 실례 및 실천방향'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은 올 연말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실시된다. 다음 연수는 제4교구 월정사에서 6월 5~6일 열린다.



미륵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4월 21일 부산 옥선사에서 티베트 잠보라 라마 스님을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 및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5백여 불자들이 동참해 수계를 받았다. 미륵종 전국비구니회장 동성 스님(옥선사 주지)은 "수계를 받는 순간 불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불자로 태어나게 됐다"며 "부처님 말씀에 충실하고 삼보와 불법을 수호하는 우바새 · 우바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각종 자성학교 전담교사 연수

진각종 포교부(부장 무외)는 4월 28~29일 서울 월곡동 통리원에서 자성학교 전담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진각종 산하 자성학교 전담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는 리더십 교육과 종이접기 강습, 여름 연합캠프 일정 및 세부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무외 포교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담교사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어린이 포교에 적합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종단소식

칭찬 주인공 서용은 씨

천태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이 전개하고 있는 칭찬 캠페인의 세번째 주인공에 서용은 변호사(서울 현대병원 내과 전문의)가 선정됐다. 서용은 변호사는 천태의료봉사회 회원으로, 매월 첫 · 셋째 주 토요일 서울 관문사 신도상담실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법륜종 논산포교당 낙성

법륜종(총무원장 창법)은 총무원이 있는 지장암의 논산지역 포교당 대현사를 4월 25일 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현사 회주 창법 스님을 비롯해 주지 법원 스님, 고산 스님, 지엄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논산시 대교동에 위치한 대현사는 앞으로 법륜종의 논산지역 포교를 담당하게 된다.

조동종 사업일정 확정

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4월 23일 열린 6부 원장회의에서 주요 사업과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중국성지 순례 및 동방대불 수륙영산재는 6월 10~13일 중국 성도, 낙산, 아미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종도들의 편의와 소속감 고취를 위해 제작하기로 했던 종도 수첩을 6월 중순 배포하기로 했다. 종도 수첩에는 불교의식 기능보유자 현황과 전국 사찰 및 종도 현황, 종헌 · 종법 등을 수록하기로 했다. (02)2062-0725


△금봉암에서 본 석종사 전경

석종사 낙성식법회

천년고찰 충주 석종사에서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석종사는 신라, 고려시대에 백여명 넘는 스님들이 수행하던 대가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배불숭유정책으로 폐사가 되어 개인소유가 되었던 터를 여러불자들이 지난 20년간 약10만여평의 터를 마련하고 3년전부터 복원불사를 시작하여 이번에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루 동참하셔서 경책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찾는 아름다운 목동이 되어 성불의 씨앗을 심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하나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일 시 : 5월 15일 (음력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석 종 사 선원장 혜 국 합장

충북 충주시 직동 149번지

043)854-4505 • 051)804-5657

조흥은행 622-04-402285 예금주:석종사

여성 직장불자들의 '수다' 엿들어 볼까요?

"애 아빠가 오늘 입원했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라고 등 떠밀었지만, 그 놈의 고집은 왜 그리도 센지. 글쎄 검사비는 백만 원이 넘고…. 속상해.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어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박현남** 간사(43·자성월). '남편은 웬~쑤!' 라고 목청을 높인다.

국립경찰병원 법우회 **윤애경** 씨(43·보련화)가 박 간사의 말을 받는다.

"그래도 지아비잖아. 팍팍 돈 써. 미워도 내 남편인데."

4월 26일 오후 7시, 한적한 한식당이 술렁인다. 여성 직장불자들의 '수다'가 시작된 것. 오늘 모인 선수(?)들은 5명. 박 간사와 윤 씨, 그리고 선재마을의료회 **여오숙** 간사(39·수일성),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원혜랑** 씨(34), 감사원불자회 **채혜자** 씨(38·보광명)가 '이야기보따리'를 챙겨왔다.



여성 직장불자들의 '신행수다'. 원혜랑, 여오숙, 윤애경, 채혜자, 박현남(사진 왼쪽부터) 씨가 4월 26일 모처럼 마주앉아 직장 얘기, 사는 얘기, 신행 얘기 등을 나누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웃고 떠들다 보면 '잘사는 길' 보이죠

제1 라운드. 주제는 '가족을 부처님처럼 여기라.' 반발부터 쏟아진다.

"남편은 할 것 다하고, '애들 목욕시켜'라고 명령하면 밉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바닥 뒹굴면서 빽질댈 때 얄밉죠."

결혼 8년차 원 씨가 첫 포문을 연다.

"맞아요. T.V. 리모콘 쥐고 이것저것 집안일 참견하면 짜증나죠. 밤늦게 들어와 밥 차리라고 하면 달달 볶고 싶죠."(박현남)

"그래도 남편인데. 스님들은 법문에서 남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던데요?"(기자)

"부처님은 열 받게 하지 않잖아요. 다 포용하고 기다리시잖아요. 남편은 안 그래요."(윤애경)

부부신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사찰을 찾아 108배를 함께 해요. 한바탕 절을 하고나면 쌓아놨던 불만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간 소홀했던 이야기도 솔솔 나와요. 부부의 종교가 같다는 것도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박현남)

"함께 절에 가자고 하면 '난 종교가 없어!'라고 잘라 말하죠. 하지만 절에 가면 몰래 합장을 하더군요. 여성 직장불자들이 남편은 물론 가족들의 신행을 이끄는 '역군'이죠."(원혜랑)

제2 라운드. 집에서는 주부로 일터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겪는 이중고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신행'으로 푸는지 비법들이 공개된다.

"참 불법(佛法)은 대단해요. 13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싫은 사람을 피하려고 해도 꼭 다시 만나더군요.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지금은 '내가 전생에 그 사람을 많이 괴롭혔나 보다'하고 참회하는 계기로 삼고 있어요."(여오숙)

"사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엄청나요.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선입견과 싸워야 할 때가 많아요."(원혜랑)

▮제1라운드… 가족을 부처님처럼
함께 정진하며 희망설계하는 도반

▮제2라운드… 주부 직장인의 이중苦
스트레스, 참회계기로 삼으면 행복

▮제3라운드… 생활비 그리고 보시금
빠듯하기에 베풀면 기분 더 좋아

"여성 직장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은 난관에 부딪칠 때가 많아요. 상관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면, '너 불자인 거 아는데, 상관인 나한테 불교냄새를 풍기면 되겠어?'라며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묘안을 생각해냈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피부과에 내걸었죠."(윤애경)

"왜 그랬어요?"(일동)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달려고 그랬죠."(윤애경)

제3 라운드. 요즘 침체된 경기에 빠듯한 생활비가 화제에 오른다.

"늘 부족하죠. 직장불교회비, 보시금, 애들 교육비 등등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시금 만큼은 반드시 챙겨요. 빠듯한 생활비에서 미리 보시금을 뗄 때 이걸 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도 이게 지혜로운 돈 쓰는 비법이 아닐까요?"(윤애경)

시간은 흘러 2시간 째. 수다는 신행경험담으로 이어진다.

"올해 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랑에 다 짊어지고 갈테니, 근심 걱정 다 놓고 가라'는 말씀은 제가 좀더 간절히 신행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됐죠."(채혜자)

"전 서울지방청 발령을 받고 경승실에 갈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꼭 꿈에서 부처님을 뵙고 가위에 눌려 잠을 깨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완벽한 사람은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충고를 듣고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기도를 할 때면 맺혔던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눈물이 주책없이 흘러내려요."(원혜랑)

"나도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요."(박현남)

"맞아요. 좌복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면 기도의 참맛을 알 수 없을 거예요."(여오숙)

여성 직장불자들의 신행담은 야무진 신행계획으로 옮겨간다. 박 간사는 출근 시간을 활용한 30분 관음정근을, 원 씨는 퇴근 후 경승실에서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진 윤 씨의 당찬 포부.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지난 3월 불교대학에 입학했어요. 불교공부를 착실히 해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 포교'에 앞장서는 불자가 될래요."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넉넉함에 인간은 언제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보답을 하려도 막상 나무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불심에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불자들은 늘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국립산림과학원(舊 임업연구원) 불자들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부처님의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또 인격을 수향하고 불교전통문화 발전의 기여에 한 몫을 하려고 불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원들이 2000년 11월 원내 강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신행 모델로
법회·토론회·회보 발간 알차게 가꿔

우리 불교연구회 식구들은 총 32명입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회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직원들과 퇴직한 원로 직원까지 아우르며, 도반의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원내에서 법회를 갖고 불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연구회의 법회 형식은 남다릅니다. 법회는 세미나 방식으로 불교교리 발표회를 가져 회원들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간 궁금했거나 몰랐던 것을 알아갈 때면,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우리 불교연구회는 전문직 특성을 살린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불교문화의 전통과 유지발전을 위한 목조문화재의 유지보소 및 관리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스님들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짧은 기간과 적인 인원의 신행모임이지만, 우리 불교연구회는 그동안 자체 제작하는 회보 <山林불교>를 매월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43회를 발간한 <山林불교>는 매회 6면씩 발행되며, 총 2천부를 제작해 우리 불교연구회는 물론 불자, 신행단체, 사찰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보의 편집과 발간은 정년퇴임한 이태수 주간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주간은 그간 회보의 모든 제작비용을 사재 2천 여 만원을 털어 만들었고, 일일이 봉투 작업까지 해 불교연구회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이처럼 소중하게 만든 회보는 주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연구회는 정기법회 봉행 주기를 한달로 좁히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준비해 직원들의 법회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회보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이나 회보에 게재를 희망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태수 주간(02-2644-1460)이나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02-961-2575)로 연락해주십시오.

■이동흡 총무(목재연구실장)

동숭동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생활의 지혜
365일 부처님 말씀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윤창화 엮음
값 7,500원

【10월 1일】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도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1월 · 자비와 보시
2월 · 선행과 악행
3월 ·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4월 · 증오와 반성
5월 · 인내와 노력
6월 · 애착과 고통
7월 · 애욕과 탐욕
8월 · 올바른 삶
9월 · 친구와 가정
10월 · 거짓말과 말조심
11월 · 자유와 행복
12월 · 진리와 무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는 업을 낳고
업(業)은
고통을 낳는다!



정승석 지음(동국대 교수)

번뇌 업 고통

민족사 간/신국판/값 8,500원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이젠 나눔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는 나눔운동이 교계와 일반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창간 10돌을 맞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이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태고종이 1사찰 1선행하기운동, 천태종이 '나누며 하나되기운동', 진각종이 '행복 릴레이 만월회'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올해부터 불교계에 불어닥친 '나눔'의 아젠다는 각 종단과 단체들이 공동의 '화두'로 삼고 총출동하는 상황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1% 나눔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부문화가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다.

불기 2548년 5월, 부처님 오신달을 맞아 나눔의 아젠다가 확산되는 흐름속에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동포돕기, 본지 나눔의 손잡기 열기 현장, 나눔 방법과 혜택,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사찰 및 단체,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처 등을 소개한다.

나누면 모두 행복해집니다

각 종단·단체 나눔운동 전개 '주목'
기부문화 정착…동참열기 고조

"北 용천에 '자비' 보내자" 동포애 활짝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희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지구촌 공생회는 4월 28일 북한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한 뒤 피해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마다 호소문 발표 · 접수창구 개설 등 분주
등달기 등 성금모금 위한 각종 행사도 벌어져

북한 용천역 참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동참자들도 속속 늘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종단과 단체들, 그리고 사찰들은 예상보다 피해가 큰 만큼 불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4월 2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호소문에서 "북한 동포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피해복구에 함께 나서자"고 밝혔다.

△모금계좌-국민은행 023501-04-003199(예금주 조계종 유지재단) △문의 (02)2011-1820(총무원 사회부)

■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4월 27일 긴급 종무회의를 열고 '용천역 참사 현장에 구호물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2천여 사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달했다. △문의 (02)382-7361

■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전국 각 말사에 자비의 연등 모금함을 용천참사 지원 · 성금함으로 전환하고 5월 26일까지 성금을 모금한다.

△모금계좌-우리은행 843-060670-13-025(예금주 (복)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 △문의 (02)573-7645

■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1인 1등 달기 운동과 용천역 참사 모금운동을 전국 각 심인당별로 5월말까지 전개한다.

△모금 계좌-농협 024-01-040135(예금주 대한불교진각종) △문의 (02)913-0751~4

■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4월 29일 대한적십자사에 이불 100채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5월 26일까지 전국 사원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문의 (02)552-1080

■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이하 실천승가회)는 4월 27일 이번 참사에 슬픔의 뜻을 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금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모금계좌-국민은행 023-01-0561-467 (예금주: 실천승가회) △문의 (02)725-4277

■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긴급 지원을 위해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이지현 사무국장을 4월 25일 중국에 급파하는 한편, 평안섬유에서 지원받은 의류 1만1천벌과 양초 4천여 개를 용천에 지원했다.

△모금 계좌-국민은행 086-01-0339-254(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문의 (02)587-8756

■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는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원과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있다. △모금계좌-국민은행 023-01-0542-448(예금주 대한불교청년회) △문의 (02)738-1920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강지혜)는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의약품보내기 운동은 온라인모금과 거리모금, 법회모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모금계좌-국민은행 930001-01-097039(예금주 강지혜) △문의 (02)732-0239

■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는 4월 28일 서울 영화사에서 '북한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재 및 부상자 회복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2천만원을 피해 동포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위령재를 회향하는 6월 9일까지 성금을 모금한다. △문의 (02)3432-6770

■ **평화실천광주전남 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는 용천역 폭발피해 동포 돕기 위원회(위원장, 김효석 불교연대 생명인권위원장)를 설치했다.

또한 불교연대는 그동안 모금한 북한어린이돕기 성금 가운데 500만원을 피해자 치료비로 긴급 지원했다.

△모금계좌-광주은행 006-122-316163(예금주-양옥자) △문의 (062)263-4742

■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회주 우학)는 28일 4층 대법당에서 북한 용천 사고 주민을 위한 기도 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생필품 접수대를 설치하고 5월 7일까지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문의 (053)474-8228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 경북대구본부(공동대표 장적, 안종학)도 의류(속옷, 겉옷, 모포, 이불), 의약품, 식품, 생필품 등 기타 긴급구호물자를 모으고 있다.

△문의 (053)254-9347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특별기고

나눔의 불교적 의미

나와 이웃의 佛性 지키는 일

요즈음은 어디서나 '나눔'이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나눔이 그저 유행어인가, 왜 나눔인가?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마침 지난 일년 남짓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실무를 보는 동안에 나는 그곳을 통해서 한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 단체에서는 장기나 헌혈 등과 같이 몸의 일부를 나눌 수 있도록 홍보 · 안내하는 것과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운 난치병 환우를 도울 수 있도록 홍보 · 모연을 해오고 있다. 수 백 장의 헌혈증도 모아서 환우들에게 보내졌다.

그 간에 장기를 기증하거나 후원금을 보내주신 우리 회원들을 생각하면,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서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듯싶다.

진정한 불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살림을 살 수 있는 것도 두루두루 함께 노력한 결과(因緣所生)이기 때문이며, 그 몫의 일부라도 덜어서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나 덜어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교계 신행단체인 <우리는 선수>에서 일찍이 '1% 나누기' 운동을 주창하였듯이, 나름대로 책정한 것을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불자의 나눔은 자신이 쓰고 남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림과 동시에 누군가의 살림도 염려하기 때문에 미리 덜고 아껴 쓰는 방식이 될 것이다. 돈과 물질의 소비가 미덕으로 권장되고 그래서 무지막지 살림의 쓰레기가 넘쳐나는 세상이라도 불자들만은 알뜰살뜰 아껴 쓰고 모아서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진정으로 넉넉한 살림을 살아야 한다. 셋째로, 불자라면 잘 아시다시피, 재시(財施) · 법시(法施) · 무외시(無畏施)의 교의를 깊이 새겨서 나눔의 양과 질을 동시에 구족하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돈이나 건강을 잃으면 물론 불행한 일이다. 거기다가 올바른 신념이나 희망조차 잃게 되면 그 불행은 한층 더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이웃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성(佛性)스러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불자의 나눔은 공생 위한 약속
미리 덜고 아껴쓰는 마음 중요
봉축기간에 실천력 응집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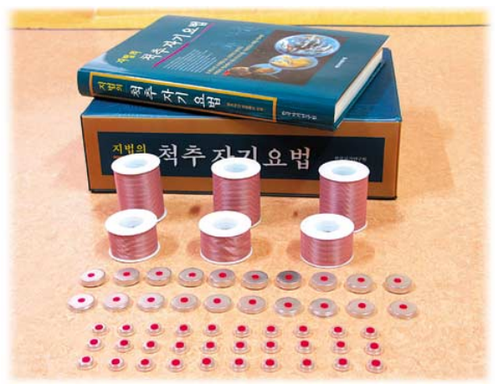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불자의 나눔은 연중무휴이지만 특히 봉축기간동안 우리의 결집력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면 좋겠다. 연말 무렵 기독교의 기념절에는 기독교인들이 좀더 많은 나눔을 이행하고, 우리 불자들로서는 연중 상반기 즉 지금과 같은 봉축기간에 나눔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의식과 실천이 좀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혜숙 교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면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하여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폐(폐식,폐변,폐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자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http://kumdeung.com

황 금 연 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 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하나가 둘되고 둘은 열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열기 뜨겁다

우리사회에는 빈부격차와 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137만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천여명의 미아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다. 우리가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당장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다. 본지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다. 2월부터 시작된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는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져 나눔저금통 3천5000여개와 스티커 3만5천장이 전국에 배포됐다. 또 37개 단체와 200여명의 불자들이 물품후원과 소년소녀가장 후원금을 신청했으며, 10여명의 불자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헌혈캠페인에 참가한 불자들.


노인급식소를 개원한 백련사 설산스님.


부산 반여3동 어린이집 원아들이 나눔저금통을 분양 받은뒤 활짝 웃고있다.


진각종 봄꽃축제에서 펼쳐진 연꽃만들기 체험.


봉사는 나눔의 꽃. 새생명회 농촌 의료봉사 장면.

●결식아동돕기 결연 신청 물밀듯

나눔의 손잡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결연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전개해온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결연신청한 경기도 고양시 김성권 거사와 손혜숙 보살이 3월 22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추천으로 후원가족을 만난데 이어 1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결연을 신청했다. 또 서울 영등포 탑사포교원(주지 무량 스님)이 최근 1급 시각장애자와 소년소녀가장 후원결연을 신청한데 이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조미란씨가 소년소녀가장 후원을 신청했다.

후원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 호롤룰루에 살고 있는 교포 장지원 보살(무량사 신도)과 전북 전주시 인후동 이영옥 보살,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김모 보살, 경남 양산 정익규, 충남 홍성 이정화보살, 최재순 보살이 성금을 보내왔다. 특히 부산에 살고 있는 한 불자는 아들(이제권)과 딸(이현희) 명의로 매달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본지에 각 5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물품도 후원됐다. 서울 서초동 권오남 보살이 내놓은 세계문화전집 세계명작전집 100권이 새로 만들어진 불교상담개발원 도서관으로 전달됐으며, 서울 서초동 박미숙 보살이 옷 5벌을 기증했다.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불티

나눔의 저금통과 스티커를 분양 신청한 사찰과 단체, 개인은 모두 51곳에 이르렀다. 또 저금통을 연중 비치하는 나눔의 가게는 31곳이나 된다. 4월 28일 현재 총 3천500여개와 스티커 3만5천장이 전국에 배포됐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어린이집(원장 일오 스님)'은 원숭이저금통 330개를 어린이 270명, 교직원 22명, 학부모 38명에게 분양 했다.

저금통 분양에 동참한 용인 보현정사 주지 청화 스님은 "나눔운동이 사회화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홍은3동 길상사 주지 진환 스님도 "나눔의 저금통을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도 모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 약천사 주지 행선 스님은 "주위사찰에도 나눔의 손잡기 운동의 동참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2조 손보명씨(광명시 소아동)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스티커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눔의 등달기 후원증 기탁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경내와 남산 순환도로에 3천등을 달고 연등값 1천여 사처 추천을 나눔의 손잡기에 요청했다.

개별적인 자원봉사 동참도 이어졌다.

충북 음성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백광현 법사가 혼자서 연주하는 사물놀이 연주기를 직접 만들어 전국사찰과 축제의 행사장에서 나눔의 손잡기 후원기금 봉사를 하고 있다. 경북 영주 김명자보살이 20년 수련해온 기공치료 및 수련지도 봉사를, 경기도 분당신도시의 향명성 보살이 병원과 복지관 봉사를 약속했다.

●찬불동요 테이프 나누기

좋은 벗 풍경소리와 함께 하는 어린이 청소년법회에게 창작 찬불동요 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도 전개중이다. 본사와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성행 스님)는 4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장실에서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20세트를 군법당에 1차로 전달했다.

●장기기증 헌혈나눔도 함께

서울 잠원동 박옥정 보살이 헌혈증을 본사에 기증한 것을 시발로 강원도 강릉시 권남후 보살이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권 보살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까 생각하다 생명이 위독한 분들을 위해 장기기증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눔의 손잡기 참여단체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가 서울 조계사등 주요사찰을 순회하며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계사 22명등 각 사찰에서 불자들의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요양원 어른신들과 축제한마당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과 본지 나눔의 손잡기운동은 4월 18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에서 봄꽃축제를 열었다.

봄꽃축제에는 1만여명의 수락산 등산객들도 참여해 나눔의 바자회, 문화공연, 연등만들기 체험행사에 동참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봄꽃축제는 불교문화를 홍보하고, 나눔의 사회적 실천을 확산시키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이어져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는 뇌종양 투병 어린이 조주희(월정분교 5년), 백혈병이 재발됐지만 치료비가 없어 애태우는 청년 불자 신영재 군, 백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서울 사는 세 살배기 김주황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돼 후원금이 답지했다. 또 슬하에 자녀와 형제자매 없이 혼자 사는 서울 성북동에서 사는 김용순 할머니, 발목이 다쳐 4남매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은 부산의 김막자씨의 사연을 들은 불자들도 성금을 전달해 재활을 기원했다.

특히 뇌종양 투병중인 산골소녀 조주희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전주 인후동 이영옥 보살이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주지진산식에 들어오는 화환대신 성금을 받아 주희 어린이에게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참 사찰 및 단체, 개인 리스트(신청순)

●경기도 안양시 한마음선원 본원(저금통- 600개 스티커- 700장) ●경기도 가평군 은해사(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보현정사(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충북 청주시 수곡동 관음손(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광명선원(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한마음선원(저금통-20개 스티커-100장)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한마음선원(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마음선원(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 경남 통영시 도천동 한마음선원(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한마음선원(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충남 공주시 유구읍 약천사(저금통-5개 스티커-10장) ●청주시 영동 한마음선원(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서울시 홍은3동 길상사(저금통-30개 스티커-50장)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토지음식점(저금통-10개 스티커-10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친구노래방(저금통- 10개 스티커-20장)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동아콘센트(저금통-10개 스티커-30장)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반여3동 어린이집 (저금통-330개 스티커 300장)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현대불교 부산지사(저금통-170개 스티커- 200장) ●경북 영주시 휴천1동 현대불교 영주지국(저금통-50개 스티커-100개) ●전북 전주시 진북1동 348-19 현대불교사(저금통-20개 스티커-50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현대불교 광주지사(저금통-250개 스티커-100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마음선원(저금통-250개 스티커-200장) ●전남 목포시 한마음선원 (저금통-50개 스티커-30장) ●충북 청주시 용담동 광덕사(저금통-20개 스티커-50개) ●대구시 수성구 중동 현대불교 대구지사(저금통-100개 스티커-100개) ●경남 진해시 충무동 현대불교 경남동부지사 (저금통-20개 스티커-50개) ●울산 광역시 천곡동 한마음선원(저금통-200개 스티커-200장) ●경남 밀양시 용정사(저금통-20개 스티커-50장) ●대전시 갈마동 현대불교 대전지사(저금통-20개 스티커-50장) ●인천시 문학동 수미정사(저금통-100개 스티커-200장) ●강원도 삼척시 조개사(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충남 공주시 법륜사(저금통-50개 스티커-50장) ●경기도 성남시 혜성 스님 (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인천시 산곡2동 무념회(저금통-30개 스티커-30장) ●경기도 가평군 은혜사 (저금통-10개 스티커-10장)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손혜숙(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주공열쇠(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서울 생명나눔실천회(저금통- 20개 스티커 50장)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 (저금통-100개 스티커 100장) ●서울 남창동 올림피아스포츠건강식품(저금통- 10개 스티커- 20장) ●경기도 남양주시 극락사(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충북 청원군 탄공정사(저금통- 50개 스티커- 50장) ●경북 경산시 법성사(저금통-10개 스티커 -20장) ●충남 보령시 투다리 이수현(저금통-10개 스티커- 10장) ●경기도 용인시 성지관음회(저금통- 50개 스티커- 100장) ●경기도 안성시 금정사(스티커- 200장) ●경기도 광주시 장심사 (스티커- 50장) ●충북 단양군 연화사(스티커- 200장) ●충북 음성군 법화사(스티커- 100장) ●경기도 수원시 선만암(스티커- 15장) ●인천시 학익1동 김연숙(스티커 100장)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청담정보통신고(저금통-30개 스티커- 50장)

나눔의 가게

●서울 청량리 사거리 남녕약국 ●공평동 전통찻집 솔밭 ●견지동 불교용품점 길상원 ●견지동 가사야 승복점 ●충정로 음식점 우물뚝배기 ●견지동 수정 한정식점 ●청진동 그린포토 사진관 ●성내동 소중한이 치과 ●인사동 각종 보험문의 (주)케이비엘피 ●논현동 신장치료전문 제일침 한의원 ●견지동 식료품 판매 길광상회 ●상일동 DM발송 지산기획 ●청진동 중화요리 대성각 ●견지동 목조각 전시관 대불광 ●부산 범일동 여성양장지 전문도매상 대양상회 ●온천1동 약품 조제판매 럭키약국 ●광주 방림동 여성전문 병의원 그린산부인과 ●계림동 불교서적 전문 불교서원 ●대구 백안동 음식점 백산가든 ●전주 효자동 각종 불서 도소매점 책읽는 마을 ●팔복동 각종귀금속 판매 팔복금방 ●창원 중앙동 평화상가 친구노래방 ●용인 기흥읍 부부 한의원 ●의정부 호원동 회룡 한의원 ●고양 주엽동 차수권 바둑도장 ●주엽동 연세소아과 ● 충남 보령시 동대동 꼬치음식점 투다리 ●강릉 금학동 골프의류 도소매 임페리얼 강릉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기 도 비 : 10만원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십이 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져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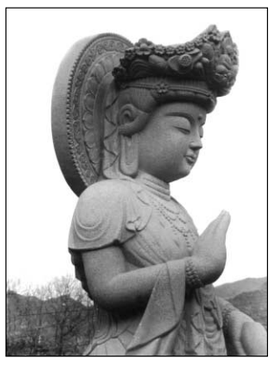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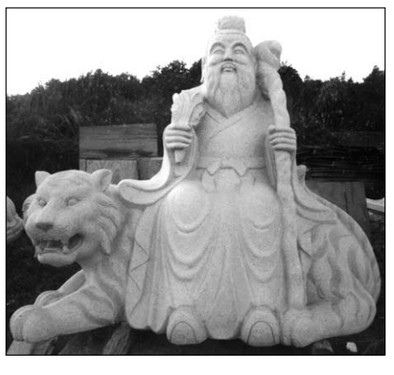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나눔=행복’ 등식만들기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행복, 이 등식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등식을 증명하는데 주저한다. 나눔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내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시선을 약간만 돌리면 ‘나눔=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정부에서도 나눔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봉사 잘하고 대학가기

교육부 연 20시간 봉사 권장
학과특성 맞춘 활동이 유리

봉사는 시간과 힘을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봉사활동을 하면 대학 입시생들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학생들에게 있어 나눔과 봉사는 공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연 20시간의 범위에서 지역 사정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연 68시간의 특별활동 가운데 1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각 대학에서도 봉사활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폭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인성을 키우는 교육현장에서 그만큼 나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은 모집단위별 특성에 적합한 봉사활동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법학계열은 사법 · 검찰 · 경찰 관련 기관, 의학계열은 의료 · 보건 · 복지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다. 봉사를 하면서 전공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점수가 연간 18시간 이상은 8점, 15~17시간은 7점, 1.5시간 미만은 6점이다.

사회봉사 과목을 봉사활동, 헌혈 등을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기부한만큼 돌아온다

복지·문화·종교 등 특별공제
구호품 기증 재난복구 활동도

기부금 특별공제는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전형적인 나눔 장려운동이다. 기부금 전액 또는 50%, 10% 한도공제를 법으로 정해 기부를 권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기부금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전액공제 대상은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이나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 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로 그 용역의 가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자금도 전액공제 기부금에 해당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독립기념관 등에 내는 기부금은 5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지, 종교,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공익성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도 10% 한도 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나 이에 해당하는 회비도 10% 한도공제 기부금에 속한다.

3 봉사로 빛나는 실버세대

경험 · 특기살리며 활력 찾아
“몸과 마음 저절로 건강해져”

국내에서는 고령자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신이 공경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크고, 나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각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층이 확대되고 있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실버세대에게는 자원봉사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꼽힌다. “봉사를 실천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게 참여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자신의 경험과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층의 자원봉사는 자신의 건강 외에 자녀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된다.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갈수록 자식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커진다.

1년전 서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잔일거리를 시작한 고연국(72) 씨는 “왜 더 일찍 봉사와 나눔의 삶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여생을 마쳐도 아무런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한다면 봉사활동 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연국 할아버지의 생각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는 ‘나눔의 국가대표’ 그 노하우는?

한국-전주 천천클럽

매월 1천원씩 모아 ‘큰사랑’ 실천
1천5백여 회원 30가구 생활지원



천천클럽 임원들이 독거노인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있다.

1천명의 사람들이 매월 1천원씩 모아 ‘작은 나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 1999년 2월 전주에서 활동 중이던 우리는선우 회원 30여 명으로 시작한 천천클럽은 5년여의 불우이웃 돕기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 단체다.

전주 천천클럽에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자’는 뜻에 공감한 1천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직업을 살펴보면 대학 총장, 교수, 직장인, 주부는 물론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나보다 더 어려운 이를 돕고 싶다’면서 성금을 내는 장애인 회원도 있다.

전주 천천클럽은 처음에는 불자로 구성됐지만 지금은 종교를 초월해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의 동참자도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천천클럽의 취지에 감흥을 받아 서울과 익산, 충주에도 천천클럽이 생겨났다.

천천클럽은 모금된 돈을 오직 이웃돕기에만 사용한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다. 현재 30여 가구에 매월 생활비와 쌀을 지원하고 있고, 한달에 두 차례씩 소년원(정보통신학교)을 찾아 고민을 함께 나눈다. 명절에는 불우이웃들에게 떡쌀을,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병원비를 보태고 있다.

오종근 회장(호원대 교수) “우리가 가진 것 중 아주 조금만 이웃과 나눠도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진다”며 나눔의 삶을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대만-자제공덕회 대나무저금통

1966년 30명이 매일 5원씩 시작
세계최대 자선단체의 원동력



대만 자제공덕회 따아이(大愛) TV 직원이 대나무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있다.

‘대나무 저금통’.

지난 1966년 대만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의 전신인 불교극난극복자제공덕회원 30여 명이 매일 대만 돈 5원씩 모았던 모금함이다. ‘한 사람의 손이 천 명의 손을 움직인다(一手動時千手)’는 자제공덕회 회주 쩡이언(證嚴) 스님의 나눔정신이 담긴 상징물이다. 이 저금통은 자제공덕회가 설립 38년 만에 전 세계 회원 4백여 만명, 5개 병원과 1개의 종합대학과 방송국, 산하 시설 직원 수 2천여 명 등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로 성장케 한 원동력이다.

현재 자제공덕회가 벌이고 있는 나눔사업은 총 8개 영역. 불교의 ‘자비희사(慈悲喜捨)’ 정신에 입각해 그 실천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선과 국제구호사업은 31개국 132지회 조직을 중심으로, 의료사업은 대만 5개 병원이 주축이 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문화와 지역사회사업은 따아이 방송국과 신문 <자제도여(慈濟道侶)>, 출판 등으로 교육은 화리엔 자제대학과 종립학교 등을 설립해 자제정신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제공덕회는 재정의 독립운영, 투명한 후원금 관리, 일종의 재가포교사인 자제위원들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모범적인 불교사회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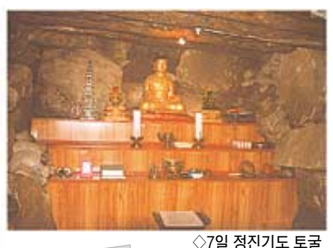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하롱베이 / 앙코르와트 6일 999,000원
● 일정 : 인천-앙코르와트-하노이-하롱베이-인천 ● 출발일 : 5월 28일

특선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찾아보면 나눌 것 많아요"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은 '풍요'를 부른다. 베푸는 것이 넉넉하진 않아도 그 마음만은 언제나 풍성하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돈이 없어도 나눌 것이 부족해도, 이들의 마음을 늘 크고 푸르다. 그럼 나누는 참맛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눈 씻고 찾아보면 나눌 것은 많다. 단순노력봉사에서 시간, 돈, 전문지식 등 조금만 신경 쓰면, 나눌 밑천은 넉넉하다. 그럼,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또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는지 살펴본다.

■생명 나누기

장기 기증 · 헌혈 나눔의 으뜸 '생명나눔실천본부' 2만 회원 활동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과 헌혈. 나눔정신의 으뜸이 된다. 불교계에서 '생명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단체가 있다. 그 단체는 바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이 단체는 10년 전부터 장기기증이 자비사상의 사회적 회향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조직은 2만여 명의 회원과 5천500여 명의 후원회원으로, 불교계에서 대표적인 장기기증운동단체로 그 위상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출범 첫해 469명에 불과하던 장기기증 신청가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4만925명(누계)에 이르렀으며, 장기이식도 총 484건을 성사시켰다. 또 지난 1998년부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서약운동도 전개해 3만1741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전문지식도 봉사의 한 방법

의료 · 법률 상담 등 통한 지식 제공 정기적 봉사로 불우이웃에게 희망을

'법률, 진료, 세무.' 전문직 특성을 살려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들이 있다. 사법연수원 31기 불교모임 다르마법우회, 선재마을의료회, 그리고 세무사불자회가 주인공. 이들 단체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나눔의 운동을 묵묵히 실천해오고 있다. 다르마법우회는 서울 조계사에서 매월 한 차례씩 불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는 불교계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전용 무료진료소'를 여는 등 자비인술을 펼치고 있다. 강남 봉은사, 부천 석왕사 등에서 무료진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단체는 특히 불교권 국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세무사불자회는 세무상담을, 천안 정토마을 불자호스피스 봉사단은 말기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 060-700-1080

불교계 자원봉사 단체 및 복지시설 (※가나다순)

불교계 봉사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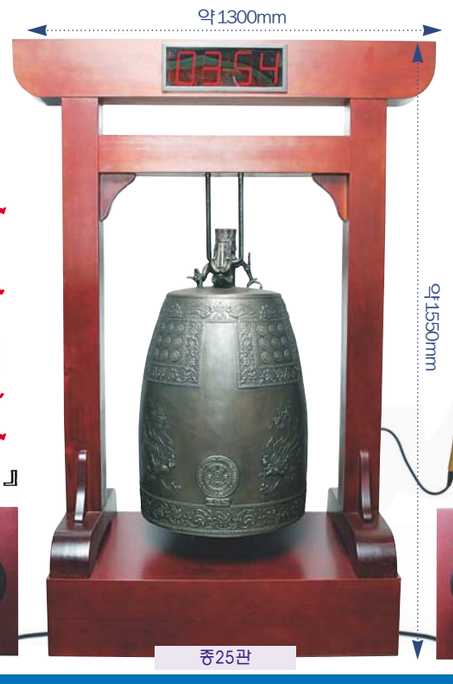
지역	단체명	문의	지역	단체명	문의
서울(02)	군포교 자원봉사단 심우회	578-2525	서울(02)	천축사 불교사회봉사회	997-9468
	금화사 나눔마을	3402-1515		천태종 호스피스봉사단 니르바나	579-5518
	마음의전화	738-1275		한국세무사불자회	011-351-1638
	무루회	2605-5619	경기(031)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	855-5161
	불교자원봉사연합회	723-6258		염불봉사단 목련회	245-7048
	불자약사보리회	959-0082		의정부 좋은일하는사람들의 모임	848-6114
	BBS 거룩한만남 봉사회	705-5234		천수천안자원봉사단	969-0108
	생명나눔실천본부	734-8050	충청지역	대전봉사단 등불회	042-256-6886
	수효사 공덕회	313-3060		천안 정토마을	043-298-2258
	선재마을의료회	011-9929-4918		불자호스피스 봉사단	
	은선회	011-292-6756	대구(053)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봉사단	474-8228
	이공회	921-6410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	982-0101
	자비신행회	011-618-6983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765-8879
	자비실천합창단	011-859-1547		연꽃자원봉사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723-5101		연꽃불교 장의봉사회	767-7672
	중심회	575-9135	기타 지역	이리불교대학 마한거사림회	063-853-1578
	진각종 사회봉사단 진각119	942-0144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055-382-1001

불교계 전국 복지시설

지역	기관명	문의	지역	기관명	문의
서울(02)	강북장애인복지관	989-4215	경기(031)	분당한솔사회복지관	716-4215
	광진노인복지관	466-6242		연꽃마을용인요양원	334-3677
	구로종합복지관	852-0525		일산노인복지관	919-8677
	길음사회복지관	985-0161		시흥시장애인복지관	441-9114
	능인사회복지관	571-2988		평택남부복지관	653-3677
	삼전사회복지관	421-6077	강원도(033)	강릉복지관	653-6375
	서울노인복지센터	739-9501		강릉장애인복지관	643-1801
	서울시립요양원	939-6176		원주 명륜복지관	762-8131
	성북노인복지관	929-7950		속초복지관	631-8761
	신길종합복지관	831-2755		춘천시노인복지관	255-8866
	옥수사회복지관	2282-1100	충북(043)	제천장애인복지관	652-0901
	은평노인복지관	385-1351		청주 북부사회복지관	216-4004
부산(051)	개금사회복지관	893-5034		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	298-2258
	공창사회복지관	363-2063	충남(041)	공주 금강사회복지관	856-6110
	낙동사회복지관	271-0560	경북(054)	경주장애인복지관	776-7522
	몰운대사회복지관	264-9033		금오사회복지관	458-0230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구미장애인복지관	457-3172
	용호사회복지관	628-6737		문경 모전복지관	555-0108
대구(053)	감천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	982-0562		상주 냉림사회복지관	532-5687
	남구종합복지관	476-7700		영주장애인복지관	633-6415
	불교사회복지회봉사센터	474-9748		의성노인복지관	833-6006
인천(032)	원종사회복지관	6770-108		포항 학산복지관	248-6165
대전(042)	법동사회복지관	633-1141	경남(055)	마산 중리복지관	231-8017
	서구노인복지관	488-6297	전남(061)	동여수노인복지관	643-1966
	용문사회복지관	537-0615		문수복지관	652-4242
울산(052)	울산남구노인복지관	265-5221		여수시노인복지관	685-2381
	울산시립노인요양원	246-8061	제주(064)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747-8337
경기(031)	군포매화복지관	393-3677		제주청교련청소년봉사센터	725-0108
	부천원종복지관	677-0108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건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032-772-5451
02-733-6141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엠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엠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봉은사 어린이불교학교를 이끌어 주실 분(지도자)을 모십니다

모집기간
2548년 5월 한달간

모집대상
① 어린이 법회에 신심과 원력이 있는 분
② 포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
③ 어린이 포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 우대

제출서류
① 이력서(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 등본,
③ 자기 소개서
④ 어린이법회에 대한 소견서
⑤ 어린이법회 계획안(1년간)

봉은사 파라미타(중 · 고등부)를 이끌어 주실 분(지도자)을 모십니다

모집기간
2548년 5월 한달간

모집대상
① 중 · 고등부 법회에 신심과 원력이 있는 분
② 포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
③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있는분 환영

제출서류
① 이력서(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 등본,
③ 주민등록 등본, 자기 소개서
④ 파라미타법회에 대한 소견서
⑤ 파라미타법회 계획안(1년간)

● 문의처 : 봉은사 포교교육실 02)3218-4811~16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범음범패, 점안식, 제의식, 염불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대체의학 天神氣 전수

21세기는 대체의학으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유하는 세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불자님들의 중생제도와 포교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시도록 우주에너지의 초능력 氣를 전수하여 드립니다.

1. 전수과목 : 대체의학, 기치료, 양자파동, 음 양택수맥탐사차단, 초능, 영접, 4차원(氣과학, 氣의학, 생명공학, 양자과학, 동양철학, 4차원 세계)
2. 전수기간 : **4개월간 매주 수요일 10 ~ 13시, 14 ~ 17시(2개반)**
   특별반 – 지방 10명이상시 출장강의 가능
3. 자 격 증 : 수료후 시험과 논문 합격자에 자격증 수여
4. 수 료 후 : 지방 전수원 개원 희망자에게 지원
5. 기 타 : 현재 난치병 불치병 치유, 수맥 묘소 주택 차단 명당화

지암박사의 세계최초기적

1. 氣사진 : 인체, 주택, 묘지, 수맥파 차단과 질병치유로 신체를 활성화하고 안전보호로 제반사고를 예방하며 (-)전자파를 (+)전자파로 전환하여 전자파 피해를 방지한다.
2. 氣영감 : 직, 원격 건강진단과 지하자원 수맥탐사와 기계 고장부위를 탐지하고 생로병사와 인간관계를 판단하며 설계도와 세계지도만으로 탁상 탐지 판단한다.
3. 氣주입 : 직, 원격 병원체 소멸과 수맥 동기감응 차단제거와 충기 보강으로 인체를 활력화 하며 영기파동수로 난치병을 치유한다.
4. 氣측정 : 생사기력 판단과 인류사적 고금 경세경륜 및 흥망성쇠를 판단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 예지하며 신변문제를 판단하고 지질학적 지기 길흉명당을 판단한다.
5. 氣집판 : 주택, 묘지, 점포, 공장, 병원, 학교, 온실, 축사, 양식장등의 흉지를 길지 명당화 하여 불운을 행운으로 전환하며 가축 가금류의 전염병을 예방한다.
6. 氣전환 : 음료수 의약품 음식물의 음성을 양성전환함으로 세포와 조직 기관을 활성화 하고 (-)유해 전자파를 (+)유익 전자파인 양성으로 전환하여 활력과 건강을 촉진한다.
7. 氣의학 : 인체와 음식물의 적부, 인체와 약품의 적부, 한의학의 4상체질 4초내, 8체질의학 8초내 체질 감별하며 전화 음성만으로도 즉시 감별하고, 사진을 보고 건강진단과 과거 현재 미래를 예지 판단한다

정신세계연구원 KI ACADEMY
대체의학센터 知岩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전철 5,6번 출구 신궁전 예식장뒤 화니빌딩 301호
☎ 02)953-7027, 7077 / H·P 017-409-4758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선 주 명 리 교 육 원
02)336-8484

동학사 일초대강백께서 수년전 불교방송에서 하신 〈유마경〉강의 테이프를 매도하시거나 빌려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전화 : 02)722-4162
017-236-5769
임연태(현대불교편집부장)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 동영상 강의 www.kbs.cc

학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가평 잣

● 650g 2만 5천원
031)592-2865
010-3005-2865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택배비 별도
공장 가평 초림 농산

직원모집

부전스님 1분, 처사 1분
숙식가능한 법당화주
처사 1분, 매점보살 1분
행자(약간명)
▷나이 : 30~45세
054)383-8032

비구니스님이나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보살님 급히모십니다 적은돈으로 내집처럼 함께 사실분

▷강원도 횡성
011)9990-5253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생활하실 좋은 인연의 스님 한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50~60대
032)562-4983
016-336-498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3)463-3767

공양주를 모십니다

011-9743-9868

1000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인천
032)872-5071
016-443-9933

처사님 한분, 매점보살 모십니다

▷40~50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7-260-3310

산세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내실 보살님 처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울산
0505-794-5252

비구스님 (부전)모십니다

▷모실스님 1~2분 ▷세속납 30~60세
▷사찰위치:경기도 광주시(재)천운사
011-779-4496 주지합장
016-9560-7660 도광합장
031)764-3399 사 무 실



퇴미승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신앙상담 : 010-6264-1666

조계종 소백산 제2지장보궁 내원암에서 계행이 현저한 조계종 스님으로 은사를 원하는 건당상좌를 인연하여 사원을 관리할 스님을 구함
그리고 40~50대 공양주 보살을 구함

054)653-1180
051)441-1430 (부산설법원)

한창 무르익은 봄의 풀내음 꽃향기 맞으며 아름다운 금수강산 전국사찰순례 여행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에 관심있는 60세 전후 남자분 독신도반자를 기다립니다

▷(자동차 소유)
011-831-643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동두천 불면암
031-868-1833
011-9822-6469

사찰, 포교원운영 2~3천만원으로 서울과 서울근교 사찰 포교원 같이 운영할 스님 초빙

019-9108-0909
031)774-7615

포교원 운영하실 기도스님 모십니다

(철학 하시는 스님)
051)542-4848

기도스님 원하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6264-1666

자동차 시주해 주실분

▷차종: 코란도, 무쏘 4륜자동차
055)355-1275
011-878-1391
법신스님

부전스님, 행자, 기사1분,공양주 구함

- 기도법사님 (대학원생, 입학희망자)
- 행자(55세 이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02)352-6406

절에서 요양하실분이나 무보시로 기도하시면서 일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16-9286-1226

대구·부산권 염불해 드립니다

011-9596-4338
▷무유스님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http://eye88.hihome.com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주 름



성형... 했니?

아직도 수술을 하세요?
"지금은 바르는 시대"

보톡스(Botox) 대안 화장품

미국 UCLA 피부과 피부테스트 완료

- 20대 ~ 70대 까지(남.여 공용)
- 눈가, 입가, 이마, 미간, 주름진 부위

※ 1994년 노밸의학상을 수상한 Dr.Martn Rodbell이 제시한 과학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개발된 고품격 피부관리 제품

메디덤(주) 02)969-8080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 ★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 ★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 ★ 관상학 (특강)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상담하세요!!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www.speedunse.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運眸谷堂

목당易학연구원

(개인지도) 침명풍슉 술리수효

☎ 969-3169 (현대코아 국민은행사이길)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사람을 찾습니다

50대 후반 중키에 벙거지를 쓰고 남루한 옷차림에 갈지자 걸음이며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귀가 들리지 않은 분임.
옥균아! 어머니 마져 돌아가시고 누나랑 형과 너 밖에 없는데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양보해주면 될걸가지고 그토록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말이냐. 너의 의식주는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루 빨리 돌아와다오.
형의 잘못은 너에게 갚이 사죄하고 용서를 빌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나집으로 속히 와 주기 바란다.

● 사례금 : 일백만원

연락처 : 017-653-1077 / 011-9723-1043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청소년 법사스님 행자(포교사)모집

법사스님 자격

1. 40세미만
2. 승가대학 졸업자
3. 해외 출장시 결격 사유 없는자
4. 조계종 승려

행자(출가 포교사)

1. 행자 40세미만
2. 고등학교 졸업자
3. 출가포교사는 41세~50세미만자로서 조계종법으로는 출가할 수 없는 자를 포교사로 배양

소재지: 조계종 삼보사 문의: 02)352-6406

탈종공고

- 사찰명: 월곡사
- 주지: 박명환
- 법명: 난관
- 주소: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산2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17평
- 요사 : 17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6천만원

- 위치 : 경북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450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경북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6억 3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무암
- 대지: 500평 정도
- 법당: 50평 정도
- 요사채: 20평 정도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
- 차진입
- 가액: 9천만원

051)254-301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2층 법당 45평(종무실, 공양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닷집 단청필
-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40평(주차 8대)
- 가액: 9천만원

011-9802-313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부지 : 1000평
- 법당 : 9평
- 요사 : 12평
- 가액 : 6천만원

- 성루 포교당 요지
- 면적 : 35평
- 보증금 : 2천만원
- 월세 : 50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5층 건물중 3층
- 법당, 방3개, 주방, 목욕탕, 베란다 총 3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597-205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바닷가옆 버스종점
- 대지: 511평 2층건물 1층 방2개, 2층 법당 28평
- 요사채 41평
- 가액: 1억3천만원 (5천만원 융자가능)

062)222-5587
011-609-11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9848-31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최요지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3층. 30평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 (사정상 급 양도 최저절충가능)

011-202-2205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5억 5천 (대출가능)
- 도심속 사찰임

- 위치 : 천안시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요사 : 40평
- 양도가 : 7천만원 텃밭 200평있음
- 강남최고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접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55평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 가액: 5억3천만원(대출가능)

016-367-2112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명덕시장 앞 영대병원 전철입구)
- 법당(40평)후불, 신중, 시왕탱화
- 즉시법회가능
- 가액: 2500만원(보증금포함), 월 23만원

011-9850-2946
053-653-0287

사 찰 안 내

[절터]
- 위 치 : 언양 간월산
- 임 야 : 5천평
- 대 지 : 300평
- 가 액 : 3억

※영남 알프스북동쪽 엄청나게 좋은 계곡

[토굴]
- 위 치 : 부산 금정구
- 대 지 : 214평
- 주 택 : 2동(황토방)
- 가 액 : 3억

※지하철에서 9분거리 언덕위의 황토방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50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 서구 배재대 부근
- 3층 건물에서 2층
- 평수: 50평
- 법당 25평, 방3개, 주방1, 창고, 화장실
- 전세 2천2백만원 시설비 1천8백만원

042)533-2959
019-699-2201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압구정 로데오거리 최요지
- 실내면적 약30평, 법당, 상담실, 공양실, 샤워실, 창고 등
- 보증금 1천5백만원(월 70만원) 슴 3천3백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상담활동가능(조건좋음)
- 스님, 법사, 무속인, 철학원 용도
- 주지법사님의 유학관계로 급매함

02)3444-9335
011-9701-6500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進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進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토굴 안 내

- 위치: 서울 북한산 밑 전철 5분거리
- 단독 구옥
- 임법당1개, 방2개, 주방, 욕실1개, 텃밭
- 가액: 전세 3천만원 월세 7백만원, 월 23만원

011-796-7833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 용인마트 옆, 건물 4층 자비선원
- 42평 방 3개 법당따로, 거실,
- 부처님 3분, 산신 시설A급 위치좋음
- 스님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 원함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31)336-9149
011-297-9149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융자 4천포함)

011-785-567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 2분거리, 12m 도로 접함
- 빌라 2층 4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즉시가능
-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 모십니다

016)574-043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
- 대지 : 1440평, 논 100평, 임야 25000평
- 법당 23평(목조), 삼성각 7평(목조) 요사채 50평
- 가액 : 10억원

033)763-4328
011-798-8747

도심속 최고 포교당 안내

- 위치 : 오산시청앞
- 법당: 63평(최고급시설) ● 종무소: 약 10평, 요사채방: 7개
- 전통다실: 40평(성업중) ● 체육관: 선무도50평(성업중)
- 권리금: 없음 ● 총 260평(요사채 및 법당 150평)
- 특기사항 오산시청 맞은편 상가숲속에 위치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함. 대형주차장 1일 평균 2000대 이상 출입 왕래
- 가액 : 답사 후 월세나 전세 상의해서 결정

011-9254-2353 / 031)374-2355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시장
- 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 (절충)
- 도심포교에 뜻 있는 분

016-424-05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 법당 70평(5층)
- 삼존불, 요사채,
- 방2칸, 공양실

011-750-542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중구 남산동
- 상가2층 법당실평수(20평)
- 사정상 급
- 시설비 2000만원,
- 편리한구조
- 월세 35만원(전세도가능함)

011-519-080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

011-9415-683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중구 중앙동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건물 4층 옥상사용가 (엘리베이터 있음)
- 건평: 58평, 법당 20평 나머지 40평은 방5개, 주방2, 욕실 큼
- 순 한옥식으로 잘꾸며져있음 바닥은 전체 온돌방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품 3500만원

011-9678-32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 40평(주차 8대)
- 가액 : 9천만원

011-9802-313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심덕3동
- 대지: 60평
- 전통한옥가옥 : 법당, 요사채(30평) (방 2개, 화장실, 창고, 샤워장 설치)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영가단
- 가액: 1억6천만원

017-488-1370
053)255-7249

사찰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 대지 : 110평
- 1층건물
- 절터, 절하기 좋은곳
- 가액 : 2억원

011)712-8533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시내 최요지
- 4층건물중 3층 약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5년계약중 2년경과)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대작불사 관계로 양도

011-243-358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의성
- 임법당, 황토방, 창고
- 정원수 1만포기식재 돌탑 및 연못 계곡류
- 이차국도 300m 및 분묘자리 천기확보
- 무엇이든 가능
- 3500평. 평당 7만원

017-813-9126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리 소재
- 대지 200평, 건물, 요사채 35평 임법당 25평, 임산신각 3평, 스님방 11평
- 시설 : 삼존불, 신중, 영가단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31)631-1325/011-9240-1384

암자,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 아래
- 전세: 3천1백만원 (권리금 무)

051)731-9677
011-9513-1460
011-9585-117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5층 건물중 4층 50평
- 시설: 대웅전 32평, 요사채 3실, 공양간 1실
- 가액: 전세 4,000만원,
- 월세 50만원 (양도 가능)

051)337-5517
019-841-5515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도로변 위치 좋음 전철역 5분거리, 버스정류장 3분거리
- 건물: 대형 5층 중 2층독채(약50평)
- 큰법당, 공양실 및 식당, 휴게실, 화장실, 큰거실 (화장실, 샤워시설)접견실, 대기실
- 보증금2천(월115만원) 최고시설4천5백 합계 6천5백

02)2699-7638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범천2동
- 대지: 300평 건평 32평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전세: 1억원

011-9343-6853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 47-5
- 대지 11400평, 법당 25평,
- 목조건물, 요사 2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찰·전원주택 적지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근교
- 준농림 1350평 (건축허가 즉시 가능)
- 포장도로 대형차 진입가능
- 전기 및 지하수 있음
- 산이 둘러싼 곳에 맑은 물을 끼고 있는 조용하고 수려한 곳
- 가액: 8천만원

016-9808-157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시내 중심가 국제시장 3분거리
- 1층 요사채 18평, 2층 법당 18평
- 삼존불, 탱화 5점 ● 가액: 9천만원

018-502-8080

- 특징: 상업, 주택지역 일체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 즉시 법회가능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육대학)전철역1번출구에서 3분거리(계산시장입구)
- 평수: 25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지장, 칠성, 산신탱화 모셔져 있으며 인등도 有
- 보증금 1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필요하신 스님 법사님 직접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032)543-9245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묵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암자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대지: 470평, 건물 110평 통나무집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3층 선방 30평
- 소나무 조경완벽, 정원내 생수 연못 및 다도 정자 유
-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않는 맑은 계곡이 있음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도로포장 완벽
- 가액: 2억 2천만원 (총 투자금액 4억 4천만원)

011-509-0124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길동(굽은다리 전철역)
- 평수: 약30평(3층 건물중 2층)
- 법당, 방, 상담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실내전체 도시가스 난방, 에어컨시설 삼존불, 상단탱화, 신중단탱화, 관음 지장 420존상, 불기 등 일체집기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 시설비 9백만원(스님 지방이전 관계로 최저가로 급 양도)
- 역학 상담실 용도도 적합

02-426-2182
011-668-0429

사찰안내

- 위치: 전북 군산시 대야면 서해한 고속도로 IC10분거리
- 대지 : 680평, 한옥 3동
- 뒷편 대나무숲, 풍광수려
- 가액 : 2억원

063)445-5606(화랑)
063)451-8111(집)
011-659-591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가액 : 2억

033)766-0057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높낮이 다른 28개 전각 만물상 보는 듯… 정교 웅장, 탄성 절로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운동본부가 지원한 기와를 올린 영통사 전경. 복원을 시작한지 6년만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높낮이를 달리한 28동의 전각이 옛 영화를 고스란히 재현한 듯 하다.



주법당인 보광원과 5층석탑.



대각국사의 부도가 모셔진 경선원.



천년 세월 영통사터를 지켜온 당간지주.

천태종 北 영통사에 단청재료 전달

2003년 10월 27일 북한 개성 영통사 전각에 올려질 기와 10만장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된 이후 올 3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40만장의 기와와 부자재가 북측에 전달됐다. 지원단체인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기와 지원에 이어 4월 26일부터 26톤 분량의 단청재료를 3회에 걸쳐 보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4월 26일 오전 9시 파주 임진각을 출발해 남측의 마지막 관문인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40분. 5km에 불과한 이곳을 40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서야 도착했다.

"어서 오시라요, 무원 스님!"

미리 마중나온 김성철 조선경제협력위원회 사업국장과 정명철 개성직할시 대외사업협력국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 등 20여명의 환영단이 방북단을 반갑게 맞는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은 이번이 7번째 방북이기에 한층 친숙하게 환영단과 인사한다. 무원 스님의 어설픈 북한 말투가 처음 방북한 방북단의 긴장감을 풀어준다.

"반갑습네다. 그 간 별 일 없었습네까?"

간단한 방북 수속을 마치고 개성으로 향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기억 저편으로 어릴 적 시골길을 달리던 추억의 버스가 교차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북녘의 들녘은 평화로웠다.

휴전선에서 개성시내까지의 거리는 겨우 10km. 개성은 직할시다운 규모를 갖췄지만, 콘크리트 담과 곳곳에 배치된 군인, 남루한 행색의 주민들은 '회색도시'의 모습이었다.

6년만에 모습 드러낸 영통사

방북단에게는 공식 일정인 영통사 복원현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개성시내 유적지 참관의 기회가 주어졌다. 맨 처음 찾은 곳은 고려문화재인 성균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고려역사기념박물관. 첫 방북에 기대를 가졌던 고성 보성사 주지 설혜 스님은 여성 안내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스님은 전력난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박물관을 둘러보다 내내 찜찜했던 속가슴의 안타까움을 내뱉는다. "후, 북한이 이 정도로 어려웠던가."

이날 일정의 마지막은 영통사 복원현장이었다. 굵게 바뀌어 버린 빗줄기 사이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영통사, 방북단은 저마다 탄성을 내질렀다. 28동의 전각이 높낮이를 달리하며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영통사 복원불사는 1998년 일본 다이쇼(大井) 대학 고고학팀의 발굴작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복원은 활기를 띠게 됐고, 불사가 시작된 지 6년여만에 제모습을 드러냈다. 북한내 최고의 건축기술을 지닌 김영균 총감독이 책임을 맡아 시멘트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건축양식을 그대로 살려냈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열반처로 유명한 영통사는 그동안 북측의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당간지주와 5층 석탑, 동 · 서 3층석탑만이 황량하게 남아 있었다. 복원된 지금 주법당인 보광원과 중각원, 승복원 등 법당을 비롯해 남문, 중문, 종루, 경루, 회랑 등이 즐비한 도량으로 탈바꿈 되었다. 영통사 왼편으로는 천태종 창종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부도를 모신 경선원이 오관산(五觀山)을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영통사 복원지역 총부지는 6만 평방미터, 전각의 총건평만도 3천4백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왼쪽 두번째)과 조선경제협력위원회 김성철 국장이 단청재료 전달서를 교환하고 있다.

영통사 복원불사는 천태종의 대북교류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서야 남북이 함께 영통사를 복원하는 통일불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천태종은 앞으로도 2차례의 단청재료 지원을 비롯해 의천스님의 열반일인 11월 16일경 낙성과 함께 남과 북,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추진하고 있다. 북측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 김성철 국장은 "남북이 하나되어 손을 맞잡는 날, 영통사는 남북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북단은 이튿날인 27일 개풍에 위치한 공민왕릉과 왕건릉, 선죽교를 둘러본 뒤 마지막 일정인 안화사를 찾았다. 주지 승찬 스님을 비롯해 2명의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고 했다. 설혜 스님의 집전으로 대웅전에서 합동법회가 약식으로 진행됐다. 법회가 끝나고 차로 돌아가는 방북단의 뒷모습에서 분단의 아픔이 느껴졌다.

개성=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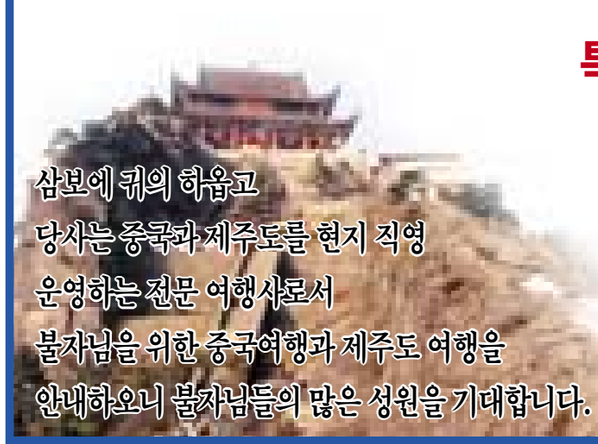
천태종 방북 이모저모

○…휴전선에서 개성시내까지의 거리는 11km다. 서울과 인천의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다. 그러나 11km를 가는 시간은 50년이 걸렸다.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는 비무장지대 태극기와 인공기가 걸려있는 거리는 겨우 1km. 도로는 뚫렸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남과 북의 상황은 멀고 먼 이웃을 실감케 한다.

○…북한측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의 방북단을 굉장히 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같은날 방북한 토지개발공사 개성공업지구 개발팀과도 대조적인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천태종 방북단은 방북기간 동안 개성시내와 주요 유적지 참관을 할 수 있었지만, 토지개발공사 개발팀은 공업지구에서의 공식 일정 외에는 숙소에 갇혀사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개성시내에 위치한 산은 물론 외곽에 위치한 산도 대부분 벌거숭이 산이다. 주민들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 베어낸 상처다. 개성을 벗어나 개풍으로 접어들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나무가 남아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과 나무를 벨 수 없도록 지정한 특정지역 뿐이다. 개성을 대표하는 송악산도 산 자체가 돌산이어서 나무가 많지 않은데다가 키가 3m를 넘는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특별기획안내 (호화 유람선으로 중국여행을…)
◎ 출발일 : 2004년 5, 6월
1. 북경 / 백두산 7일 (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 / 태산 / 곡부 / 천불산 (만불동) / 흥국사 / 영암사 / 잠산사 6일 (목, 토 출발) 40만원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 낙산대불 8일 169만원
6. 북경 / 소림사 / 백마사 / 용문석굴 5일 79만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일요일 출발 - 225,000원 ▶화, 목, 토 - 248,000원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전>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지, 퍼시픽랜드 (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록茶밭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찰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 해수 사우나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을!!! → "조랑말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람 → 점심공양 → "통일불사리대탑(고관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신선한 논문 뜨거운 토론 '결집' 되다

제2회 불교학결집대회 성료 – 주목받은 논문들

결집(結集 · sangiti)은 축제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있었다는 4번에 걸친 결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중생의 등불로 삼으려는 불자들의 축제였다면, 21세기 한국에서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결집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불교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즐거운 만남이다.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5월 1~2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범)는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결집대회에서 발표된 174편의 논문은 최근 불교학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1회 대회에서 원효 사상이 하나의 분과로 발표된 반면 올해 2회 대회에서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와 한 · 일 불교의 교류사, 응용불교 관련 논문이 늘었다. 특히 응용불교의 경우 1회 대회 때 1개 분과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3개 분과로 늘어났다. 이는 불교학이 학제간연구로 외연을 넓히고, 학문적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분야가 학문 영역에 포함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은 결집대회에서 주목받은 논문들의 요약.

"측천무후자 연구에 큰 기여할 것"

박상국 씨의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사경인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화엄경(755년 사경 · 이하 화엄경 사경)>에서 발견되는 측천무후자는 모두 13가지이며, 이를 통해 국보 제196호 화엄경 사경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한역했던 당시(695~699)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경임을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박상국 실장은 '<신라백지묵서화엄경>에 나타난 측천무후자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른 문헌과 비교해 측천무후자가 사용된 비율이 매우 높아 측천무후 연구에도 기여할 중요한 자료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측천무후자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인 당나라 측천무후(625~705)가 새로 만든 글자로, 정확히 몇 자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12자에서 19자까지 학자마다 주장이 다양하다. 이 화엄경 사경에 나타난 측천무후자는 '初' '年' '月' '日' '星' '正' 등 모두 13자로 이들 모두 현재의 모양과는 사뭇 다르다. 측천무후자 관련 자료가 희귀한 상황에서, 이 화엄경처럼 13종의 측천무후자 대부분이 80% 이상의 비율로 발견되는 자료는 더욱 드물다는 것이 박 실장의 설명이다.

"일연의 미완성 작…조선초 간행"

하정용 씨의 '삼국유사의 성립과정…'

송광사 성보박물관 하정용 연구원은 <삼국유사>의 간행시기와 편찬자, 이후의 목록변화 등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대한 일반의 통설을 뒤집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 연구원은 '<삼국유사>의 성립과정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삼국유사>는 일연의 미완성작으로 고려시대에 간행된 바 없다"며 "여러 가지 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조선시대 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편찬연대는 '미상'이나 '1281~1283년(충렬왕 7~9년) 사이'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하 연구원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이체자 가운데 '旨(지)'는 1390년에 간행된 문헌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이체자를 통해 간행시기를 엿볼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삼국유사>에서 고려본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일연의 제자인 청분의 '무극기'에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아 무극기가 세워진 1322년 이후에 간행된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초기 불교 · 기독교 악에 대한 견해 비슷"

곽상훈 신부의 '마라와 사탄의 비교 고찰'

실제 가톨릭 신부로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곽상훈 신부는 '마라와 사탄의 비교고찰'에서 두 종교의 대표적인 악을 비교했다. 곽 신부는 "초기불교와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에 대한 판이한 견해 등 두드러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악의 체험에서 유사성을 보인다"며 "정법의 정각, 신과의 합일을 훼방 놓는 마라와 사탄은 부처님과 그리스도가 제압하면서, 인간을 해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종교 사이에 문헌상의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악의 체험의 유사성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마라는 윤회 속의 존재로 업의 결과를 거둬 무상과 미애를 면할 길이 없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파멸하는 궁극성이 결핍된 존재라는 공통점도 지닌다.

그러나 곽 신부는 "사탄의 거처가 죽음이 지배하는 낮은 곳인 반면 마라는 대단한 권세, 영향력을 지녀 둘의 위상이 다르고, 마라는 수행과 통찰력의 함양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사탄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체험으로 극복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차이점도 덧붙였다.

"정신치료 정서적 깨달음이 바탕"

최훈동 씨의 '불교의 무아사상에…'

정신과 전문의인 최훈동 박사가 '불교 무아사상에 대한 신경정신의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 박사는 "불교와 정신치료는 믿음에 의하지 않고 성찰을 통해 고통을 내면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정신치료에서는 자아의 역할이 필수적인 반면 불교에서는 번뇌의 근저에 자아의 실체를 고집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정리했다.

즉 정신치료는 지적 이해가 아닌 정서적 깨달음으로 치료의 변화를 가져오고, 불교는 관념적 이해가 아닌 체험적 깨달음에 의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치료와 불교의 깨달음이 자기자신을 객관적이고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도 유사점이다.

최 박사는 "정신치료는 고통의 근원적 해결로 아집에 대한 연기적 성찰을 불교로부터 도입해 정신치료의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구과제도 제시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북한문화재 자료관 개설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피에 north.nricp.go.kr



북한에는 어떤 불교문화유산이 있을까? 최근 불교계가 신계사와 영통사 등 북한 사찰 복원불사를 추진하면서 증폭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궁금증을 '클릭' 한 번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홈페이지 상에 북한문화재자료관(http://north.nricp.go.kr)을 마련하고, 2천여 항목의 북한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했다.

자료관에 공개된 북한 소재 불교 문화재는 고려시대 5.7m 거불인 개성시 개풍군 신석리 석불입상(사진)과 네 마리 사자가 탑신을 받치고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놓여있는 금장암 사자탑 등이 특징적이다.

북한문화재는 자료관 '문화재찾기' 항목에서 재질 · 시대 · 유형 · 지역 별로 검색하거나, '연표검색'에서 특별한 사건과 동시대의 북한 문화재를 연결해 찾아 볼 수도 있다. 또 '특별전시관'은 '고구려 궁성을 찾아서'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라는 두 주제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에서는 마치 직접 고분에 들어간 듯 한 느낌으로 고분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북한문화재자료관의 기본 정보는 1988부터 9년 동안 북한에서 제작한 20권 분량의 <조선유적유물도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가 운영하던 '남북통합문화관'의 내용을 수정 · 보완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조선유적유물도감>에 나온 북한에서 쓰는 용어와 어투를 최대한 존중해, 북한에서의 문화유산 서술방식을 따랐다.

오유진 기자

고 침 본지 471호 <고려대장경 감교록> 출간기사의 제목 '고려대장경 오자 · 파자 4만 9천여 자'를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의 판본을 비교한 결과 4만 9천여자의 차이'로 정정합니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0>

생명과 禪(2)

자기 속물근성 인정해야 공부돼
욕망 절제하는 고통마저 즐겨야

세상에는 속물(俗物)이란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속적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를 말하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누군들 속물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는 생활하면서 상대방이 속물이냐 아니냐를 굳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마음공부하는 이들이 스스로가 속물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부인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생명체가 원천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생존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에 의하여 여러 의미부여를 통해 포장되어 있을 뿐 그 모양새는 동서고금을 통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은 선(禪)을 통하여 자신의 본래의 면목을 찾는 데에 있어서 누구나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다.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욕망의 절제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과거, 현재의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인간적 욕망의 절제를 위하여 많은 수행과 종교적 고행을 평생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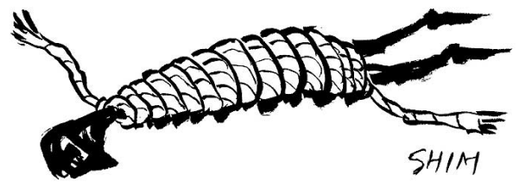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망의 절제를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는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수행의 증표로 삼아 작은 위안을 받으며, 욕망의 절제를 통한 욕망의 부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생토록 끝없이 나아간다. 또 이를 통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 – 속물이 되지 않고 – 욕망의 소멸을 얻어 해탈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마음공부를 하는 이로서 나는 욕망을 절제(節制)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안다. 또 홀로 있음의 즐거움도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속물이라는 것도 알며 이 또한 즐겁다. 그러면 같은 욕망의 절제이지만 욕망의 부정을 향해가는 이들과는 달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스스로 행하는 절제를 통해 축약되고 집약되어 자신 속에서 충분히 무르익어 있다가 어느 때 상황이 되어 한 순간에 특정 방향이나 대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발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행하는 형태의 욕망의 절제이기에 가능하다. 개체로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욕망의 결과물이기도 하기에 생명체로서 나는 이렇게 절제를 통하여 충분히 익은 욕망으로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펼칠 뿐이다. 그것은 욕망의 주인 됨이다. 결코 욕망의 제거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욕망의 절제를 통하여 그 축약되고 무르익은 욕망이 집중적으로 분출되기 위한 적절한 대상이나 상황이 반드시 오리란 보장은 없으며 기대하지도 않는다. 기다림의 절제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의미있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렇듯 마음공부를 통해 욕망의 절제를 즐길 줄 아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자세와 모습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마음공부를 통해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사화산(死火山)이 아닌 때를 기다리는 휴화산(休火山)의 기다림으로 때가 되면 폭발하듯 꽃을 피우게 되나니 하릴없이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속물에게는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있나니 바람(風)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에 움직이는 그 자체가 곧 쉼(休)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챙기셨습니까?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4-3733



'수채화 같은 5월'

법음과 함께

봄꽃이 만발한 수채화 같은 산사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주로 가을에 많이 열렸던 산사음악회가 올해에는 봉축을 맞아 잇달아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는 5월 5일 오후 2시부터 특설무대에서 인도 월드퓨전 그룹 '쌍깃 프렌즈(Sangeet Friends)' 초청 명상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두 번째 방한한 쌍깃 프렌즈는 <2002 전주 소리축제>에 초빙돼 영혼을 울리는 심연의 소리로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아유타에서 불어온 바람'과 '금강경' 등 고정 레퍼토리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직접 무대에서 연주하는 즉흥연주의 순서로 꾸며진다. 공연 15분전 입장객에 한해 무료다. (032)937-0125

경기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도 5월 7일 저녁 7시 김포 여성회관에서 '제 1회 음악예술제'를 연다. 영남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용화사 합창단이 '향심' '오늘은 좋은날' '생명의 빛' 등을 연주한다. 이어 피아노와 바이얼린 독주, 용화사 실내악단의 합주 등이 펼쳐진다. 전등사 합창단도 우정 출연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등 찬불가도 선사한다. (031)984-3234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주지 대오)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대웅전 앞 무대에서 '건강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음악회에 '웬 건강' 하며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흥에 겨워 음악을 즐기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해진다는게 주지 대오 스님의 생각이다. 출연진들도 설운도, 코리아나, 안치환, 김태곤 등 대중가수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김병조씨의 재치있는 입담은 산사음악회의 재미를 배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악가 정율스님과 흥국사 보현합창단도 이번 음성공양에 한 몫을 거든다. 음악회 시작전 오전 11시부터는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전통사찰음식 공양 잔치를 벌인다. (02)381-7970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은 5월 16일 오후 1시 30분 '제 5회 참꽃축제'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기획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팝, 클래식, 가요, 국악, 무용, 찬불가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인다. 가수 한영애, 국악인 최자영, 비올리스트 김남중, 심진 스님 등이 주요 출연진이다. 이외에도 이명진 무용단도 창작 무용을 펼친다. (02)914-8860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도 5월 18일 오후 6시 큰법당앞 무대에서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에는 성악가인 시명 · 동연 · 도일 스님과 박정식, 김경녀, 김난영씨 등 지역 가수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053)766-3747

안동 대원사(주지 정우)는 5월 18일 저녁 7시 안동시민회관에서, 영주 · 봉화 조계종 사암연합회(회장 지현)는 5월 19일 저녁 7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잇달아 음악회를 갖는다. 18일에는 안동사암연합합창단과 정율 스님, 테너 김민성, 최조웅, 소프라노 강금령씨가 출연한다. 또 19일에는 영주 마하합창단과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소리학당합창단이 '초파일 송가' '진리의 빛' '부처님께 바칩니다' 등을 부른다. 안동 대원사(054)858-2630, 영주사암연합회 (054)672-1446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봄꽃 내음 물씬 풍기는 산사(사진은 심곡암)에서 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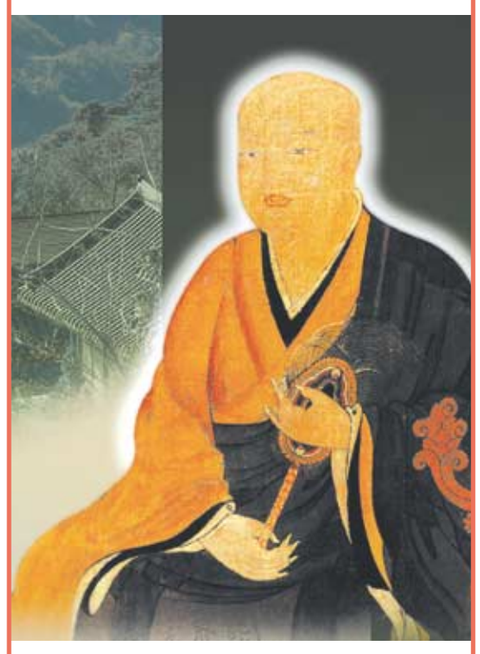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봉축맞이 산사음악회

- 강화 전등사 '쌍깃 프렌즈' 초청(5월 5일)
- 김포 용화사 '제1회 음악 예술제'(5월 7일)
- 고양 흥국사 '건강 산사음악회'(5월 9일)
- 서울 심곡암 '제 5회 참꽃축제'(5월 16일)
- 대구 법왕사 큰 법당서 음악회(5월 18일)
- 안동 대원사 시민회관서 음악회(5월 18일)

문화관광부 5월의 문화인물에

의상대사



문화관광부는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룬 화엄사상을 정립한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625~702)'를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의상대사는 삼국통일기인 7세기 중반기의 변환기를 살면서 신라 사회의 내적 발전에 부응하여 새로운 불교사상인 화엄사상을 체계화하였다. 또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널리 폄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공헌했다.

의상대사는 661년 중국에 건너가 지엄 선사에게서 새로운 불교사상인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를 지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670년 귀국해 낙산에 관음 진신상주 도량을 열고 황복사에서

화엄사상 체계화, 불교 대중화 공헌

기념사업회 · 부석사 학술대회 등 행사

화엄을 가르쳤고, 676년에는 영주 부석사를 창건해 여러 제자들을 모아 화엄사상을 체계적으로 연마하고 청정 수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화엄종단을 이끌었다.

의상기념사업회와 부석사는 공동으로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우선 5월 23일~24일 오후 5시 영주시민회관에서는 '극단 영주'가 창작연극 '의상'을 공연한다. 5월 28일 오후 1시30분에는 동양대에서 '의상사상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5월 29일 저녁 7시 영주 부석사 범종루에서 '중도 하나를 위한 상생축제'를 주제로 화엄음악회를 기획한다. 5월 29일~30일에는 부석사에서 다례제를, 5월 30일 오전 11시 부석사 무량수전에서는 '의상 화엄일승 기념법회'와 '화엄불교 공연예술제'를 연다.

의상기념사업회 (054)633-3464 **김주일 기자**

佛紀 2548年 부처님 오신 날

봉축광고 접수 안내

현대불교신문 창간 열 번째를 맞는 부처님 오신 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특집신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준비된 지면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사찰, 종단, 단체, 업체, 개인 등
- 광고내용 : 사찰(단체)명, 소속 단체, 주소, 연락처, 관련사진, 기타 관련 내용 등.
- 접수방법 : 전화 및 팩스, 우편, 이메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2-1522 / 팩스 02)737-0697
  E-mail : rjk1414@hotmail.com
- 접수마감 : 2004년 5월 17일
  ※ 전국 지사 접수 가능합니다. (지사안내 참조)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 · 경남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 · 경북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일주문



천불전 관음보살상 점안식

서울 경국사 주지 지관 스님은 5월 12일 오전 11시 경국사 천불전에서 관음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2)914-5447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4월 23~25일 사흘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했다.



금오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장 법등 스님은 4월 27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 '희망으로의 초대' 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날' 복지부장관상 수상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관장 신행 스님은 4월 20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마애삼존불 조성불사 회향

경기 양주 백화암 주지 보인 스님은 5월 4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마애삼존불 조성 회향 점안식을 봉행했다. (031)840-1582



'쓰레기 제로 운동…' 세미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유수 스님은 4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쓰레기 제로운동과 대안적 생활양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원문화상 후보자 추천받아

(재)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제13회 행원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분야는 역경상, 문학상, 예술상. (02)586-6521~2



소아암 어린이 돕기 운동 전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성기태 회장은 5월 15~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백화점에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운동'을 전개한다. (02)736-5583



'불타의 세계' 특강

서울 대원불교대학 최봉수 교수(불교원전연구소장)는 5월 15일 대전 보현불교대학 부설 월대수련원에서 '불타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042)624-6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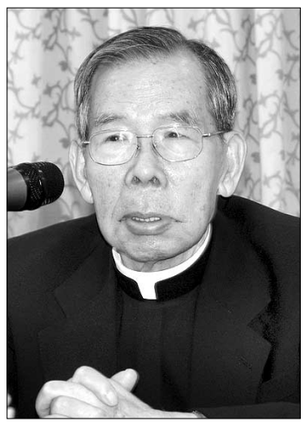
춘계의료봉사 활동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김주효 회장은 5월 9일 충남 당진군 합덕읍 일대로 2004년도 춘계의료봉사를 떠난다. (02)2204-0110

"새시대 지도자는 봉사로 권위 찾는다"

김수환 추기경

동국대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특강



"성직자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카리스마는 그가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때 본래의 의미가 발현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사진)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이 4월 28일 서울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에 초청자로 나서서 '21세기 지도자상'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 추기경은 "어느 국가나 단체나 단체이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융성하게 되고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몰락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야말로 한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며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세상에 봉사함으로써 권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 삼천사 주지 성운, 겁외사 주지 원택, 불암사 주지 일면스님과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주)프레야타운 배관성 사장, 안홍부 감사원 법무담당관,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 윤청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 등 불교 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추기경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의 리더쉽과 봉사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의 권위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봉사에서 나온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은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한없이 어리석고 힘도 없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통치자"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근심을 안겨주는 부담스런 존재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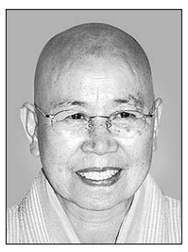
김 추기경은 또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가치보다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됐다"며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비합리적인 사회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이어 "새로운 정치 지도자는 독선과 배척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진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움과 편가르기를 한다면 민주주의와 정의는 우리를 억압하고 사회를 비인간화시키는 기제가 될 뿐이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청소년 性문화 건전하게

'ahsex' 인수한 정덕 스님



"청소년 성상담사이트 '아하섹스(ahsex)'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은 물론, 불교상담체계 정립과 상담전문인력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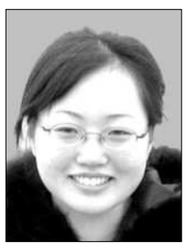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사진)은 4월 28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가진 '청소년 성상담사이트 'ahsex' 인수식 및 불교상담개발원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덕 스님은 "그동안 상담개발원의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불교상담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몇 년 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불교상담대학원을 설립해 불교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님은 자비의전화 상담센터와 교계 상담실협의회(가칭) 등도 창립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용돈모아 새 불상 모셨어요"

서강대 불교학생회 권효정 회장



"새롭게 모신 불상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5월 5일 불교학생 회원들의 용돈을 모아 새 불상 점안식을 봉행한 서강대 불교학생회 회장 권효정(02학번 · 사진) 양은 '힘차게 뛰는 서강대불련'으로 교내 안의 모든 법우들을 부처님 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권 양은 "봉안돼 있던 불상이 많이 바래고 여기저기 상처가 났었다"며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중 전 회장의 제안으로 새 불상을 봉안할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뜻을 세운 학생들은 새로운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점심값을 아껴가며 불사금을 모았고, 불상 봉안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 모두를 북한 용천피해민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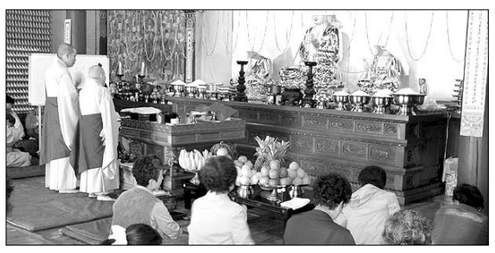
"아직 학생이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북한동포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김은경 기자**

공불련, 대흥사서 성지순례 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는 4월 24~25일 해남 대흥사에서 성지순례 법회를 봉행했다. 감사원, 국정원, 행자부 등 국가기관 및 지차제 36개 불자회 3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철야정진, 새벽예불, 새벽숲길 걷기, 암자순례 등이 진행됐다.

인천 영산정사, 불상 점안식



인천 수봉산 영산정사(주지 정관)는 4월 28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을 증명법사로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및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정관 스님은 "불상봉안 공덕을 통해 늘 정진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선재마을의료회, 충남 동학사 진료봉사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는 4월 25일 충남 공주 동학사 청설전에서 학인 스님과 지역 주민 16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 활동을 벌였다. 내과, 방사선과, 산부인과 등 총 3개과 진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선재마을의료회원 20여명이 동참했다.

포천 보현사 26일 개원 법회



경기 죽엽산 보현사(주지 현봉)는 4월 26일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서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보현사 회주 일면 스님의 법어, 김태복 예비역 장군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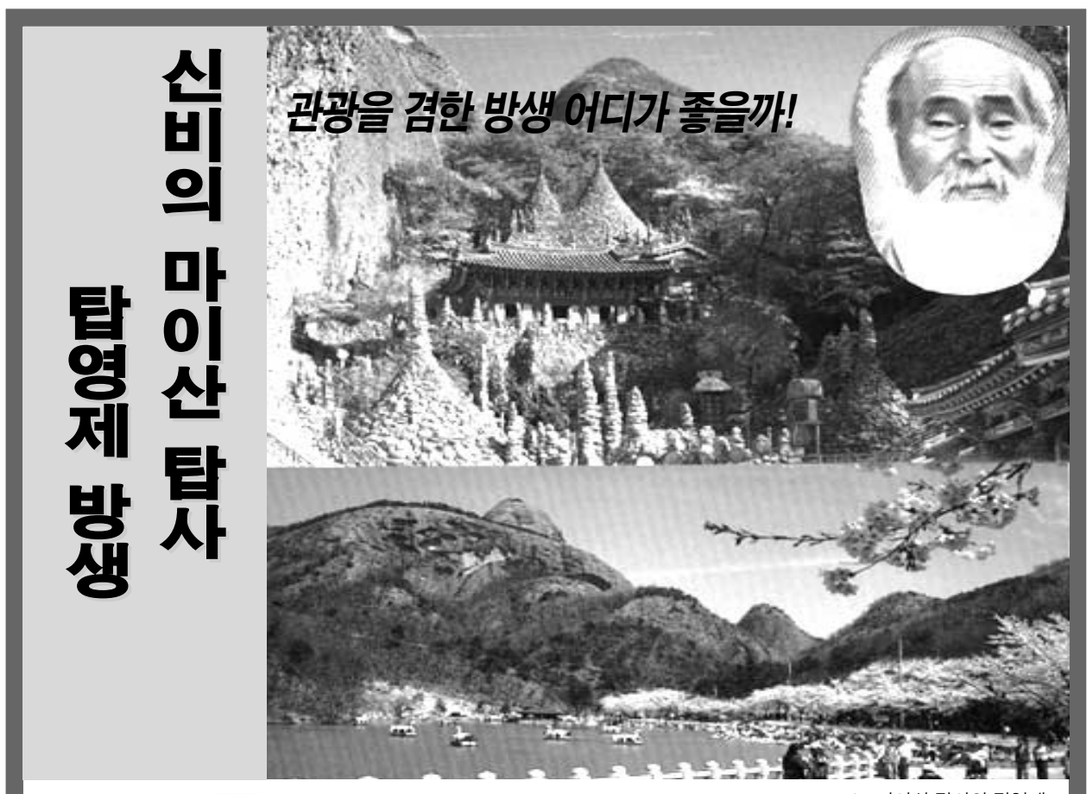
광동고 후불탱화 봉안 및 수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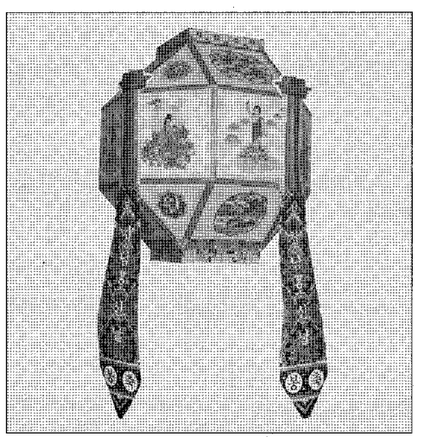
경기 남양주 광동고등학교(교장 송상철)는 4월 27일 학교 법당 선불장에서 후불탱화 봉안 및 수계식을 거행했다. 계사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항상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 사회를 향기롭게 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화촉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윤기혁 사무국장은 5월 9일 오후 1시 30분 부산 황실예식장 4층 국화실에서 개금복지관 사회복지사 임화일 씨와 화촉을 밝힌다. (051)868-0951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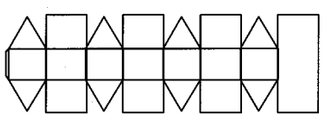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불자 세상보기

김 경 희
한국 JTS해외지원사업부장

용천에 심는 자비의 씨앗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로 희생된 많은 이들 앞에 가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현장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다쳐서 누워 있는 학생들을 보면 붕대가 없어서 천으로 싸매고 있거나 안대가 없어서 일반천을 사용한 모습, 붕대, 반창고 등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대충 싸매다 만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번 용천역 폭발 참사가 아니더라도 북한 내에서는 치료할 의약품이 거의 없고, 링거줄이나 1회용 주사기도 2~3회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산에는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경작을 하지 못해 황폐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계들은 20년이 넘은 골동품입니다. 그것도 기름이 없어서 작동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용천역 폭발 참사도 낙후된 북한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들을 접하면서 오랜만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북녘의 동포들을 돕자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의 대북지원은 정부와 종교 ·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지원을 하고 국민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는 지원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이웃, 북한을 돕자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숱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정부와 종교 · 민간단체가 묵묵히 지원해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해 왔던 도움의 손길이 모여 어느 순간에 한 목소리가 된 것처럼, 이 목소리가 모여 남북의 통일로 나아가리라 생각 됩니다.

아직은 주는 우리의 모습이나 받는 북한의 모습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물자는 받지만 인력지원이나 수송을 육로로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동요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남한 내에서도 혹시 너무 많이 주는게 아닌지, 이 지원품들이 정부관리나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상반된 태도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열악하고 폐쇄된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북한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남한도 이번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지원하면서 이것이 바로 쓰이느냐 다른 곳에 쓰이느냐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 앞에서 손익을 계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무주상보시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북한을 포용할 때 비로소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번 룡천역 폭발 참사를 계기로 남북한이 서로 믿고 화합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4년 4월 28일 열린 제169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상을 '직지'라는 이름으로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기념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청주시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 상은 세계 기록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뿐더러 우리의 성보문화재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문화재가 세계에 점차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성보문화재 가운데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산팔만대장경, 그리고 직지심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03년에는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전시한 '신성상의 전래 – 한국과 일본의 초기불교 미술전'이 뉴욕 타임즈에 의해 2003년 미국에서 개최된 최고의 전시회로 선정되었다. 비평가 홀랜드 코터(Holland Cotter)씨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들을 소개한 전시회"라고 극찬하였다.

'직지'는 세계인의 성보

이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우리의 성보문화재 가운데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적지 않다. 고려 및 조선불화, 불상, 신라동종, 고려정병, 불경판화, 동자상, 조선시대 목조공예 등. 최근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 꾸준히 우리의 성보문화재를 수집하고 있다. 성보문화재를 통해 우리 불교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뜨거운 관심과 달리 정작 불교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성보문화재를 왜 세계화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진한 고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각국에 소장된 우리의 성보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세계인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파악하며, 우리의 성보문화재를 외국에 소개하는 전시회, 외국어 출판물 등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불교계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정병모(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자살과 명예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마침 구멍이 하나 있는 통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어리석은 범부가 생사를 윤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눈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잡아함경〉

최근 비리 연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박태영 전남지사가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왕따 동영상' 문제로 중등학교 교장이 목숨을 끊은 등, 하루라도 자살 소식이 신문 지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다. 또한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만나 집단 자살을 하거나 청부 자살을 요청하는 등 자살은 이제 흥미꺼리로 전락한다는 느낌이다. 이런 행동이 마치 시대적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가난과 신병을 비관하거나, 불명예를 참지 못하는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자살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참아보지도 않고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동 결과로 닥친 역경을 극단적인 자살로 마감하는 것은, 분명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생존시에 60명의 자살을 도운 '미가란디까'라는 승려의 이야기를 듣고 "비구들이여, 이것은 그 승려들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법에 알맞은 것이 아니고 사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이 계율을 공포한다. 승려가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자살을 도와 줄 사람을 구하거나 하면 함께 살 수 없다<팔리어 율장>"며 엄중히 경계하셨다. 자살은 죄가 무거워 승가공동체에서 추방되는, 바로 '바라이죄(波羅夷罪)'에 해당된다.

■ 강유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자비 보험금운동은 '필수'

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제반복지가 전무후무한 상태였다. 특히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스님들이 노후를 위해 주지 또는 주요 소임을 맡는 기간 동안 사재를 축적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종단의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문화적, 역사적 보고로써 중요한 자산인 사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불국사, 석굴암에 찬사를 보낸다. 조계종의 모든 사찰과 스님, 재가불자들이 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스님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은 필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의 대비책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특히 요즈음처럼 불확실의 시대에서는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보험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이부분이 원만히 실행될 때, 종단에서 안고 있는 제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다.

도원(붓다뉴스)

'세상에 도움되는 불교' 감명

4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 초청법회에서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이라도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스님의 법문은 한국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간화선 수행만 강조한 나머지 중생 교화와 사회복지 참여에 너무도 소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좋은 절 차지하고 좋은 차를 타려는 스님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리이타의 좋은 가르침은 도외시한 채 일신의 영욕에 눈 먼 수행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운 스님의 법문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불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다.

변화는 나로부터, 내가 다니는 사찰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 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는 자리이타를 실천해보자. 가까운 이웃부터 되돌아보자. 불법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 한국불교, 나아가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우창석(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사찰 사회참여 부족 아쉬워

북한 용천지역 열차사고 소식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특히 등하교를 위해 열차를 이용한 아이들의 인명피해가 막심하다니,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메어지듯 아파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인근사찰을 찾았다. 공영방송이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들이 북한주민돕기 성금 모금을 많이 벌이고 있지만, 불자로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북한민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사찰에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어떠한 모금운동도 준비되지 않았다. 스님은 사찰의 규모가 작을뿐더러 종단이나 각 불교계기관들에게 벌이는 운동이 많으니 거기로 문의해 보라고 했다.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도움의 손길에 대소가 어디 있으며, 비록 적은 액수가 모일지라도 그 자체가 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됐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신도들이 종단이나 불교단체들의 소식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앙위주의 사회참여는 불자들의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조차도 사찰에서 북한돕기 사업이 없다는 말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이번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노선희(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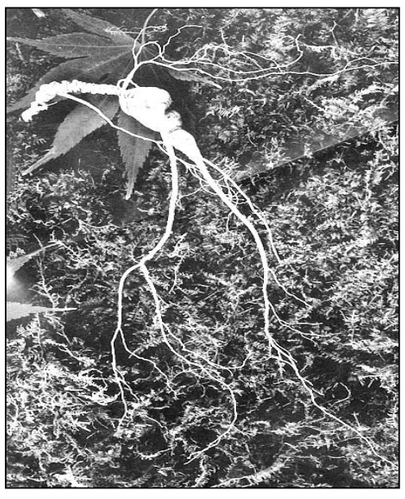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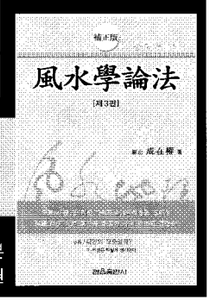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도표 사진 등 최신 기획자료 4백여점을 집대성
佩鐵 向法 九星 紫白을 해설한 국내 최초의 결정판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내용과 표현방법을 단순화 해 흔한 스타일의 표현은 탈피했다.

부록 / 나만의 모순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재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512페이지 / 정가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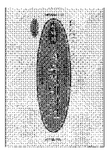
출간예정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헌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48페이지 / 정가 20,000원



일현스님 지음 양장본 값 20,000원

일현스님의 정설 사주공부
역술인의 완전정복 지침서
"기초부터 전문감정까지 한 권으로 끝낸다!"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은 정리하였다.
기초부터 전문이론까지 핵심을 꿰뚫었다.
고전이론을 현대에 맞게 적용시켜 풀이하였다.
10년 공부한 사람도 막히는 격국 용신을 원리적으로 해결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동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枰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술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화제의 신발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룸비니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지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떠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K신도 권사도 절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누벅을 사용했으며 밀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별사은품 증정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관 해도 도망치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는 성구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 불자님께 순금도금한 삼고 금강저(사진)를 특별증정한다.

왜! 삼고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남치, 살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삼고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게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주는 봄경에 입각한 수호신인 삼고금강저를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하는 분께 평생 지니고 다닐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축원불공을 마치고 특별증정 한다. 여성께는 핸드백 속에 항생은 가방속에 노인과 어린이는 주머니속이 항상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최고급으로 제작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 향로

'소원성취 향로'화제집중

99% 청동으로 만든 국보급 명작



관음예술원

불경에 입각한 성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고급 청동으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 여의주 백연화 수진언 향로"는 불경에 입각해 영험으로 저작된 국내 향로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이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말하는 것으로 번영과 소원성취의 바람을 담고 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수진언은 그동안 큰 스님들을 통해 그룹으로 그려져 불자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긴급비방으로 전해져 왔다. 사업이 어려울 때의 향로의 비방은 동쪽,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함격의 비방은 서쪽, 자녀를 기다리는 임태의 비방은 북쪽, 승진과 취업의 비방은 서쪽, 병고 회복의 비방은 북쪽, 개업을 준비중인 성공 사업기원의 비방은 동쪽, 인연의 짝을 찾는 비방은 동쪽, 법적 문제 승소의 비방은 서쪽, 가정의 우기 또는 개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등 비방에 따라 향로를 놓고 진언, **"옴 바아라 바다리, 옴 바아라 미라야 사바하."**를 아침마다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성심으로 지혜를 얻으며 가지가지 보배 재물이 들어오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워 진다 했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폐하기만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5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도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 되고 있다. **관세음보살 수진언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다. 두께 2.7kg,높이22cm,넓이17cm 가격295,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들어 절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편치 않는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절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검정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등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계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곡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자비의 신발을 보시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제일가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씨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된다고 했다.

120년만에 찾아온 갑신년이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 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을 것이며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룸비니는 (주)룸비니에서 스님의 승복 색상에 맞춰 품위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대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에도 피곤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초운겨울에는 대단히 따듯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금강저 건강밸트

부처님의 불력으로 남자들의 승리와 안전의 수호신



험한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 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 밸트를 제작하여 남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부모님께 건강의 선물!
남편에게 승리의 선물!
학생에게 지혜의 선물!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불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 한것이 돋보여 직장인은 물론 중, 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 등 믿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새상품

살빼는 신발 스라필드 인기

독일 뮌헨 다이어트 기능대회 대상수상



착지시 뒷굽이 15° 공중에 떠있는 과학적인 신발

'살빼는 신발' 국내외 인기폭발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에서 발명특허를 받고 독일 뮌헨 다이어트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살빼는 다이어트신발, 스타필드"가 국내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신으면 살이 빠지는 신발"을 개발한 부산 삼덕통상(주)는 초기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지에 전량을 수출,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기능성 신발 메이커로 부상했다. 특히 독일에는 이 신발이 비만의료기로 수출되고 있다.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삼덕통상측이 이제 국내시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것이다.

이 신발을 신고 30분만 걷거나 뛰어도 3시간 이상의 운동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 신발은 하체와 허리를 날씬하고 튼튼하게 단련시키거나 허리를 반듯하게 균형잡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도입됐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 고민하는 이나 다리에 힘이 없고 복부비만으로 고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의 이용을 권하고 있다. 수출의 날 대통령상과 산업평화상도 받은 스타필드 신발은 "마라톤 선수들이 발의 앞부분으로만 뛴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며 "뒷굽을 앞에 까치발식 걸음으로 복부와 다리에 힘을 쏠도록 한다"는 원리를 원용한것이다. (080-555-3030)

부산=이영자 기자 yj3119@hot.co.kr

하루1시간 운동으로 월 2kg빠져





부처님 福 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佛力!

룸비니 福 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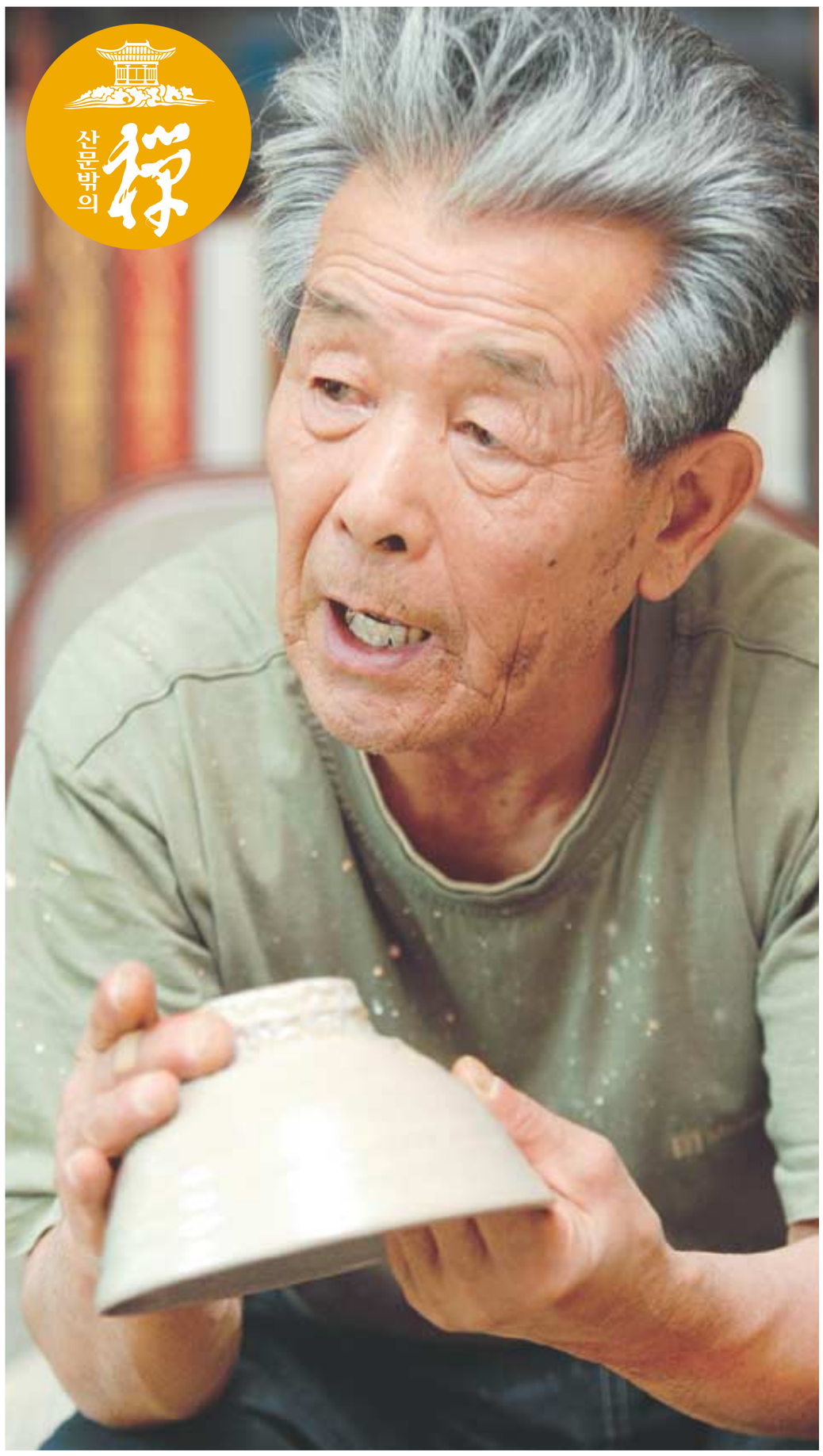


120년 만에 온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흘려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불려 괴질과 풍토병이 만연하여 氣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학적으로 볼때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방황하지만 갑신년 후반기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옛부터 갑신년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같다하여 화를 쫓고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위해 부처님 공양구 또는 법구를 집안에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 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금의 해라 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 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 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은 갑신년이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 성구 卍자를 지갑 정면에 넣고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 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으로 출시된지 1년동안 안되든 장가가 잘되고 어려운 사업이 풀리는 등 숫한 화제를 낳은 지갑이다.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 양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구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녀공용 반지갑은 55,000원, 여성용장지갑은95,000원에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 신청하면 보내준다.

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욕심 버리고 자연을 빚습니다



천한봉 도예명장



고려다완 처음본 후 평생화두로
전국돌며 나무, 흙 3년간 연구
집착 버리니 좋은 작품 나와

"조선 찻사발의 아름다움은 평범 속의 미, 무의식의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단순히 '생각 없음'이 아닙니다. 감히 '몰아(沒我)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흙과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자연과의 합일(合一)이죠."

4월 22일 경북 문경시 진안리 문경요(聞慶窯).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열심히 흙을 개던 한 어르신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한다. 155cm가 채 될까 말까한 키에 흐트러진 머리, 흙이 잔뜩 묻은 트레이닝 바지와 고무신. 그가 바로 '대한민국 도예명장(95-19호)' 천한봉(72 · 문경요 대표) 선생이다.

14살의 나이에 흙을 만지기 시작해 올해로 56년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했던 찻그릇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조선 찻사발의 명인(名人)'이다.

갑작스런 부친의 작고로 14살의 나이에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됐고, '먹고 살기 위해' 도자 공장에 취직했다. 낮에는 나무와 흙을 나르는 허드렛일을 하며 어깨 너머로 물레 돌리는 법을 배웠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그는 문경 일대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도공이 됐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며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이 쏟아져 들어오자 도자기는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차츰 멀어지게 됐다.

항아리와 화분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던 68년, 그는 자신의 인생 진로를 바꾸게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일본 대각사 주지인 사쿠라카와 스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스님은 <고려다완>이란 책을 보여주며 조선 찻사발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했다.

"책에 실린 조선 찻사발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것이 내 평생 화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그는 찻사발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3년간 흙과 불을 연구했다. 나무와 흙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고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다도(茶道)를 배우기도 했다.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막막합디다. 찻사발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 흙과 불의 원리를 하나하나 체험으로 알아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불 색깔만 봐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알겠더군요. 사람들은 저를 명장이니 명인이니 하고 부르지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욕심을 버리고 마음까지 놓아버린 후 찻사발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잡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릇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일본에서 결성된 '천한봉 후원회'에서 모두 구입해갔고 그들의 초청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72년 '문경요(聞慶窯)'를 설립한 후 본격화된 그의 작품 활동은 70년대 후반 국내 차문화 운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차인들 사이에 점차 알려지게 됐다. 95년에는 '대한민국 도예명장'에 지정됐다.

-작업은 주로 언제 하십니까?

"보통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그릇을 빚습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지요.

"논다고 건강해지나요. '좋은 찻사발 하나 만들고 죽겠다'는 화두를 아직 못 풀었는데 게으름 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조선 막사발이 일본에서는 '국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예문화가 일찍 발달했어요.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막사발도 많이 만들어 썼죠. 그런데 너무 흔하다보니 귀한 줄 몰랐다고 할까요. 그런데 일본 차인들이 조선 무명작가의 작품에서 '무의식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것입니다."

-찻그릇을 쓰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무리 좋은 찻사발이라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찻사발이 있어야 할 곳은 장식장이 아니라 실제 차인들의 찻상 위라야 합니다."

40여 톤에 달하는 소나무 땔감과 하동에서 사왔다는 수십 포대의 흙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든 가마를 차례로 설명해주던 그는 후학 양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 자신은 학교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현재까지도 문경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에서 제자를 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 너무 얇아요. 금방 싫증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일 배우러 왔다가도 몇 달 만에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겠나' 하고 떠나버려요. 10년간 '나(我)'도 버리고 배워야 겨우 도예의 기본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시대 '명장'의 말은 평범 그 자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처'이기에 가족이나 극히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모습이나, 일년 내내 끊이지 않는 방문객들에게 귀찮은 기색 없이 친절히 설명해 주는 모습은 그 어떤 말이나 논리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찻사발이 '거칠지만 꾸밈없고 순박한' 우리 민족을 닮아 있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기자



천한봉 선생의 순박한 웃음과 겸손한 태도는 자신이 만든 찻사발과 너무도 닮았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부처님 오신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299일 지혜의 등불 299연등 소요비용을 북한 용천역 폭발사건 구호 성금으로 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께 드리는
299일 지혜의 등불 밝히기 봉행

우리절에서는 오는 5월26일부터 2005년3월21일까지 299일 동안 관음전에 자비를 들여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위해 연등을 달고 불을 밝힙니다. 정당 · 종교 · 지역 · 정책 · 사상 등을 뛰어넘어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연으로 국민들로부터 언제나 칭송받는 그런 입법위원들이 되십시오.

■ 참고자료
생전예수재를 봉행할 때 명부세계 열 분의 십대왕을 비롯하여 사자들과 권속 등 모두 299분의 신위를 모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겁 뒤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깨닫으시고 세 번의 대법회를 열어 모두 299억의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셨습니다. 이 299분의 신위와 299억의 제도중생의 수는 미묘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와 맞아떨어집니다.



일원곡⑨
지 장 경
짓고쓴이 : 고불고조
옮겨쓴이 : 지암일원
요모조모 : 동봉정휴

ⓘ 우리절에 오시면 무료로 보시해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8〉

관무량수경의 극락 가는 방법

석가모니 부처님 만년의 일입니다. 온갖 장애로부터 벗어나신 부처님도 안팎에 걸쳐 슬픈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으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제바닷다가 교단의 권력을 장악 하기위해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사건과 밖으로는 역시 데바닷다의 꼬임에 빠진 빔비사라왕의 아들인 아자세 태자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부왕을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한 사건입니다.

이때 왕비 위제희 부인은 아들 몰래 감옥에 있는 왕에게 음식물을 넣어 주었는데 그만 이 일이 아들 아자세 태자에게 발각 되어 남편처럼 왕궁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슬픔에 빠



진 위제희 부인은 탄식하며 부처님 뵈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처님이 계신 영취산을 향해 예배하였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아난과 목련 두 제자를 데리고 부인의 처소에 나타나 양 미간으로 빛을 발하여 시방세계의 정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본 위제희 부인은 여러 정토 가운데에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발원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부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저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 하시고 저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먼저 세 가지 복을 닦고 열 여섯 가지 관을 실천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위제희 부인은 마음이 크게 열리고 크게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고 함께 했던 오백명의 시녀들도 보리심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서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에서 말 하는 극락정토에 나아가는 방법으로써의 세 가지 복과 열여섯 가지 관은 무엇인가.

먼저 세가지 복은 첫째, 세간에서 행하는 도덕적 행위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등의 십 선업을 닦는 일이고 둘째 삼보에 귀의하여 계율을 받아 지니고 위의를 갖추는 일이며 셋째 대승의 깨달음을 얻고자 보리심을 일으켜 인과의 이치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되 이를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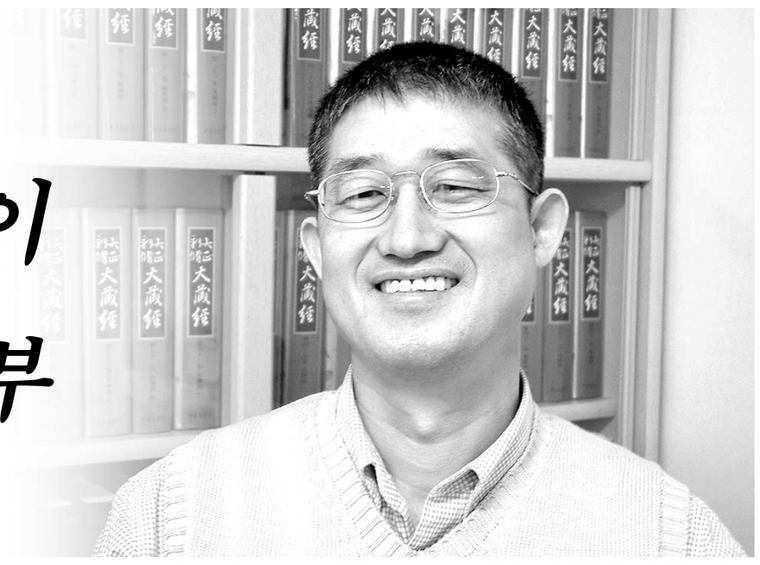
다음으로 열여섯 가지 관은 해를 떠올리는 일상관(日想觀), 물

세가지 복 짓고 16가지 관법 실천하라

을 떠올리는 수상관(水想觀), 땅을 떠올리는 지상관(地想觀), 보배 나무를 떠올리는 보수관(寶樹觀), 보배연못을 떠올리는 보지관(寶池觀), 보배 누각을 떠올리는 보루관(寶樓觀), 연꽃으로 장엄된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계신 모습을 떠올리는 화좌관(華坐觀), 부처님의 형상을 떠올리는 상관(像觀), 부처님의 참모습을 떠 올리는 진신관(眞身觀), 관세음보살을 떠 올리는 관음관(觀音觀)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觀)의 의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관찰하여 그성품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수행인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을 한번 독송 해 보고 조용히 앉아서 십육관법중에 하나의 주제를 마음에 떠올려 삼매에 들게 하는 공부도 훌륭한 수행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마선원장〉

'空=하나' 확인 과정이 금강경 공부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의 금강경으로 禪 공부하기

■김태완 원장 훈산 박홍영(82) 거사의 문하에서 선을 공부한 김태완 원장은 부산 무심선원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선 공부를 지도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부산대대학원 철학과에서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저서로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서장공부〉 가 있다. 역서로는 〈임제록〉 〈선문수경(禪門手鏡)〉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혜능의 새로운 선〉 〈견성의 심성론적 해명〉 〈선과 언어〉 등 10여 편이 있다. (현대불교신문사 자료사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 이와 같이, 이것처럼, 이대로, 이것, (손짓을 하며) 요거대로…. 지금 눈에서 쓰고 있고, 귀에서 쓰고 있고, 입에서 쓰고 있고, 머리에서 쓰는 있는, 이와 같이 듣는다 이겁니다. 들었다가 아니라 듣는다 입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들을 수만 있다면 경전을 읽든, 동화책을 읽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착수(着手)하는 그 지점에서 결단을 내라' 던 어느 선사 스님의 말처럼, 눈치가 빠르다면 '여시아문' 이란 말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 글은 지난 해 1~6월 매주 토요일 부산 무심선원(원장 김태완)에서 김태완(47) 원장이 강의한 '선(禪)으로 본 금강경 법회' 의 강의 중 일부분이다. 최근 발간된 〈禪으로 읽는 금강경〉(고요아침 펴냄)은 〈금강경〉 경문에 대한 단순한 교리적 해설 수준에서 탈피해 선수행과 마음공부의 지침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백양사의 호산스님(서옹 스님 제자)이 "도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선의 세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금강경〉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을 정도다.

〈금강경〉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에서 '환지본처(還至本處)' 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자.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에서 '본래 있던 자리(本處)' 란 사실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주법(無住法)' 이라고 합니다. '도' 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인연 위에서 마음이 살아 있고, 도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밥숟가락 위에 도가 있고, 빨래 할 때는 빨래판 위에 도가 있고, 글을 쓸 때는 손가락 끝에 도가 있고, 걸어 갈 때는 발끝에 있고, 눈길을 돌려서 쳐다볼 때는 눈길 가는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김 원장의 강의는 일상 생활을 소재로 친근하게 〈금강경〉을 풀이한다. 그러면서도 본래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참 자아' 를 만나게 된다. 단 한번도 '도란, 진리란 이런 것이다' 고 말한 적은 없지만, 도가 무엇인지 법(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실감하게 된다.

"도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토록 도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가? 대답은


부산 무심선원의 '금강경 법회' 장면.

> 육조혜능 대사는 불교 입문 전 우연히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문득 마음 밝아져 깨달아

도·진리·법은 모두 본래 '나' … '말에 속지 말것'

간단합니다. 도, 진리, 법 등은 모두 본래의 '나' 이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의 첫걸음은 '본래의 나' 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갈구하며 〈금강경〉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금강경〉일까. 〈금강경〉이 다름아닌 선종의 소의경전이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개조인 육조혜능 대사는 불교에 입문하기 이전에 우연히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마음이 밝아져 깨달았고, 그 인연으로 오조홍인 대사로부터 〈금강경〉 해설을 듣고 다시 크게 깨달아 진여본성(眞如本性)을 보았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란 경문을 듣고 문득 견성하여, 만법이 모두 자성(自性) 일원(一元)일 뿐 없애야 할 망상(妄想)이 따로 없음을 깨달은 혜능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혜능 스님이 〈금강경〉 해설을 듣고 견성하여 체득한 '반야삼매(般若三昧)' 란 무엇일까. 혜능 스님에 따르면, 반야삼매란 자재해탈(自在解脫) 또는 무념행(無念行)이라고도 하는데, 만법을 대하되 그 만법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청정한 성품을 유지하며 육근(六根)을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즉 반야삼매는 만법 속에서 만법에 걸리지 않고 청정한 자성을 유지하는 무념행이자 자재해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반야 즉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자성을 깨닫게 되면 곧 지혜가 나타난다고 한다.

김 원장은 "어떻게 해야 망상분별에서 풀려나 자유롭고 한결같이 반야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지혜라고 말한다. 〈금강경〉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는가를 밝히고 늘 한결같은(如如)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경과 간화선의 요점은 '말에 속지 말라' 는 것"이라는 김 원장은 오직 '하나(공, 본래면목, 마음, 주인공 등)' 를 확인하는 공부가 선 수행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하나' 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 '하나' 만을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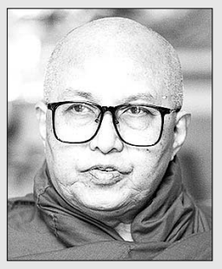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미얀마 찬메 사야도 위빠사나 수행서 발간

"마음-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국에 '우자나까' 라는 법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얀마의 고승 찬메 사야도(76 · 사진, Chanmyay Sayadaw, 찬메수행센터 원장 · 사진)가 수행지침서인 〈위빳사나 수행 28일〉(한국빠알리성전협회 펴냄)을 펴냈다. 1991년 12월 28~24일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직접 지도한 수련회에서 강의한 28일간의 강좌를 녹취, 그의 한국인 제자 케마(Khema, 김도희) 보살이 번역해 출간한 이 책은 이제 막 위빠사나 수행에 입문해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책이다.

이 책에서 찬메 사야도는 마음과 몸의 두 가지 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마음챙김(주시함 또는



알아차림; being mindful) 한다면 그것의 내재적인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만일 이러한 마음-몸의 과정을 단순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어떠한 갈애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갈애가 깨져버릴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며, 괴로움의 소멸(涅槃)을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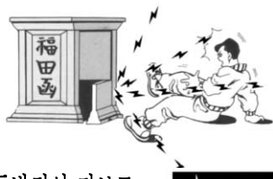
찬메 사야도는 "마음챙김 수행의 목적은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것"이라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알아차려야 한다"고 당부한다.

세계적으로 위빠사나를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미얀마의 마하시 선사(Mahasi Sayadaw :1904-1982)의 직제자인 찬메 사야도는 1979년부터 세계 30여 국을 순방하며 법을 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지난 92년부터 6차례 방문해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5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 목,금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5시 ~ 6시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현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실습 세미나

마음작용을 객관화할 수 있을까. '명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또한 명상과정의 끝에 닿아있는 '정화' 혹은 '자각' 등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보이려는 시도 역시 활발하다.

그러나 과학의 옷을 입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서울 독산동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목정배) 명상학 전공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명상실습 세미나' 수업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강의다.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국 각지의 명상센터에서 일정기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가 체험하고 이해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명상법 직접 체험하고 낱낱이 해부

이번 학기의 마지막 발표회가 열렸던 4월 27일 강의 현장을 찾았다. 보리수선원과 명상아카데미 등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거친데 이어, 이날은 마음수련원과 단월드(단학선원) 수련프로그램을 주제로 삼아 수업이 시작됐다.

"마음수련원과 단월드 명상수련은 대중화된 지역형 수련이라는 점에서 함께 비교할 만합니다. '건강을 위한 수련'과 '깨달음' 사이에 명시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나, 수련자 배출과 수련원 확장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등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요."



4월 27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층 법당에서 열린 명상실습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박재완 기자

토론할 수련프로그램 정해
주제발표자가 수집한 정보 공개
명상법 한계·목표 등 열띤 토론
관법명상과 비교 분석 흥미로워

집 근처 수련원은 물론이고 미국의 명상도시 세도나 등지를 전전하며 명상체험을 생활화했다는 백지연 씨가 주제발표를 맡아 수업을 이끈다. 수련법은 기본이고 수련장과 지도자에 대한 세세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백 씨의 설명에는 빈틈이 없다. 건강상의 절박한 이유 때문에 시작한 수련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꼼꼼한 분석과 냉철한 객관화의 시도에서 명상학 전공자의 면모가 엿보인다.

"두 수련원의 명상법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일면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표방하면서 수행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수행원리는 두 수련법의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죠."

이미지와 자기암시를 이용한 명상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 역시 경청할 만하다. '회상을 통해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털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 참나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수련원의 수행법, '심신을 이완한 가운데 뇌의 정화와 깨침을 유도해 나가면 심신평안과 잠재능력 계발이 절로 이뤄진다'는 단학 · 뇌호흡 수련법은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백씨가 이들 수련법을 '자각'을 포함하지 않은 '정화'라고 표현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백 씨의 주제 발표가 마무리되자 다섯 학생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수행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문화상품이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명상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엇갈린 주장 등 두 수련법과 명상계 전반에 관한 밀도높은 얘기들이 진행됐다. 여기에 '관법명상'과의 비교분석도 이어졌다. 관법명상은 인도 고엔까 계통의 위빠사나 명상과 대승불교의 여러 명상법들을 '지금-여기'에 맞게 통합한 것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제시 · 지도하고 있는 명상법.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취약한 관법명상의 형식과 기법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본원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이어나가야 할 것에 동의했다.

강의를 맡은 황용식 교수는 "다양한 명상법의 체험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생활명상의 원리와 방법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02)808-6582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인터뷰

명상, 수단이나 방편에 휘둘리면 안돼

황용식 교수



"수련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흡하게나마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할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명상학 전공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황용식 교수는 만만치 않은 수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논리로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마음의 문제라 해서 방기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그는 '명상실습 세미나'라는 수업을 마련했다. 다양한 명상을 체험하며 '명상'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이해의 기준을 마련하는 수업이다.

"그 어떤 명상법이라도 강의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치료의 목적과 결합한 명상역시 관찰과 평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명상의 핵심은 수단이나 방편에 의해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황 교수는 이외에도 '명상교수법' 등의 강의를 통해 명상지도와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2월에는 그의 문하에서 국내 최초의 명상학 석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루스 데니슨 (下)

신체감각 주시, 無常 자각

미국 캘리포니아 조슈아에 위치한 '담마데나 사막 위빠사나 센터'(Dhamma Dena Desert Vipassana Center)의 설립자인 루스 데니슨(81 · Ruth Denison) 법사의 통찰 명상은 신체를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기법을 포함한다. 이것은 지각되는 감각의 끊임없는 변화 및 활동에 특별한 주시를 기울여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자각하는 방법이다.

루스 법사는 1958년 LA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서를 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결혼 전에 힌두교의 베단타 사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사원을 떠났다. 남편은 선시(禪詩)에 관심이 많던 앨런 와츠(Alan Watts)와 친구여서 루스 법사도 자연스럽게 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인연은 루스 법사가 선과 위빠사나를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수행법 배우려고 아시아 각국 순회
위빠사나 통해 좌선의 즐거움 체험

1960년 루스 법사는 남편과 함께 다양한 수행법을 직접 접해 보기 위해 일본,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잠깐씩 머물며 불교 명상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미얀마에 도착한 루스 부부는 마하시(Mahasi) 스님의 사원에서 본격적인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했다. 여기서 그녀는 비로소 고통스런 좌선 시간이 자연스러운 즐거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하시센터에서 얼마간 수행한 후 그녀는 영어를 잘 하고 재가자들이 수행하기에 보다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우바킨 법사의 수행처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녀는 위빠사나 명상의 한층 깊은 경지를 체험하게 되며 우바킨 법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우바킨 법사는 몸의 감각을 항상 마음챙김 할 것을 강조했으며 그녀는 충실히 그의 가르침을 실행했다. 그녀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과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삼매(집중)의 수준은 더욱 깊어졌으며 명상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그녀는 일본으로 가서 1년간 야마다(Yamada) 노사와 소엔(Soen) 노사, 야수타니(Yasutani) 노사로부터 선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일본의 좌선 수행은 매우 엄격했지만 루스 법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청규(淸規)를 좋아하고 무난히 지켜내었다. 그녀는 IMS(Insight Meditation Society)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수행자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무자(無字)' 공안으로 정진했습니다. '무'자 화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마음과 몸뚱어리를 분리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소엔 노사는 선이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시 위빠사나 명상을 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화두를 들지 않고 묵묵히 앉아 모든 생각을 끊고 하는 조동종 선법인 '지관타좌(只管打坐)'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선법이 화두 공부로 흐트러진 나의 에너지와 신체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www.dharma.org)

우바킨 법사는 1971년 입적하기 얼마 전에 다섯 명의 외국인에게 위빠사나를 지도해도 좋다는 증명서를 써주었는데,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루스 법사가 이것을 받았다. 그녀는 이때부터 각국의 선원에서 명상을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 그녀를 찾는 어느 곳이든 달려가 통찰명상을 지도했다.

그러나 81세의 고령에 접어든 그녀는 요즘 거의 외부 강연을 하지 않고 미국 캘리포니아 담마데나센터에서 찾아오는 수행자들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 때론는 선사들에게 선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남-북방 수행법의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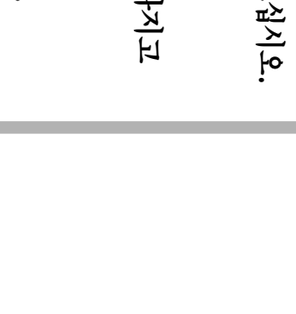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재로운 앞길이 열리며
재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재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신수회 회장상)

최봉종 (대전교도소)

나유타 〈중〉



그림 · 김흥인

찬불가 공모서 '대상' …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

하지만, 거의 새벽까지 매일 연습하다보니 일주일 후에는 4소절 짜리 곡은 눈을 감아도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방법으로 한곡 한곡 연습했더니 봉축법회 때는 반주가 곁들어진 찬불가 세 곡을 선보일 수 있었다. 중간에 몇 군데 틀려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노래를 마친 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나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외부 합창단이 위문공연을 오면 반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는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가,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 반복해서 연습했다. 설사 천재라 한들 한번 본 것을 그대로 따라 칠 수 없겠지만, 악보를 구해놓고 흉내 내어 보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렇게 조금씩 음악을 알아간 것 같다.

이곳 수용자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봄과 가을이 없다고들 한다. 여름과 겨울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다. 겨울의 방안은 밖의 기온과 다를 바가 없어서 겨울에는 장갑 손가락 부분을 잘라서 끼고 연습한다. 그래서 겨울에는 늘 동상 때문에 고생한다.

그런 나의 노력을 가상히 보신 분들의 도움으로 악대반으로 부서를 옮길 수 있었다. 그곳에서 피아노는 물론 여러 악기를 다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크나큰 행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악기를 익혀보고 각각의 역할과 조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음악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무언가 보답하고자 교도소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뮤지컬 '진묵대사', 제 2회 '앙굴라마', 제 3회 '조신의 꿈' 등을 직접 연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불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재소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등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였을까. 교도소사상 처음으로 외부공간인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인간 문화재 공옥진 선생님과 함께 연극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날 더욱 감격스러웠던 일은 내가 작곡한 노래를 부를 때 이 죄인의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9년 8월 현대불교신문에서 보도한 '창작 찬불가 공모'를 보고 그간 만들어 놓은 곡들을 불교 담당님께 보여드리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사실 응모하면서도 그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곡들이니까 입상하지 못해도 응모자체로 만족하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 곡이 뜻하지 않게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2001년 8월 제3회 창작 찬불가 공모에서는 악보와 테이프로 예선을 치르고 본선은 대회장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수인의 몸이라 본선 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는 예선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나중에 본선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고 그 정도로 만족하자 하고 마음먹었지만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런 간절한 심정을 아셨는지 본선대회를 며칠 앞두고 소장님께서 참가를 허락해 주셨다.

당일 아침 교도소 직원 3명과 지프차로 5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차를 타서 멀미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너무 아파 점심도 못먹은 채 본선 행사를 치렀다. 본선 진출자들의 노래를 들어보니 화려한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고 반면 나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시밭 인생길에 쓰러진 나를 일으켜주신 부처님을 생각하며 있는 힘껏 노래를 불렀다.

모든 차례가 끝나고 시상식이 이어졌다. 우수상과 대상이 남을 때까지 내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려상 정도라도 받아서 돌아가면 애써주신 분들께 덜 죄송스러울텐데, 역시 지나친 기대였나'라고 생각한 순간,

"대상!"

"최봉종 작사, 최봉종 작곡의 '나유타'!"

우수상보다 먼저 '대상'이 발표되었을 때 그 이름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인 것만 같았다. 마치 꿈속의 일인 것만 같았다. 시상식을 마치고 어떻게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교도소로 돌아와서도 좋은 일은 계속됐다.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2002년에는 사회복지단체나 장애우들을 위한 위문공연도 가게 되었다. 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비록 보잘 것 없는 죄인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2003년 11월 27일 '귀휴'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제 4회 창작 불교음악제에 참가하라는 것이다. 행사내용은 제 4회 창작 찬불가 공모 입상곡들과 지금까지 '대상'을 받은 곡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 살을 꼬집어보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그날 밤을 뜬눈으로 지샜다.

'16년만의 외출'.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을 혼자 몸으로 나와 밝은 세상의 땅을 밟은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만인가.(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하용식
홍제중 교감

종교다른 학생 교화에도 정성다해
밀양불교대 설립에 앞장, 올 4월 개교

학교 법당을 개방하기로 하고 교학시간과 불교학생회 법회를 통해 법당에서 예절을 지도하고 참배할 것을 권장하였다. 예상 외로 아침 저녁으로 참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마침 표충사 주지 스님께서 양육하는 두 명의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집탁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자체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고마운지…. 나 자신도 동참하였는데 많은 학생이 예불에 참여하여 환희심이 일어날 정도의 분위기였다. 중학교 교법사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재학중인 이교도(異敎徒) 학생에 대한 지도이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추첨으로 본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종교수업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했다. 하지만 이들 이교도 학생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본교는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로 매주 수요일 부모님, 스승, 친지, 친척에게 편지 쓰기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스승님께 편지 쓰는 주에 많은 편지가 왔는데 대부분이 이교도 학생들의 것이었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불교 종립학교에 배정 받아 입학하게 된 것을 너무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학시간에 수업을 받고 보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편지 말미에 '교학 수업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말 오늘날까지 받은 편지 중 가장 감명 깊게 받은 편지였다. 이에 용기를 얻어 학생 지도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다 보니 오히려 별 어려움이 없었다.

1991년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교법사 자격증을 품수 받았다. 이제부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표충사를 비롯하여 밀양사암연합회 소속 각 사찰의 모든 포교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업무 시간 이외에 불교공부를 하며 나름대로 천수경 기도와 참선 정진을 해왔지만, 이때부터는 포교활동 자체에 몰입하는 일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께서 밀양에 불교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를 물어 왔다. 정무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용궁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밀양의 불교포교를 위해 과히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인재불사에 나선 분이다. "스님, 이번에 또 큰 일을 저지르려 하십니까?" 했더니 "큰일을 저질러 보렵니다" 하셨다. 평소 스님의 스타일로 보아 나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면 모든 것이 다 구상되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나는 스님께서 "큰 일을 저질러 보렵니다" 하신 말씀에 용기를 내어 밀양의 대덕 스님, 지역 신행단체장, 밀양의 저명 불교인들로 '밀양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본교 교무실에서 정무 스님과 함께 신도교육전문기관 인가신청에 필요한 11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포교원에 제출하고 실사까지 무사히 마쳤다. 드디어 밀양불자들의 숙원사업인 밀양불교대학을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4년 4월 15일 주·야 80명의 수강신청을 받아 개학하게 되었다. 수강생들의 열의와 진지한 면학 분위기를 보면서 '절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기에 일은 저질러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나도 인연 따라 이 호흡이 그치게 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수행과 포교를 위해 힘쓸 것을 발원해 본다.

석주 큰스님의 병풍

단 한번의 기회 !!
석주큰스님 글씨가 있는 팔상도8폭병풍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주어집니다.
1,000점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한정제작-

살아계신 한국현대 불교사로 추앙받고 있는 칠보사, 봉은사 조실 강석주 큰스님.
사대부중 모두가 존경하옵는 큰스님의 반야심경이
청곡화백의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여덟장면의 중요부분으로 그림에 옮긴 팔상도와 함께 양면표구되어 불자님들에게 보급됩니다.


(앞면)석주큰스님의 친필 반야심경(영인본)


(뒷면)청곡화백의 팔상도


김선원 선생의 사영수 도자기
KBS1TV 진품명품 고서화 감정위원이시며
이시대 최고의 서예가이시며 한학자이신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로 정성을 다하여
써주신 사영수 도자기. 7권(福), 봉황(福), 신구(壽), 용(龍)


고당스님의 친필 달마도
30년간 수행정진의 결정체인 고당스님의 달마도는
행운의 달마도로서 액운을 막아주고
상스러운 기氣를 발현시켜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달마도.
(※작품만 드립니다.)

팔상도8폭병풍(석주큰스님 반야심경)
매산 김선원선생의 친필 사영수도자기
고당스님 친필 달마도
860,000 → 395,000원

※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

보문복지원 대행 : (주)명성아이앤씨
문의전화 : 02-424-9901

의 義
- 당대(唐代) 제일의 법력과 필력을 가지신 석주큰스님의 좋은 글씨를 널리 알리고 여러사람이 소장하여 보고즐길수 있도록 함입니다.
- 부처님의 일대기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덟장면을 알기쉽고 친근한 그림으로 나타낸 팔상도를 널리 보급하여 불교의 진리를 체닫고 생활의 귀추가 되게 함입니다.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0. 보문사 산하 보문복지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KBS1TV 진품명품 감정위원이시며 이시대 최고의 한학자겸 서예가이신 매산(梅山)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 사영수도자기를 좋은일에 동참하시기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 우리나라 선서화의 대가이신 선필 고당(古堂)스님께서 직접 그리신 달마도를 내놓으셨습니다.

주장자따라…

⑱ 성철 스님의 '바가지를 밟아라'

조태호



성철 스님(1912~1993): 경남 산청 生.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1936).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1940) 읊음. 해인사 방장 · 조계종 종정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눈먼 거북, 절름발이 자라의 뜻은?'

문 선어록에 나오는 '눈먼 거북', '절름발이 자라'의 뜻을 일러 주세요. (ID '뜬봉사')

답1: '눈먼 거북', '절름발이 자라'란 말 그대로 완벽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전도몽상으로 헤매는 중생이 바로 이들이요, 안다고 해도 껍데기만 알아서 양변에 고루 머묾없이 머물지 못해 변견에 빠져 또 다른 분별과 집착에 얽매인 사람들이야 말로 눈먼 거북이요 절름발이 자라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주의에만 물들어 전체를 살필 줄 모르고, 깨우쳤다 하여 단공에 빠져 쓸어버릴 줄만 알았지 세울 줄 모르는 사람, 남의 말이나 행동에 빠지거나 이를 근사히 여겨 그저 제 소식은 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견해를 빗대어 절름발이 자라, 눈먼 거북라 합니다. (ID '나애꾸')

답2: 〈벽암록〉 제12칙 '동산(洞山) 마삼근(麻三斤)' 편에 '절름발이 자라와 눈 먼 거북이가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 골짜기에 떨어진 격이다(跛鱉盲龜入空谷)'는 송(頌)이 보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러한 답을 기다렸던 어떤 스님의 질문이 운문 스님의 살아있는 답을 만나자 의미를 잃고 가련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입니다. (ID '김성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㊷

교외별전(敎外別傳)- 2

가르침, 마음 전하기 위한 것

이심전심 일상 언어와 다른 듯

전호의 글 끝부분에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선종에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는 구호, 즉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구호에 흔히 따라 붙는 구절이다. 전한다고 하면 대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뜻인데,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 하면 과연 무엇을 전한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가르침'이란 좁은 의미로는 경전에 담긴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교외별전이라 하면 경전에 담긴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뜻이고,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상적인 어법에서는 이심전심이라 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속마음이 전달되어 알아준다는 뜻이고,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교외별전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요, 언어문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즉, 부처님이 가르침을 편 취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가르침을 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편 목적이 가르침을 전하는 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야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그 점을 힘주어 얘기하는 하는 것이 좀 우습게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선종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교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점을 망각하고 엉뚱한 데에다가 힘을 다 쏟고 있었다. 즉, 경전의 문구를 가지고 씨름하는 데 몰두하다보니 정작 경전에 담긴 가르침의 취지를 실천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 많은 설법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 것은 그 숱한 까다로운 개념이나 교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깨달은 체험이 아니겠느냐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선종 사람들이 힘주어 되풀이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무튼, 마음을 전하다니,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종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석가모니로부터 가섭(迦葉)으로, 그 다음에는 아난(阿難)을 거쳐 쭉 내려와 달마(達摩)로 이어지고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또 계속해서 등불을 전했다는 이른바 전등(傳燈)의 역사이다. 그 전등과 전심(傳心)은 아마 같은 것일 터이고, 그렇다면 이심전심이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마음은 곧 부처님으로부터 쭉 전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어떤 마음? 부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하면 흔히 그런 마음 또는 의기투합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선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의 마음은 아무래도 그런 것만은 아닐 듯하다. 선사들의 설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라는 말이고, 선사들이 말하는 마음이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과는 일단 좀 다른 듯하다. 예를 들어 〈마조록(馬祖錄)〉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으로부터 유래하며 모든 명칭 또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고, 모든 존재와 현상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一切法皆是心法 一切名皆是心名 萬法皆從心生 心爲萬法之根本)이라고 한 그런 뭔가 심각한 의미의 마음인 것 같다. 그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8〉



화엄경 입법계품

바른 안목 만이 환술 세계서 해탈케 해

지혜 · 자비 서로 의지하며 보살행 실천

선재동자는 최적정바라문으로부터 남쪽의 '묘한 뜻 꽃문(妙意華門)'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덕생(德生)동자와 유덕(有德)동녀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선재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그 성에 이르러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를 만나보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 때 동자와 동녀는 선재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우리는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였으니 이름이 '환술처럼 머무름(幻住)'이다.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모든 세계가 다 환술처럼 머무는 줄로 보나니 인연으로 생긴 탓이다. 모든 중생이 다 환술처럼 머무나니 업과 번뇌로 일어난 탓이다.

모든 세간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무명과 존재(有)와 욕망(愛) 따위가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는 탓이다. 모든 법이어서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나'라는 소견 따위의 갖가지 환술과 같은 인연으로 생기는 탓이다. 모든 세 세상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나'라는 소견 따위의 뒤바뀐 지혜로 생기는 탓이다. 모든 중생의 생기고 없어지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허망한 분별로 생기는 탓이다.

또한 모든 국토가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뀌어 무명으로 나타나는 탓이다.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지혜로 끊는 분별로 이루어지는 탓이다. 모든 보살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스스로 조복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여러가지 행과 원으로 이루어지는 탓이다. 모든 보살대중의 변화하고 조복시키는 여러가지 일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서원과 지혜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탓이다. 선남자여, 환술 같은 경계의 성품은 헤아릴 수 없다.

선남자여, 우리 두 사람은 다만 이 환술처럼 머무는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의 그지없는 일의 환술그물에 잘 들어가는 그 공덕의 행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하겠는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선지식이다. 두 사람의 선지식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법문을 함께 설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자비가 서로 의지함을 나타내는 것이니, 지혜는 덕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자비는 덕을 쌓음으로써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지혜와 자비의 행이 균등해서 더하고 덜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묘한 뜻 꽃문(妙意華門)'인 것도 묘한 지혜와 자비로운 실천 행을 꽃피우는 것이 모두 원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술처럼 머무름(幻住)'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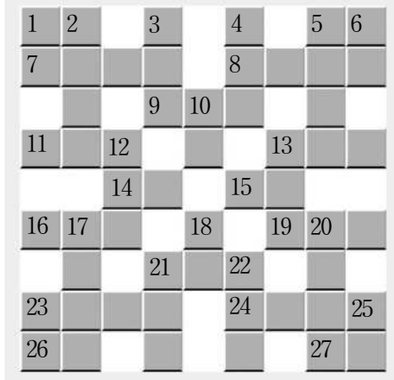
이들이 설하고 있는 '환술처럼 머무름'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 법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眼目)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문에서는 세계, 중생, 세간, 모든 법, 삼세(三世), 생로병사 우비고뇌 등이 모두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며, 또한 국토, 성문과 벽지불, 보살들의 여러가지 행 등도 환술처럼 머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들이 모든 세계의 일체의 것이 모두 환술처럼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보면 세계의 모든 것은 제각기 고유한 본성이 있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실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러 저러한 인연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일시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것은 모두 비실재인 셈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법문 중에서 '환술같은 경계의 성품은 헤아릴 수 없다'고 설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실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고, 존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는 존재의 세계의 미묘한 실상(實相)'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인연에 의해서 허망하게 모습을 짓고 있기 때문에 '환술처럼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아는 지혜가 환술과 같은 경계 속에 머무는 것도 또한 '환술처럼 머무름'인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안목을 지님으로 해서 비로소 진정한 보살행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미혹해서 이러한 실상을 모르는 중생은 세상 일체의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반대로 세상을 무조건 부정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보살은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존재의 있음(존재)과 없음(空)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떠한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일체의 선법을 부단히 지어가면서 자비로운 덕을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30면에

가로 1. 부처님 오신날 이것을 들고 제등행진을 함 5. 보고 듣거나 배워서 아는 지식 7. 미륵, 문수, 관음, 보현 보살 등 4분의 보살 8. 푸짐하게 차린 음식 9.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11. 등기소에서 등기해 두는 장부 13.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 14. 정리하여 치우거나 마무리를 지음 15. 일이 진행되는 속도 16. 교사 19.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되는 죄 21. 역대 선사들을 모신 전각 23.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동정하고 도움 24. 문화적인 판단력과 교양이 있는 국민 26. 국가 · 민족 · 사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 일하려는 포부를 가진 사람 27. 유행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세로 1. 연설을 하는 사람 2.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 3. 빛좋은 000 4. 엄청나게 많음 5. 자기의 본성을 철견하는 것에 의해 각자가 성불한다는 선(禪)가의 용어 6. 반찬 10. 들을 이룬 벌판 13. 부처님이 깨달음을 증득한 날 17. 인생의 4가지 괴로움 18. 선종의 법리를 통달한 스님 20. 독립하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도시 21. 동물에게 곡예 따위의 재주를 훈련시키는 사람 22.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23. 팥죽 먹는 날 25. 민중의 생활 감정이 소박하게 담긴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정수일 역주 | 학고재 펴냄 | 4만8천원

<왕오천축국전> 필사본.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돈황석굴 전경.

혜초 한민족 최초의 세계인

파리 국립박물관 원본 소장 이슬람학자 '깐수' 정수일 씨 국내 처음으로 역주서 발간

1908년 3월 중국 돈황석굴에서 프랑스 탐험가이자 동양학자인 펠리오는 제목도, 저자명도 모두 떨어져 나가고 없는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한다. 이 책이 바로 신라의 고승 혜초가 723년부터 4년간 인도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둘러 보고쓴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이다. 발견될 당시의 분량은 227행에 한 행이 30자 내외로 총 6천여 자 남짓이었고, 크기는 세로 28.5㎝, 가로 약 42㎝인 종이 아홉장을 이어 붙여 358㎝나 되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우리 책이자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한 유일한 기록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큰 주목을 끌었다.

집 떠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고향이라는 인지상정의 대명제가 혜초 스님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 필사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는 혜초 스님의 여정과 함께 고향을 그리는 마음도 구구 절절 담겨 있다. 혜초 스님은 '내 나라는 하늘가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일남에는 기러기 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라는 망향의 시를 읊기도 했다.

하지만 필사본의 저자가 여정길에도 신라를 그리워하는 한국인이었음에도 이 책은 우리에게 멀리 있었다. 원본이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었고, 그동안 나온 몇몇의 논문과 번역서로서는 이 책의 진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명 '무하마드 깐수'로 알려진 필리핀 국적의 이슬람 학자 정수일씨(前 단국대 교수)가 국내 최초로 역주서를 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씨는 기존의 연구서와 <대당서역기> <불국기> 등 관련서적을 총 동원하며 1년간 이 책과 씨름했다. 그 결과 원문 분량의 10배에 해당하는 503개의 상세한 주석과 해제를 붙여 읽기 편하게 재편집해 놓았다.

정씨는 이번 역주서에서 혜초 스님의 생애, 여행기의 발전 과정과 내용, 서역 기행의 노정과 문명사적 의미를 심고 원문을 내용에 따라 지역 단위로 40개를 구분해 번역문, 원문, 주석을 순서대로 배치했다. 책 뒷 부분에는 혜초 연표와 찾아보기를 넣었고 <왕오천축국전>의 정체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 혜립의 <일체경음의>중 필사본인 <혜초왕오천축국전> 부분을 발췌해 실었다. 특히 정씨는 이번 역주서에서 <일체경음의>에 주석된 어휘와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에 포함된 어휘 중 서로 일치하는 어휘수와 나오는 순서 등을 꼼꼼히 비교했다. 그리고 현존 <왕오천축국전>은 원래 세 권이었던 원본의 축약본이라고 결론 내린다. 또 <일체경음의>가 고른 주석 어휘의 빈도를 근거로 현존 필사본인 <왕오천축국전>에서 앞 뒤로 잘려나간 분량도 처음으로 추산했다.

혜초 스님이 여행한 경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많다. 하지만 정씨는 이번 역주서에서 혜초 스님이 중국 광주를 출발해 당시 아랍 제국의 중앙아시아 관할지이자 동방으로 가는 통로였던 니샤푸르(현 이란 동북부의 마슈하드)까지 순례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이 발달한 현재에도 결코 쉽지 않은 순례여행을 다녀온 모험정신 때문이일까, 혜초 스님에 대해 정씨가 "혜초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아랍제국을 밟은 사람이자 아랍을 뜻하는 '대식국(大食國)'이란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다"고 극찬한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 **"혜초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아랍제국을 밟은 사람이자 아랍을 뜻하는 '대식국(大食國)'이란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다."**

책을 펼치면 역주서답게 내용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어 읽기에 다소 힘겨운 느낌이 든다. 하지만 첫 장에 나와 있는 '혜초의 서역기행 노정도'를 오려 옆에 두고 책에 있는 여정을 따라 읽어 나가다보면 여행기 특유의 견문 체험에 대한 쏠쏠한 재미를 맛보게 된다. 4년간 가보지 않은 대장정을 떠났던 혜초 스님의 구도와 도전 정신에 비하면 450페이지 분량의 책을 편안히 앉아서 탐독하는 듯 중생의 인내는 미약하게만 여겨진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장자와 문명 김갑수 지음 | 논형 펴냄 | 1만7천원

중국에 관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공자와 맹자, 장자 등 중국철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특히 장자는 현실도피적인 인상이 강해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장자와 문명>은 장자의 사상을 철저하게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장자를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외면한 현실도피주의자,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한 극단적 개인주의자 혹은 관념적 유희를 즐긴 사람 정도로 자리매김하는 일반적인 관점들을 철저히 배격한다.

저자는 장자를 전국시대라는 역사 현장 속의 생존 인물로 설정해 놓고 그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된 사회경제적 지각변동과 함께 제자백가들이 속출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장자의 고민을 읽어내고 있다. 또한 무위와 유위라는 분석틀을 자연관, 인간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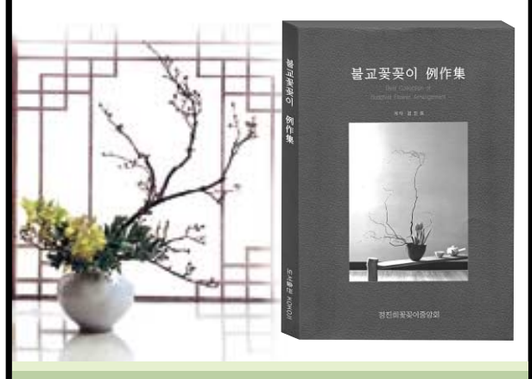
현실도피주의 장자 뒤집어 읽기

회사상 등에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장자철학의 사상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자연의 동의어로서의 무위가 인간과 문명의 대척점에 놓여 있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무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성공하였다. 장자의 무위는 사변적 유희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 그리고 장자에게 있어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 요청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위는 개인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저자는 현실적 요청으로서의 무위를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하면서 장자에게 혁명적 사회사상가의 옷을 입힌다. 다소 무겁게 생각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별 막힘없이 술술 읽어내려가게 하는 추진력이 이 책에서는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문장과 문장 그리고 각각의 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며, 그리고 전체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 논리로 한 지점을 향해 나가는 글의 탄탄한 짜임새에 기인하고 있다. 기존의 장자를 뛰어넘는 신선한 시각이 독서의 구미를 당기게 만든다.

■ **양희섭** (KBS 외주제작국 부장)

티벳 佛敎 성지순례
카일라쉬(수미산) 대탐사 24일/345만원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피안-다르첸-키일라스코라-구계왕국-마나사로베호수-피안-사가-라체-에베레스트BC-텅그라-니얌람-키트만두-방콕/인천
패키지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벳/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 6/3, 6/17, 7/15 ▸ 260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벳/네팔 12일
▸ 5/21, 6/18, 7/23, 7/30 ▸ 173만원
티벳/네팔/인도 23일
▸ 6/20, 7/4, 7/29 ▸ 239만원
티벳 전문 혜초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불교꽃꽂이 예작집


* 저자 : 정진희(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강사)
* 내용 : ● 상단꽃꽂이 ● 예작편(例作) ● 영단꽃꽂이 ● 禪(zen) 꽃꽂이 ● 다화(茶化)
이 책은 누구든지 보고 따라하기 쉽게 제작 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011-730-6845 011-280-0537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36-07-038816 예금주 : 정경란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4년 5월 6일(목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중국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연수
연수목적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 생업의 소득증대와 해외이민시 병, 의원의 설립과 유학시(편입), 포교사파송시(의료포교)
W.T.O 개방에 대비를 위한 연수입니다.
연수학교
중국 요녕성 중의연구원 (심양시)
연수기간
2004년 5월 25일 - 5월 29일 (4박 5일)
연수과목
중의침구학, 중국특수침법, 비만침법, 미용침법, 피부관리침법, 침구진단, 경락경혈, 단혈치료
연수 설명회 및 신청
2004년 5월 9일(일) 오후 2시~5시
중국 연수 유학 전문 중국 문화원
02)456-4248/016-221-4516
후원 : (주)관광포럼여행사

현정스님의 念佛禪
그리움의 노래
백날을 하루같이 부처님이 그리워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빈도의 佛心을 담은 그 노래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열성을 보내고 있는 불자님들에게 부처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다시한번 「그리움의 노래」를 바칩니다.
아직까지 그리움의 노래를 만나지 못한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를 부탁 드립니다.


테이프 전면에 「그리움의 노래」후면에 「선근인연가」「부모은중가」「불전참회가」「회향산회가」등 주옥같은 법문이 염불송으로 녹음되어 테이프+책=5천원에 전화주문 받고 있습니다.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 (금산정사) [2개이상 우송]
불교의 우리말화 실천도량
금산정사
061-843-8822

혜능 나무꾼에서 '마음 혁명가'로



육조 혜능 평전
이은윤 지음
동아시아 | 1만2천원

그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다.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거나 암송하지도 않았으며 단 8개월 동안의 행자생활 기간에도 방아를 찧고 장작 패는 일을 한 것이 수행의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육조 혜능'이라 부른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祖師) 조계혜능(曹溪惠能, 638~713) 스님의 평전이 나왔다. 지은이는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기자 이은윤 씨. 한국불교선학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씨는 "혜능 스님은 동아시아인의 마음밭(心田)에 선(禪)의 씨앗을 뿌린 '마음의 혁명가'"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은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개방화 물결을 타고 중국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선불교 연구가 불학(佛學)적, 선종사적 측면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평전을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혜능 스님이 정식 출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종 6대 조사라는 지위에 오른 것은 통념과 전통을 깨는 이변이었습니다. 또한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길에 귀한 자와 천한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혜능의 선사상은 중국 고대 사상 중 가장 격렬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혜능의 선사상은 단순한 하나의 불교사상이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사상이 종교 형식을 빌어 표출된 '혁명사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 등 핵심 설법

민중 해방운동의 사상적 의지처로 해석

이러한 시각에서 지은이는 혜능 스님의 선사상이 성립 · 발전하게 된 사회사적 측면으로까지 시선을 넓히고 있다. '인간 각자가 스스로 본래의 깨침을 이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自有本覺性)'거나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卽心卽佛)'라는 혜능 스님의 가르침은 당시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억눌린 자들이 갈구하는 해방운동의 사상적 의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혜능의 선종 창립은 선종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와 중국인들의 일상적 삶에 심원한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해방사상의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부 '혜능의 생애'에서는 혜능 스님의 탄생과 출가, 5조 홍인 스님의 인가와 남방에서의 은둔생활 등을 담고 있다. 생애에 관한 이견(異見)이나 연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쟁점' 코너에서 여러 견해를 소개한다. 2~5부에서는 혜능 스님의 사상을 짚어본다. 법을 전수 받게 되는 계기가 된 득법게(得法偈)와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날리는 것은 바람이나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풍번(風幡)문답' 등의 게송의 뜻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짚어본다.

6부 '혜능과 모택동'에는 "혜능 스님은 전통적인 우상과 계율을 부정하면서, 용감하고 독창적인 혁신을 통해 중국 실정에 맞는 외래 종교의 중국화를 이룩했다"고 평가한 모택동 전 주석의 '혜능관'과 불교 인연을 담았다.

7, 8부에서는 혜능 스님의 일생과 설법을 수록한 <육조단경>을 다루고 있다. 남종선의 기본 입장과 특징을 보여주는 근본자료인 <단경>의 성립 배경과 제작의도, 명칭의 성립, 개작(改作)설 등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혜능 스님이 5조 홍인 대사 문하로 출가해 행자시절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던 중국 호북성 용미처의 디딜방아.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혜능상(像).
사진제공=동아시아

새로나온 책



■ **<소태산 박중빈 1, 2>**(이혜화 지음, 동아시아, 각9천원)=지난 4월 28일 89회 대각개교절을 맞아 펴낸 원불교의 창교자 소태산 박중빈(1891~1943) 대종사의 전기 소설. 전남 영광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소태산이 자연현상과 인생에 대한 의문을 품고 발심해 20여 년간 구도 고행을 계속한 후,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한인숙 엮음, 동문선, 1만원)="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살도 속에 파묻어 버리는 공부부터 시작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을 봐야 합니다."(월운 스님, 신동아 2001년 6월호) 198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500여명의 화제의 인물 인터뷰 속에서 그들의 철학이 담긴 말들을 가려 묶었다. 성현이나 대학자들의 명언 · 격언이 아닌 실제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 **<일원곡 지장경>**(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펴냄, 법공양판)=경기도 광주시 우리절(주지 동봉, www.urijeol.com)은 '일원곡(一圓曲)' 시리즈 아홉 번째 권 <지장경>을 법공양판으로 발간해 무료로 배포중이다. <지장본원경>을 사구체 우리말로 풀이했다.(031)763-4674

게송 읽다보면 가르침 가슴에 '쏙'



숫타니파타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3만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번 쯤은 읊조려봤을 <숫타니파타>의 한 구절이다. 최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51 · 사진) 박사가 '불교 최고(最古)의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팔리어 원전을 번역해 펴냈다. 그동안 일본의 석학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의 번역서를 다시 우리말로 옮긴 책은 수차례 선보였지만 원전이 직역돼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박사는 이번 책에서 2,581개의 주석을 통해 경전이나 시의 성립배경에 대한 유래를 세밀하게 밝혀 놓았다. 특히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 독어 일어 등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틀린 곳을 찾아내고, 어원학적 · 운율학적 분석도 더했다.

"<숫타니파타>는 부처님의 육성을 적은 가장 오랜 경전입니다. 인도에서 해독 가능한 가장 오래된 비문인 아쇼카왕의 비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이 <숫타니파타>에 들어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숫타니파타>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초기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經)의 모음집'이란 뜻의 <숫타니파타>는 모두 1149개의 게송(偈頌)으로 이뤄져 있다. 게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와 짧은 글귀로 정리해 암송하기 쉽도록 만든 것으로, 어려운 불교용어나 철학적인 개념이 없어 일반인에게도 널리 읽힌다.

숫타니파타 원전 첫 한글 직역

2500 주석 통해 경전 유래 서술

특히 '이미 생겨난 분노를 극복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나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한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다' 등의 구절은 탁월한 비유와 설명으로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수령 기자

언제나 상대방 마음 먼저 헤아리거라

꼬마 판다의 깨달음
요네야마 가즈토 글
다나베 히로시 그림
세등 스님 옮김
BB아이들 | 6천5백원



5월 5일 어린이날,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할 계획이세요?

만화책 <꼬마 판다의 깨달음>에 펼쳐지는 꼬마 판다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꼬마 판다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내일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면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러나 그 전에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꼬마 판다는 다음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 길 잃은 아기 양과 배고파 쓰러진 곰, 배가 아파 도움을 청하는 고양이를 만나지만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꼬마 판다는 약속 시간에 도착했지만 부처님은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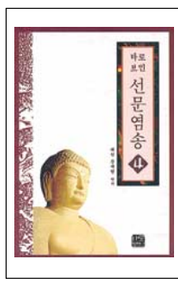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는데도 모른 척 지나친다면 그 곳에는 나의 가르침이 없는 것이란다. 언제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이들이 네가 전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 줄 것이다."

이제 꼬마 판다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을까요?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문의:(02)737-0695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3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 림
4	무문관 강송	김 광 하	운 주 사
5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 낫 한	장 경 각
6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 경 각
7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부
8	아! 붓다	틱 낫 한	반디미디어
9	밥상에 도가 있다	정 세 채	모 색
10	묻지 않는 질문	현응 스님	민 족 사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4권 출간 〉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선문염송 매 칙마다 도움말과 송으로 취모검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중이 숨어있는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 www.zenparadise.com
☎ 02-597-2460 도서출판 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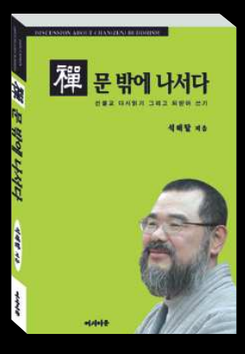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禪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사들의 선문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이 「선,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패치워크)처럼…

- 본문 중에서

신국판 / 456면 / 14,000원 / 석해탈 저 / 여시아문

「금강경」 해설의 3대 법사는 해안 스님, 백성욱 박사, 석해탈 스님, 이 세 분이 꼽힌다.
– 현대불교신문 2544년 6월 21일자 275호 지묵 스님의 글에서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Tel : (02)737-8881(代) / Fax : (02)737-0696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⑩

주제 :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내 안의 부처 등지고



"참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까 거기서 공부가 시작 되더군요." 현웅스님은 화두 공부에 앞서 그동안 알고 있던 알음알이나 깨달으려는 생각조차 방하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웅 스님
지상 백고좌
(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

내가 알고있는 불교 버리면 내 안에 부처 있음을 직관

참으로 큰 법문은 법상에 있는 법사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야기 할 때나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진수이고 가장 큰 법문인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법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안에 들어 와 조계사에 와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구조가 고정 관념에 의해 막혀있으므로 관념의 뿌리가 비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의식이 열려 그때서야 눈과 귀가 열려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옛 선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빼앗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참 있다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이 와 닿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알쏭달쏭 하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안의 부처를 만나려거든 네가 알고 있는 부처를 잊어버려라 고 말합니다. 여러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야 불교를 알 텐데 왜 불교를 잊어버리라고 말하는지 궁금할지 모르나 이것이 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나서 일체 중생을 둘러 보니 모든 중생이 자기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안의 부처를 등지고 바깥에서 자기가 알아서 만든 부처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병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사들은 너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빼앗으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인연법 알면 나를 집착않게 돼

불교는 자기 관념이 지워져 버릴 때 불씨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알아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앎이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의 자성불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부처인지도 모르고 헛것을 좇아다니기에 선사들은 허상을 뺏어 버리겠다는 뜻으로 주장자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주장자가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면도칼 보다도 날카롭게 마음의 어리석음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어만 달랐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선과 교를 구별하는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천수경>에 '아약향도산(我若向刀山) 도산자최절(刀山自催折) 아약향화탕(我若向火湯) 화탕자소멸(火湯自消滅) 아약향지옥(我若向地獄) 지옥자고갈(地獄自枯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칼산 지옥에 내가 가면 칼산이 절로 무너지고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이 절로 없어지고 모든 지옥에 가면 지옥이 절로 말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법회 때마다 <천수경>을 그냥 외우지만 선승에게는 그대로 선법문입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어리석음을 없애고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면, 칼산을 만나면 칼산이 없어지고 지옥도 극락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음을 경험하여 칼산이 비어있음을 만나면 그 칼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지옥 또한 그렇지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경계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나의 참 주인이 되면 동대문 시장에 가 있어도 시장 상인들이 불보살이 춤추는 집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끌벅적한 시장이 아니지요. 내가 가는 곳이 극락이고 그 세계가 바로 불국토이는 생각이 안 일어나서 본성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설파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불교가 너무 교리적인 입장에 집착되어 있기에 불교가 불교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 깨달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팔정도' 입니다. 그렇게 보면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선을 가르칠 수 있을까가 최근 저의 화두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선은 생활속에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20년간 여러 선방에서 수행을 했고 이후 이후 서양에서 20년간 포교하며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 문명사회에서 불교가 필요한지 확연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방향도 없이 서양의 물질문명의 그림자를 좇고 있고 물질만능주의를 배우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물질에 대한 회의로 그 해답을 불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양을 향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한편으로는 정신적 만족을 희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처가 자신 안에 있다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활속에 불교가 있음을 확연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깐 중생이 사는 생활이 불교를 전혀 안 떠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선불교는 현실과 괴리되어 뒷방에서 앉아 혼자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 제3 수행법이라고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스승 믿어야 의정끊을 힘 생겨

'묻고 답하기' 현장

▲선수행을 많이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바로 들어가야지 옆이나 짐작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꼭 깨달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많이 한다, 많이 했다는 생각은 선과 멀어지는 것이므로 생각을 바꾸세요.

▲저의 경우 화두 참구를 하다보면 화두 염불이 되는 것 같고 사량분별에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할 때 그런 의심이 들 때는 내가 혹시 혼자 공부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절대 혼자 붙들고 있으면 공부가 안됩니다. 스승을 바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스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사들과 불조를 믿는 길로 연결됩니다. 그래야 의정을 끊을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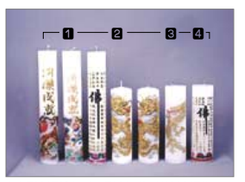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든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야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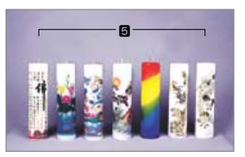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외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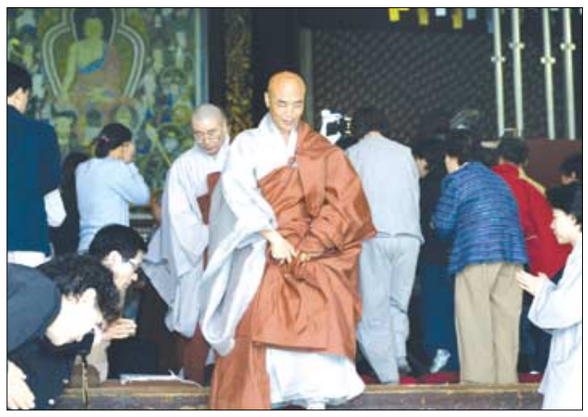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4월25일-조계사 대웅전)

바깥에서 무얼 찾나

그러나 올바른 살아있는 선은 생활속에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밥 먹을 때나 시장 갈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항상 그 자체가 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좌선할 때도 시끄럽다거나 방해된다 주위를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좁고 협소하고 너그럽지 않고 융통성이 없다면 불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처를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이 내 마음을 가려서 조그마한 불교를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부처를 버리면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눈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손으로 일을 나누면 그것이 참 불교입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에 주눅들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앉아 참선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수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 진리가 있음을 경험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인사에서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정진을 10여 년 동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화두도 버리고, 깨달으려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까 거기서 공부가 시작이 되더라구요.



'생활속에 선이 있다'는 현웅 스님은 일상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라고 당부한다.

수행은 스승믿는 마음서 시작

수행은 스승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스승을 믿어야 내 생각을 안 내게 됩니다. 생각을 안 내다 보니 아상이 없어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연이 됩니다. 거기서 화두를 조금만 해도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불성이 있으니 나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앉아서 수행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 공부가 늘지 않습니다. 스승을 믿어 버리면 항상 스승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감히 삿된 생각이나 알음알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내 안의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모두 깨달음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나올려고 하면 관념의 생각들이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부처의 싹이 나오려 하다가 뭉개지고 뭉개지고 하기를 수 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오며 살아 왔던 것입니다.

전강 스님이 수원 용주사에 계셨을때 저는 큰스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매일 새벽 법문을 하셨는데 하루는, 육조혜능 스님과 남악회양 스님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제가 그 말에 그냥 팍 놓아지더라구요. 그리고 20년간 제방에서 공부했던 것을 돌아보니깐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전강 스님께 여쭤 보니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아침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물 항아리 밑이 깨져 나가는 것을 경험 했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오더라구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 보임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생활 속에서 변화가 와서 어리석음이 자각으로 바뀌지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면서 성격도 고쳐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러고 나니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적어지더라구요.

여러분도 스승을 믿으세요. 제 경험으로는, 믿음이 없을 때는 스승의 법문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지만 믿고 난 뒤부터는 하찮은 말이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없애 버리고 아만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만이 없어지니 마음속의 불성이 되살아나 의심이 생기고 화두를 들면 의심이 끊어져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생활 속에 불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매일 새롭고 생활의 변화가 와요. 날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선사들의 어록을 한번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세요. 그러면 세상 모두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 확연해 질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서양에선 정신적 만족 불교서 찾아

현웅(玄雄) 스님

1967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8년 사미계를 받았다. 71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경봉, 성철, 구산, 전강 스님을 모시고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1986년 미국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창건한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현재 미국 버클리 육조사에 주석하며 해외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5월 서울 가회동에 육조사를 창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참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문답집<묻지 않는 질문>(민족사 펴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현웅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8>



지팡이보다 못한 불효자

자식들은 어버이가 건재할 때는 고마운 줄 모르고 지내다가 세상을 뜨고 나면 불효를 후회한다. 자식을 낳아 길러 봐야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어머니는 아이를 회임하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참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몸가짐을 조심한다. 출산 때 엄청난 고통을 받아 견딘다. 갓난아이의 똥오줌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치운다. 맛있는 음식을 자식에게 먼저 먹이고 자식이 병 나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듯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정은 유별나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걱정한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부모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럼에도 부모에 효양의 마음을 잊고 소홀히 하는 자가 많다. 장수사회가 되었지만 효심이 부족해 부모가 있어서 불편해 하며 늙은 부모를 내버리는 일까지 있으니 착잡한 심경이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해도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효자를 바로 잡아 준 이야기가 <잡아함경>에 전하고 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부처님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국에 들어가 걸식하셨다. 이때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 어떤 바라문이 지팡이를 짚고 그릇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밥을 빌고 있는 노인을 보고 물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쇠약한데 왜 지팡이를 짚고 발우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걸식하고 있습니까?" 노인 바라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집에 있던 재물을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며느리를 들인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로한 바라문을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당신은 내게서 계송 하나를 받아 외워 대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당신의 아들을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낳고선 마음이 기뻤고,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 아들 위해 며느리를 들인 뒤에 나는 그것 다 버리고 집을 나왔네. 외지고 궁벽한 시골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등지고 피하니, 사람의 얼굴에 나찰의 마음이네, 그는 늙은 아비를 버렸네. 늙은 말처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 먹이까지 빼앗았으니, 아들은 젊지만 아비는 늙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빈다네. 구부러진 지팡이가 제일이요. 아들은 사랑할 것 못되니, 나를 위해 사나운 소 막아주고, 험한 곳을 면하여 편안케 해주며, 사나운 개를 물리쳐 주고, 어두운 곳에서는 나를 붙드네. 깊은 구덩이나 빈 우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가시밭을 피하고, 지팡이의 위력을 의지한 덕택에, 꼿꼿이 서서 넘어지지 않는다네."

바라문은 이 게송을 기억한 뒤에 바라문 대중 가운데로 돌아가 그 아들을 두고 대중들에게 위에서 말한 게송을 읊었다. 그 아들은 부끄러워 하며 곧 그 아버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몸을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힌 뒤에 정성스럽게 모셨다.

다행히 오늘 살펴본 경전에 나오는 아들은 불효의 죄를 뉘우치고 연로한 부친을 잘 받들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은 소비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자식들은 자신의 부모조차도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 불효자를 부처님은, 인간의 탈을 쓴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꾸짖었다.

"부모의 은혜 천만년 공양해도 못 갚는다"
불효자, '인간의 탈을 쓴 마귀'라 꾸짖어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지를 가르치고 있다. "부모의 은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여도 다 갚을 수 없다. 자식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은 채 천만년 동안 옷, 음식, 약 등으로 공양하여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모님 덕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해와 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은혜는 막중하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항상 공양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부모의 은혜를 갚기 어렵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고 불효자가 많은 것도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에선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자식을 많이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직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생활에 쫓겨 마음 속으로는 부모에게 효행하고 싶어도 여러 장애로 어버이 시중을 들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주 뵙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전화로라도 안부를 여쭙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건재해 계시면 진심으로 효양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해 드리는 것이 불교인의 진정한 효라 할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훰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입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밝아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공연

꿈나무 명창 소리자랑 들어봐요

국립극장 5·6일 어린이·청소년 국악공연



어린이 창극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이야기'의 한 장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 공연이 5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펼쳐진다. 5월 어린이·청소년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5일 어린이 창극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이야기'와 5일, 6일 전국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판소리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명창', '차세대 명창'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이야기' 공연은 청소년 성교육센터 '아우성'의 구성애 소장 자문으로 우리의 고전 <춘향전>의 참뜻을 되살리고 사랑에 눈뜨는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고민과 마음을 진솔하게 담았다. 또한 인기리에 종영됐던 텔레비전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을 부른 백보현 양 등 실력 있는 소년소녀 명창들이 참가해 재미를 더 한다. 으뜸석 2만원, 버금석 1만원. (02)2274-3507

전시

숫구치는 萬馬의 기상 화폭에

롯데호텔 4~9일 지형 스님 길상도전

10년동안 길상도만을 화폭에 담아온 지형 스님(서울 소림정사 주지)의 '대길상도전'이 5월 4일부터 9일까지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 전시관에서 열린다.

9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힘차게 도약하는 말의 기상을 표현한 '만마장성도(萬馬長城圖)'(사진), 우주를 향해 달리는 말을 표현한 '우주의 탄생',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도화도' 물고기의 역동성을 잘 나타낸 '용궁보장 대길상' 등 150여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구양순체와 왕희지체를 필사한 서도작품도 다수 벽에 걸린다. (02)511-6210



인사동 전통축제로 오세요

1~9일 고미술·도예·목공예 잔치 곳곳서 열려

"덩기덕 쿵덕~♬." 행사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통가락의 리듬에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종로구와 (사)인사문화전통문화보존회가 5월 1일부터 9일까지 인사동 문화거리에서 개최하는 '인사전통문화축제'.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미술 명품 큰잔치', '예술과 차와 음악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전통문화 공연', '도예시연', '목공예 시연', '한지 공예' 등의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의 향취를, 아이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 체험과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기회. 행사 프로그램뿐 아니라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거닐며 구석구석 즐비하게 늘어선 화랑, 필방, 골동품점, 민속공예품점 등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조상의 숨결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02)737-7890

김은경 기자





'고미술 명품 대잔치'에 출품된 불상과 백자접시(위). 외국인들이 인사동 골동품점을 둘러보며 즐거워하고 있다.(오른쪽)

■ 행사 프로그램

구분	일시	내용	장소
5.1~9	하루 종일	선현 명구 및 가훈 써주기(서예대가 송전 이홍남과의 만남, 가훈 및 명시 써주기 등)	인사동 37번지
5.1~9	〃	축제 전시장(인사동축제 화랑·고미술상설·전통공예 전시관)	관내문화업소 50개소
5.8	13:00~14:00	전통혼례 남인사마당	인사동길
	14:00~16:00	전통무용, 품바공연, 즉석노래마당	남인사마당
	16:00~17:00	포도대장과 순라군	남인사마당
5.8~9	하루 종일	도예시연(시민이 참여하는 물래시연, 어린이 토우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등)	인사동사거리 덕원갤러리 앞
	〃	초상화, 그림 그리기(유명화가와 시민과의 만남, 초상화 그려주기 등)	인사아트프라자 앞
	〃	목공예 시연(나무그릇 깎기, 전통 칠기문화 재연, 생활목기류 전시 등)	수도약국 앞
	〃	투호놀이(어린이 투호놀이, 외국인 체험마당 등)	수도약국 앞
	〃	낙안마을 문화행사(떡메치기, 가마짜기, 길쌈, 다듬이질 등)	대일빌딩 앞
5.9	13:00~16:00	전통무용, 남도민요, 부채춤, 즉석노래자랑	남인사마당
	16:00~17:00	포도대장과 순라군	남인사마당
5.9	하루 종일	그림치료 행사(시각 언어로 자기발견, 창의적 삶의 증진 등)	인사문화마당

극장가



효자동 이발사 / 드라마 / 116분
개봉예정일: 5월 5일
감독: 임찬상
출연: 송강호, 문소리 등
평범한 이발사가 어느 날 대통령의 이발사가 되면서 그와 가족들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그린 영화. 3·15부정선거, 4·19혁명 등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사회를 소시민인 이발사의 눈을 통해 돌아본다. 특히 당시 부조리한 정치사건들의 묘사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냈다. 이발사 역의 송강호, 이발사 아내 역할을 맡은 문소리의 호흡 또한 기대된다.



막달레나 시스터즈(The Magdalene sisters) / 드라마 / 119분
개봉예정일: 5월 14일
감독: 피터 뮬란
출연: 제라르딘 맥이완, 앤-마리 듀프, 노라-제인 눈 등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수녀원은 고아원 출신이나 가족이 버린 여성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이곳의 실상은 힘없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노동과 속죄를 강요한다는 것. 영화는 960년대를 배경으로 막달레나 수녀원에 감금된 4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 드라마 / 87분
개봉예정일: 5월 5일
감독: 홍상수
출연: 유지태, 김태우, 성현아 등
영화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낸다는 홍상수 감독의 5번째 작품. 7년 만에 만난 대학 선후배가 그들이 사랑했던 여인을 무작정 찾아가면서 생긴 헤프닝을 그렸다. 국내외에서 작가주의 감독으로 인정받는 홍 감독의 작품답게 개봉 전 이미 제 57회 프랑스 칸느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대본없이 즉흥적인 상황 연기도 이뤄졌다.

어르신들 잔치에 초대합니다

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다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신나는 잔치가 벌어진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대강당에서 펼치는 '효'-사랑나무기 한마당이 바로 그것.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또한 아름다운 청춘을 찾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및 추억의 운동회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다.

첫째날 7일에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훌륭한 어버이상 시상과 경로잔치 등이 흥겹게 펼쳐진다. 이튿날인 8일에는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주제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만남의 장이 진행된다.

또 14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추억의 운동회-건강은 행복을 싣고…'라는 내용으로 유년시절에 즐겼던 추억의 체육대회와 각종 공연 및 단체댄스 타임이 마련된다. (02)2201-1333

또한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02-385-1351)도 5월 7일 관내 강당에서 '제32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진행하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강남구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같은 날 서울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능인어르신 한마당'을 개최한다.(02)571-298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연	등		개		무		견	식
사	대	보	살		진	수	성	찬
	지		구	들	장		성	
등	기	부		판		성	불	도
		처	리		진	도		
선	생	님		선		절	도	죄
	로		조	사	전		시	
동	병	상	련		문	화	국	민
지	사		사		가		가	요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05 불교강좌
10:05 BBS 신행상담실
13:00 뉴스
15:05 음악의 마을
18:00 저녁예불
20:05 다시듣고 싶은 노래
00:00 세계음악여행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5일 09:20 혜거 스님의 선특강
6일 15:20 건강이 최고
7일 08:20 정명조 교수의 불교와 현대사회
8일 09:20 다시듣는 법문
9일 07:50 참선요가
10일 08:20 열린마당
11일 12:10 향토음식기행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세계음악여행(5월 9일 0:00~02:00)- 음악 칼럼니스트 강민석 씨의 진행으로 제 3세계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남유럽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나 중앙아시아 고원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국가, 장르의 곡들이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 불교TV 메디컬 건강이 최고!(5월 6일 15:20~16:00)-이날 방송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젊음유지 비결, '주름제거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과 함께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매직 주름제거술'에 대해 알아본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윤장대 은(銀) 핸드폰걸이

윤장대는 경전을 넣는 책장의 일종으로 책장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전해진다. 윤장대 은(銀)핸드폰걸이는 중심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의지해 원형 혹은 다각형의 나무장을 올린 뒤 경전을 넣고 손잡이로 돌릴 수 있는 실제 윤장대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었다. 재질 은, 가격 2만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불교원전강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각원이 매주 목요일 산스크리트경전강독반을 운영한다. 강독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김성철 교수가 진행한다. (02)765-9602

지문 스님 초청법회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가 5월 15일 오후 5시 경남 양산 용주사 지문 스님을 초청, 재가불자들의 자세와 포교방법 등을 주제로 '초청법회'를 진행한다. (02)732-1206

서울 전통문화 이해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제5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과정은 '서울 전통문화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 고고학적으로 본 백제의 건국화정, 한국의 불교회화 등으로 총 10주 동안 10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수강료 무료. (02)724-0191

함께 해요

사진으로 보는 옛모습(사진) 국립중앙박물관이 4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관내에서 1950~70년대의 민중생활을 담은 사진전시회 '가까운 옛날-사진으로 기록한 민중생활'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형록, 김기찬, 쿠와바라 시세이 등의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02)398-5000



일본인 위안부 진혼제 임흥희 창작무용 '일본인 위안부를 위한 진혼제-꽃은 피어 웃고 있고'가 5월 6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진다. 종군 위안부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종군 위안부들을 위한 진혼제도 치러진다. (02)580-3037

국제시민걷기대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www.unicef.co.kr)가 서울시와 함께 5월 9일부터 식수부족과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시민걷기대회-맑은 물, 지구촌의 생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장충단공원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진행되며, '맑은 물'을 주제로 한 사진전, 놀이마당 등으로 꾸며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02)735-2315

학교집단상담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5월 6일과 7일, 인근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상담은 성격유형과 관련직업, 희망직업 알아보기, 적성과 직업, 진로계획 및 준비 등으로 진행된다. (051)868-0750

창업준비물 무료제공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이 창업이나 사무실 공간에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사무실공간 및 사무기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30~40대 실직 장년층이면 신청가능하다.(02)423-7306

전쟁기념관 무료개방 전쟁기념관이 제8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내외 전시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필통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 오전 9시 30분부터는 어린이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미니카를 증정, 트랙에서 미니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02)709-3114

전통음식 배우기(사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가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치, 장아찌, 장, 떡, 한과 등 6개 분야별로 '전통음식상설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각 분야별로 매주 1차례 운영되며, 기능보유자의 강의와 개별 실습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02)3462-5704



건강기능식품법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5월 한달동안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모임에서는 지난 1월 말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영업 허가신청 절차 및 표시기준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뜨락 콘서트 시흥시가 5월부터 놀이터, 마을회관, 학교, 소공원 등지에서 '뜨락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에서는 국악, 성악, 기악, 무용,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으며, 연주자들은 모두 아마추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031)310-2472

동물원 시간여행 과천 서울대공원이 개원20주년을 맞아 4월 26일부터 1909년 창경원시절부터 현재 서울대공원에 이르기까지 '100년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역사 시간여행' 사진전을 개최한다. (02)500-7241

골다공증 무료검진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전국31개 병원이 5월 3일부터 한달간 무료 골다공증 검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정병원을 찾는 60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든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의 골다공증 관련 강의와 무료 골밀도 측정도 받을 수 있다. (02)527-5114

즐겁게 떠나요

어버이날 특별기행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어버이날을 맞아 5월 9일 안동 하회마을로 특별기행을 떠난다.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양반가옥과 서민주택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으로, 기행단은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백미 병산서원 만대루와 하회별신굿 탈춤공연 등을 관람하게 된다. 성인 3만 8천원, 어린이 3만 3천원. (02)725-1284

5~6월은 차밭기행의 달

차香가득, 가족愛 푸릇 푸릇

차 향기 가득한 5월이다. 요즘 남도의 차 재배 농가에는 정성스레 찻잎을 따서 말리고 무쇠솥에 덖는 손길이 분주하다. 차 생산기인 5~6월이면 굳이 차인이 아니더라도 차밭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 하지만 드넓게 펼쳐진 차밭만 보고 돌아온다면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직접 차 만들기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곳을 살펴본다.

야생 작설차로 이름 높은 전남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이 다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백운산 야생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백운산 기슭에 자리한 다압면에는 12개 마을 250농가에서 작설차를 재배하고 있다.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관내 옥룡면 동곡리 답곡마을 이순영 씨 차밭을 비롯, 옥룡 · 진상 · 다압면 등에서 수제차 제조과정 체험과 생활다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차 만들기 체험은 1박2일 코스로 운영되며 완성된 녹차는 농가에서 마무리해 해당 가정에 배달해준다. 참가비용은 1인당 1만원이며 생엽을 구입할 경우 찻잎값은 별도로 받는다. (061)797-3324.

광양시 **다압면 다압농협**에서도 녹차 체취와 제다를 체험할 수 있는 '녹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가족 단위 신청자가 많으며 1일 과정으로 찻잎 따기, 차 만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061)772-4006.

전남 해남군 북일면의 **설아다원**은 5~6월 동안 '전통 차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곳에서는 유기농으로 지은 찻잎을 직접 따서 차를 만든 후 다원 내 마련되어 있는 다실에서 자신이 만든 차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제다공장 견학과 차 마시는 예절을 배워보는 '다례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떠난다면 인근 대흥사와 일지암, 다산초당 등도 연계해 둘러볼 만 하다. 자신이 만든 차는 가져올 수 있으며 일반 2만원, 학생(중등 이하) 1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061)533-3083.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에 가면 무려 22만평에 이르는 야생차밭인 '징광다원'이 있다. 이곳 **징광다원**에서는 전통수제차 제다공방 뿐만 아니라 천연염색과 징광옹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작업공방이 마련되어 있다. (061)857-5064.

국내 최대의 차 생산지인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은 녹차 재배하는 농가가 1천여 곳을 헤아리며, 무료 차 시음장과 체험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다원도 많다. 그 중 여러 드라마와 CF 등으로 유명한 대한다업의 보성다원과 전국적으로 차 시음장을 갖추고 있는 화개제다 등이 유명하다.(표 참조) 여수령 기자

차 체험 가능한 곳

경 남	전 화
고려다원	055-883-2270
도심제다	055-883-2252
만수제다	055-883-1696
명인다원	055-883-2216
매암다원	055-883-3500
쌍계제다	055-883-4229
화개제다	055-883-2233
한밭다원	055-883-2288
효월수제차	055-882-6247
전 남	**전 화**
광양 다압농협	061-533-3083
광양시 문화홍보실	061-797-3363
남도야생차지기	061-721-3752
동양다원	061-852-2255
동양다원 영농조합	061-857-5064
대한다업	061-852-2593
보성제다 영농조합	061-853-4116
봇재다원	061-853-1117
해남 설아다원	061-533-3083





청주불교방송 '조선 찻사발전'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의 개국 7주년 및 사옥이전 기념 특별전 '500년 만의 귀향-조선 찻사발전'이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청주시 한국공예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는 오다노부나가와 함께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다케다신겐(武田信玄) 장군이 사용했던 찻사발을 비롯해 조선 찻사발 50여 점이 전시된다. 개막날인 8일 오전 11시에는 일본 노무라 박물관 학예부장 타니(谷) 씨와 고려미술관 김파망 씨의 강연회도 열릴 예정이다.

지원 스님은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반출된 후 5백년 만에 돌아온 우리 도자기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043)294-5114

용화사, 세계승가 조사다례식

불법을 이어온 세계의 일체조사에게 차(茶) 공양하는 '세계승가 조사다례 및 묵담문도 건당식'이 4월 26일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에서 봉행됐다.

묵담문도회(대표 수열)가 주관한 이날 다례식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각국의 무명(無名)조사에게 봄(음력 3월 8일), 가을(음력 9월 9일)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용화사에서 40여 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승가조사당'에서 봉행된 다례식에서 주지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각 사찰마다 그곳에 주석했던 조사에게 다례를 올리지만 용화사는 묵담 큰스님이 세계의 이름없는 모든 조사들의 위목을 모시고 공양 올렸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우리 사찰 차 모임 — 부천 석왕사 다도회 '다인'

종교구분 없는 열린 쉼터


경기도 부천시 석왕사 경내에 자리 잡은 전통찻집 '다인'에서 열린 다도수업.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신도라면 누구나 한 번 쯤 찾아봤을 사찰 내 전통찻집 '다인(茶人)'.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다도 교육이 열린다. 석왕사 신도들뿐만 아니라 인근 중 · 고등학교의 선생님, 가톨릭대학에 다니는 수녀 등이 다인의 '수강생'들이다. 다인이 단순한 '사찰 찻집'이라는 종교색을 벗고 지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 행사 때 차 시음회, 공양 '육법공양팀' 발족위해 노력

찻집이라고는 해도 내부 장식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대여섯 개 남짓한 다탁과 수업에 쓰이는 다구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장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다실을 '우리 집 거실이나 안방같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숙 사범의 뜻을 읽을 수 있다.

다실 운영을 맡고 있는 이 사범은 찻집이 문을 연 후 일 년 동안 다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석왕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과 산악회, 사군자반처럼 다도회를 신행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 동안 50~60여 명의 회원이 배출됐고 올해부터는 사찰 행사 때 마다 차 시음회와 차 공양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찰을 처음 찾는 불자나 일반인들은 법회가 끝난 후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찻집에 들러 차 한 잔 마시다보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차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포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이 사범은 올해 내로 다도모임인 '육법공양팀'을 발족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여러 사찰의 차 모임과 차 관련 행사를 찾아다니며 내실을 키워왔다. 올해 초 문막 황룡사에서 헌다례를 직접 펼치기도 했고 5월에는 제다실습을 떠날 예정이다.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차의 정신이 나를 낮추고 남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인 만큼 봉사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차 공양을 올리는 것은 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아닐까요?" 여수령 기자

인터뷰 — 이숙 사범



수행의 일환, 마음 자세가 중요

석왕사 전통찻집 '다인' 운영을 맡고 있는 이숙 사범은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을 한다. 법당에 들러 기도와 절을 마친 후 찻집을 청소한 후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차를 대할 때는 요란한 동작이나 화려한 옷 대신 꾸밈없는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불자들에게 차 마시는 일은 곧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우연히 배우게 된 다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범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차를 마심으로써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내로 다도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인 이 사범은 "앞으로 차 향기가 흠뻑 나는 내실 있는 다도회로 꾸려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봄이 되면 길가에서 파는 프리지아
한단에도 눈길이 간다.
향긋한 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사온 꽃 한 다발은 집안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고 좋은 공기를
퍼뜨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요즘은 이처럼 단순한 관상용 꽃을 넘어
여러 종류의 식물을 실내에 배치하는
'그린 인테리어(Green Interior)'가 인기다.
그린 인테리어는 가습효과, 산소공급 등의
식물의 장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집안에서 살리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밖에도 혈압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등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만점인 식물.
공기정화, 식용, 집중력 강화 등
각 식물의 특성을 파악해
우리 집 실내도 쾌적하게 변신시키자.



그린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고조로 허브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사진제공=상수허브랜드

벤자민 · 고무나무는 주방에 욕실엔 암모니아 먹는 관음죽 아이방 · 서재엔 로즈마리를

악취제거 및 공기정화

주방, 욕실 등 집안 곳곳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아무리 청소 · 환기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부들의 애를 태우는 이 냄새들은 악취제거 뿐 아니라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는 화분 한 두개면 손쉽게 해결된다.

냄새를 없앤다고 무조건 향이 강한 식물이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꽃 종류를 주방에 놓아서는 안 된다. 주방에는 음식조리 때 발생한 오염물질 흡수와 공기정화를 해주는 벤자민과 고무나무, 몬스테라나, 스파티필름, 산세비에리아이가 좋다. 외국에서 주로 향수오일이나 원예치료용으로 쓰이는 율마(Goldcrest Wilma)도 적당하다. 말끔한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며 실내에서 삼림욕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고무나무


율마

인테리어와 함께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허브는 어떨까. 과일 및 고기요리의 맛을 살리면서 기름기 많은 음식의 소화를 돕는 타임이나 차로 꾸준히 마시면 감기, 위장병 등에 좋은 페퍼민트가 주방에 가장 어울린다. 고정관념을 탈피해 양파, 고구마처럼 작은 투명용기에 채소를 기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밖에도 암모니아 가스를 흡수하는 관음죽은 욕실에, 담배 냄새를 없애는데 탁월한 네프롤레피스는 거실에 배치하자. 소나무 분재는 독특한 향을 발산하며 방향과 살균 작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중력 강화 및 정서안정

로즈마리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안텀, 파키라 등도 집중력을 높이며 페퍼민트는 졸음을 쫓는다. 라벤더는 긴장을 풀어주고 두통을 없앤다. 레몬밤은 뇌의 활동을 높여 이해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식물들은 아이들방이나 서재에 배치하는게 좋다. 특히 아이들에게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구근류를 직접 기르도록 하면 정서안정과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치자나무는 우울증, 신경질을 줄여준다. 안개꽃 등 파스텔톤의 작은 꽃은 안정감을 주며 불면증에도 도움을 준다. 동양란의 은은함은 실내를 차분한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이밖에도 작은 흰색 꽃과 살짝 구부러진 가지가 운치를 주는 갓세피아나, 드라세나도 편안한 실내를 만들어준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로즈마리


캐롤라이나 자스민


캣민트

▌어디서 사서 어디에 놓을까

그린 인테리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자연의 효과를 실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꽃집, 원예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식물, 흙, 화분 등을 직접 구입해 꾸미는 것이 저렴하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02-579-8100), 남서울 화훼공판장(02-502-6835), 구파발 화훼단지(02-356-0663) 등에서는 1만원선 이내로 여러 종류의 식물을 살 수 있다. 또 3천~5천원이면 꽃 한다발(10~20송이)을 살 수 있다. 식물을 담는 화분용기의 경우 수공예 제품은 대개 2천~7천원 선이다. 따라서 이들 매장에서는 1만원으로 뿌리가 심어진 식물과 함께 멋진 화분 구입이 가능하다.

화훼 공판장 가면 1만원 정도로 식물+화분 구입 가능

집안에 떨어지는 흙에 대한 부담도 요즘은 인공토가 있어 걱정이 없다. 분갈이 흙에 인공토를 섞으면 화분바닥에 구멍이 없어도 식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물받침을 갈아주지 않아도 된다.

구입한 화분은 특성에 맞게 공간별로 배치해야 한다. 습기, 햇볕 등 식물에 따라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우바이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배금자 변호사



1994년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된 '배 변호사, 오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법률지식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한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변호사다운 조리 있는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금자 변호사. 이후 각종 공익소송변호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해온 그가 실력을 인정받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세속법을 뛰어넘는 불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어린시절부터 아침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천수경>을 독송해 주면서 자연스레 불법을 접하게 됐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스스로 진정한 불자로 눈을 뜬 시기는 1995년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말한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모른 채 업을 짓던 예전의 모습과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습을 떼어내는 작업과 함께 하심도 배우게 됐습니다. 결국 타력에 기대거나 무엇을 바라는 기도보다 '참나'에게 맡기려는 연습을 하게 되더군요."

세계를 무대로 '공익 소송'

인권보호 전문가로 명성…마음공부로 새 삶

그의 마음공부에 대한 열정은 1996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을 가면서도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개신교 공동체가 발달한 미 교포사회에서도 배 변호사의 신행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유학하는 3년 동안 꾸준히 가족과 함께 한마음선원 워싱턴 지원에 다니며 마음공부를 했다. 아침이면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완독해야만 그날 학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도 그는 항상 경전이나 법문 테이프를 틀어 놓은 이어폰을 낀 채 다녔다.

마음공부를 한 불자여서일까, 배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인권보호 등에 관련된 공익소송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판사를 거쳐 변호사가 된 그답게 여성권익 · 보호를 위한 재판을 승소로 이끈 경력이 화려하다. 92년 김보은 씨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동기를 부여했고, 김부남 사건,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여성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옹호하는 재판은 배 변호사의 몫이었다. 한국에는 전례 없었던 99년 담배소송도 치밀한 사실조사와 자료를 수집한 그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2002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화재로 희생된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도 이끌어 냈다. 아무도 맡지 않겠다는 사건을 자진해서 변호한 것이다. 배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봉사상을 받았다.

'탤런트가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인생(현생)의 역할에 쉼 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대행 스님 법문을 잊지 않으려 한다는 배 변호사. '지금, 여기'에서 후회 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가슴 속 서원은 무엇일까.

"앞으로 국제무대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 부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상희 기자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원 81암자 중 하나 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산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 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종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으신 많은 **불자님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암주 보광당 지암 합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암스님)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지임 詩人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래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운 마음
그대 찾아 가고 싶어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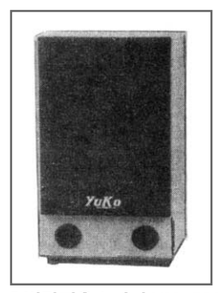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471호에 이어서)

▲질문자3: 저는 그 동안에 스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실험도 해보고 체험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시 몸도 마음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인공자리를 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어느 땐가 절에 오니까, 마침 그때 스님께서 매일 일이 끝나면 저녁에 30분씩 주인공을 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가끔씩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부처님 얼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날 못하면 그 이튿날 출근할 적에 차 속에서라도 꼭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천이 부족해서 아직도 못 깨닫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스님: 술을 마신 사람은 누굽니까? 술을 마신 사람도 선생님이고 또 그렇게 주인공을 관하는 것도 선생님입니다. 나는 이렇게 관하라고 합니다. '주인공, 네가 있으니까 네가 있다는 증명도 네가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너도 없고 내 모습도 없을 것이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있으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해야지. 부(父)와 자(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애비가 증명을 하지 자식은 증명할 수없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깐 관할 때 단 10분이라도 좋고, '내가 일할 게 많고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느 시간을 정해놓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망상을 끊지 않고 그대로 참선하라." 하셨습니다. '망상을 끊지 않고' 하는 것은 망상에 걸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깐 그렇게 열심히들 해보십시다.

▲질문자4: 스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정말 만나기 힘든 선지식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게 해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모르면 제자들이 두 번 세 번 열 번 질문하는 것을 경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법을, 한마음의 도리를 설법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질문드리오니 관대하신 설법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불교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경을 통하여 또는 참선을 통하여 깨닫는 줄 알고 오늘날도 명산대찰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가슴에 와 닿고 바로 깨치는 공부, 즉 한마음의 도리를 가르쳐주셔서 국내는 물론이고 현재 구미지역에까지 일대 선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구미뿐만 아니라 스님의 높으신 뜻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번져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차제에 새로 오신 신도님들도 많고, 아직도 한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분명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마음의 도리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이 혼자 그 뜻을 알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죠. 그걸 전하고선 그 만좌중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그 만좌중 속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꽃을 들고? 우리는 모두가 이어짐이 없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몸뚱이로 지금 사회에 나가 사시지만 회사에도 회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회장이 없습니다. 전부 상대성으로써 삽니다. 먹고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윗사람 말을 들어야 하고 아랫사람들을 지도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도 그런가 하면, 염화미소의 그 뜻이 무엇인가?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이건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삼천년 전에, 그 불바퀴가 우주에 돌아간다고, 삼천대천세계에 그 불바퀴가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블랙홀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미리미리 그렇게 일러주셨건만 지금까지도 그거를 해득을 하지 못해서 참 모두들 야단들입니다마는,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생활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수만 마디를 하고, 수만 마디를 듣고 수만 가지를 보고, 고정됨이 없이 그냥 먹고 살고 듣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한마음입니다. 그 한마음이 뭉쳐졌기 때문에 그게 불바퀴입니다. 이게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법바퀴예요, 네? 그래 불바퀴는 앞뒤 없는 불바퀴를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바퀴는 생각을 내는 바퀴요, 불바퀴는 생각을 낼 것도 없이 더하고 덜함도 없는 자리인데 법바퀴가 그대로 거기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은 크고 작은 게 없으나 큰 회사에서는 크게 끌어 쓰고 작은 회사에서는 작게 끌어 쓰고 일반 집에서는 또 그대로 끌어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끌어 쓰는 그 자체를 바로 법바퀴라고 하고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 누가 그거를 하고 누가 쓰고 그럽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속에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중생들이 많으니 그 의식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미산처럼 많습니다." 하니까 "그래, 어쩐 일로 수미산같이 그렇게 많으냐?" 하니까 "수미산처럼 많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그것은 너무나 헤아릴 수가 없이 크고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잘 배우진 못했습니다. 무지랭이 같아도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보면 벌써 이것이 탁 뛰어 올라와서 이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책장 한 장만 들쳐 봐도 벌써 그 책 한 권의 뜻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암 스님도, 경허스님도 그러셨답니다. 책을 보다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건질 수 없다 해서 책을 덮어 놓고 마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마음의 수련을 쌓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련을 쌓아가지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그러면 내가 수련을 쌓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항상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왜 해골바가지 모인 데다가 큰 절을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죠.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떻게 하치않은 해골바가지에다가 절을 하시느냐 이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못마땅했죠. 허나 부처님께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느니라. 저 뼈다귀는 바로 과거면서도 미래, 미래면서도 현실에,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저 뼈다귀가 누구 뼈다귀인 줄 아느냐. 우리 부모의 뼈다귀일 수도 있고 다 그렇다."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말 이렇게 심오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한 줄을, 부모가 둘이 아니고 자식이 둘이 아니고 형제가 둘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울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올 때에 무척이나 쫓기고 쫓고 이러다가 진화돼서 사람이 처음 나니깐, 모두 보니깐 나무, 물, 뭐 전부 정원이라고 합시다. 다 생겼는데 자기는 맨 나중에 나와 보니까 상대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불도 알아지고 망치도 알아지고 뭐 칼도 알아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알아졌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단군이라는 분이 출현하셔서 농사를 짓는 법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도리, 충성, 효도 등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거를 전부 가르쳐주셨단 말입니다. 단군께서 천부경 팔십일 자를 남기고 가신 후에 부처님이 나셔서 또 팔십종호(八十種好)를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아님이 하나도 없고 우리 형제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잘못되고, 아주 저건 못쓰는 사람이야 이럴 때도 '아, 저것이 몰랐을 때의 내 모습,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나는 저거보다도 더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또 자비스런 마음으로써 '아, 저것이 모를 때 내 모습이지.'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도 미울 게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머무르지 않는 법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을 내랬지 머무르는 데서 생각을 낸다면 바깥으로 끄달려서 그 바깥세상, 유(有)의 세상의 노예가 되고 반면에 또 바깥의 거를 하나라도 무시하고 돌아간다면 그거는 또 무(無)의 세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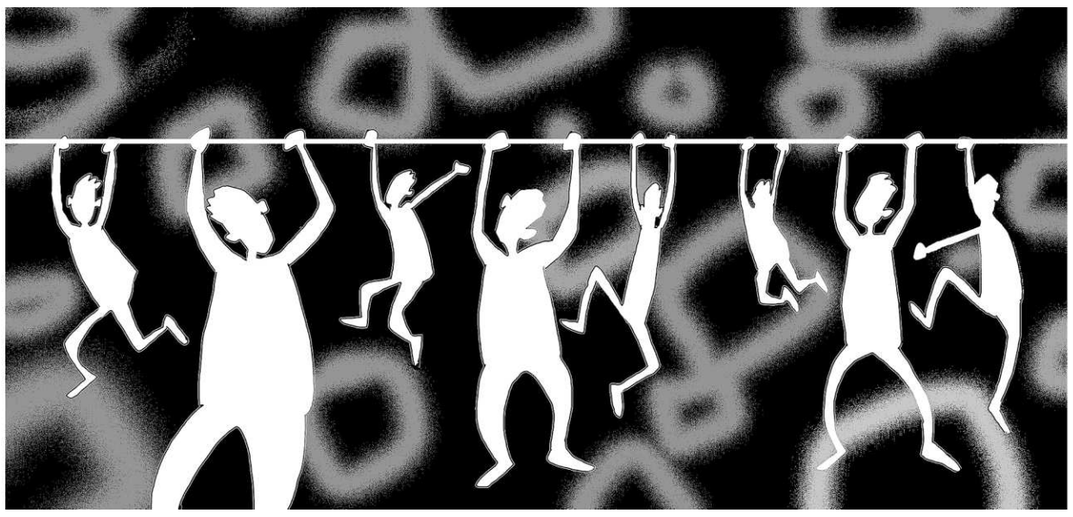
그러니 우리가 참 차근차근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바로 자기 자연의 불성(佛性), 그 자체를 애비라고 친다면 애비가 있다는 것을 애비가 증명을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사량으로 있다 없다를 논의하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게 되겠죠. 자기 애비를 찾으면, 발견하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공부하겠다고 발심들을 해서 곧 아르헨티나에도 지원이 생길 겁니다. 공부할 집을 보러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딥니까?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이거를 한 번 돌려면 어떻게 됩니까? 워낙 먼 거리라 지원에서 지원으로 오고 가는 데만도 하루씩 걸리니 제대로 볼 일 보고 다니려면 몇날 며칠이 걸려야 될 거를, 바쁘니깐 그냥 밤에도 차를 타고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쁘게 돌아쳐도 한 달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여러분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처음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아주 발버둥이치고 야단들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지 보고 싶어서 그 참 눈에 아른거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른거린다고 해서 착을 두지 말고, 아른거리면 '아, 보고 싶구나.' 그러고 '둘이 아닌데.' 하고 '둘이 아닌데.'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자기로 돌립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오래 나갔다 오면요, 둘 아니면서도, 땅도 한땅이고 도량도 한도량이면서도 너 나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보고 싶다 해서 또 걸리지 마시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거고, 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거고 이렇게 그냥 슬슬슬슬 그냥 넘어가라 이거죠.

기름을 치지 않는다면 기계가 빡빡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항상 넉넉히 치면서 항상 손질을 하면서 저절로 굴러가게, 자동적으로 생각만 했다 하면 그냥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면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을 여여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그대로 실상임을 아실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자성본래불이니까 보배가 나한테 있으니까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여러 시간 오면서 신행회장을 많이 배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마음에다가 그저 모르든 알든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거기다가 죽으나 사나 맡기고 가는 사람이라야만이 그 회장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생동생동한 사람을 회장을 시키면 그 회원들이 다 생동생동해질 테니까.

그러니깐 그게 무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행회장을 많이 배출해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볼 때, 왜 그렇게 다양하게 늘어났나. 그리고 그 신도들이 전부 벌어먹고 살게 돼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행회장을 뽑아서 삼십 명 단위로 이렇게 맡겨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삼십 명이든 사십 명이든 좋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 도리를 몰라서 갈구하는 사람들을 자꾸 뽑고 또 단위를 넓히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번째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형제법회를 따로 만들어서 첫째 일요일이나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한데 합쳐서 뭉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뭉쳐서 거기서도 신행회장을 뽑아서 삼십 명 단위로 나누어서 공부해가면, 식구가 적다면 서로 토론하기도 쉽고 아주 좋죠, 다양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을 도와서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신행회장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아주 가난해서 학자금도 못 내는 사람들은 학자금도 우리가 거둬

못난 것도 한 찰나 잘난 것도 한 찰나니 모든 것 묵살하고 마음도리 배우는 데 전념해야

☞34면으로 계속

망상에 걸리지 말고 그대로 참선하라

☞33면에서 계속

서 내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캠핑을 와서 한자리에서 얼마동안 살다가 헤어질 것을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형제 법우님들 모인 장소에 전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같이 모이게끔 하시고요.

청년들도 첫째 일요일에 모일 때, 여기서라도 같이 한쪽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미루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잘해나가야 청소년 애들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싹을 내서 실

일체와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나』를 갖다가 교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교재로 해서 주되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을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니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독일에도 그렇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불자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디를 나서도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면 정말이지 여러분이 미래의 세계에 우주의 그 법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있다' 이런 아집을 버리시고, 그대로 해나간다면 우주정거장도 허가를 내서 세울 거 아닙니까.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거든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다 그 속에서 부처님이, 보살이 법을 전달해서 그렇게 되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부진하면 '아, 내가 좀더 공부를 해야겠어.' 하면 벌써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거지 같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고 못났어도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 잠시 대통령 돼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귀찮을 텐데. 안 그럽니까? 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돼보기도 하고 미래 세계의 지배인도 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이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도리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야심경에도 속해 있고 금강경에도 속해 있고 화엄경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실상을 찾고 발견하려면 나를 먼저, 미래 세계의 그 법계의 법을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전화도 뭘 끼워 놓으면 사람이 없을 때 전화가 와도 다 녹음이 된다고 합디다. 그리고 팩시도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상대 쪽에 전달돼요. 팩시뿐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거는 지금 전파를 위성을 통해서 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한테 간섭도 안 받고,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귀찮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네? 억울하면 공부하세요, 모두. 못살고 가난하고 못나고 이런 거 억울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나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시고요, 못난 것도 한 촬나고 잘난 것도 한 촬나니까 그런 걸 다 그저 묵살시키시고 이 도리를 배우는 데 전념을 다하세요.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은 지금 도시락 싸가지고 캠핑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림 · 최주현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더래요.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주장자에 사랑같이 꿴 그거를 하나씩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다 들고선 들어가야만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를 쓰고 증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애를 쓰면 오히려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애를 쓰지도 말고 애를 안 쓰지도 말고, 그냥 생활하는 데서 여여하게 돼가는 대로 '이것이 바로 내 한마음, 이 한마음 의식, 한마음으로 주인공,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주장자 이것이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나.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뭐 걱정이야, 보배가 나한테 있는데.' 이렇하고선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사과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따가 요 시간 지나면 내가 저 아래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겁내고 살아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할 일은 꼭 해야 되니까요. 뭘 그걸 두렵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내가 살아, 내가…," 이러니깐 그냥 두렵고 모두가 그렇지, 내가 한다는 게 불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전에 깜깜한 그믐밤에 글쎄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춘천 골짜기 물 내려가는 쪽으로 거길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그, 내가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깟 놈의 거 뭐 그게 두려워? 다 와라. 뭐가 있다면 다 와라.'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깐 글쎄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도 목신이 있는 겁니다. 아, 인사를 깍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벗이 돼서 좋아서 말입니다. 나도 그 밑에 앉아서 혼자 싱그레 웃고 혼자 중얼거렸으니, 누가 봤더라면 "저 사람 미쳤군."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미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산중에 올라왔을까?"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산비둘기 울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능생이 울음소리, 새소리!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가 뭤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그러고 그냥 싱긋이 웃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게 다 친구들이고 벗이었어요. 도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뜻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의 세계에 그 지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마음 부처가 되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배인이죠. 그리고 지배인이 한자리 한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용어를 붙여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이거 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때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는 (합장하시며) 이따가 죽든 내일 죽든 그런 건 상관없으니 나 하는 대로 내버려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하는 대로요, 죽든 살든. 그거를 배우세요. 내가 죽든 살든 이따가 죽든 이따가 엎드러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다면 가루가 되더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없으니까 가루도 뭘 게 없습디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집에서나 나가서나 일하시면서 나 항상 평상시가 그냥 참선이며 마음 편안하고 넉넉하면 좌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중 속에서 "스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을 함.) 자기도요! 허허허. (대중 웃음, 박수) 어떨 땐 날더러 건강하라고 하고 가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죠. 그럴 땐 "에이, 너나 건강하게 좀 가져가거라." 그러면서요 "에이, 네가 건강하게 살면 내가 편안할 텐데 오히려 날더러 그러고 가니 저거를 어떡하면 좋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날더러 또 "성불하십시오." 그러고 간다구요. 하하하. (대중 웃음) 이게 뭐 이름인 줄 알아요, 이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소리 들을 때마다요, 기가 막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절을 하죠. 그러면 나한테 절하는 건 줄 알아요. 벼이삭도 익어야 자기가 자기 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글쎄 나더러 하는 건 줄 알죠. 내가 오히려 대신해서 그저 보이는 걸로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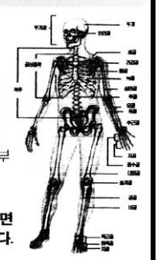
이렇게 앉아준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야죠. 나는 그냥 죽어나는 거죠. 그 절 받는 게 뭐 그렇게 좋아서, 절 받는 게 내가 받는 게 아니면서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이나 하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 앉았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거 다리가 아파서 앉았겠습니까?

전에는 하루 종일 밤이나 낮이나 이랬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글었죠. 지금은 오히려 지원이 많이 생겨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데, 가면 뭘 합니까? 거기 가서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오시나 두 분이 오시나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둘이 아닌 까닭에 그 자리를 비워 놔두면, 급해서 애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에 없으면 어쩌나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겁니다. 요새는 하루하루 그렇게 하다가 한 달에 두어 번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나와 더불어 한마음으로서 건강하십시오. (합장하심)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3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빼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0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제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한국본부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질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웰빙(Well-Bing)특집

1 빗나간 웰빙 열풍

2 진정한 잘먹고 잘 살기

3 불교적 웰빙은?

'잘 먹고 잘 살기', '몸과 마음의 건강' 등으로 풀이되는 웰빙(Well-Being)이 이 시대 한국인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웰빙 다이어트, 웰빙 식빵, 웰빙 음악회 등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웰빙'은 하나의 '근사한' 수식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근사함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본래의 맑은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본 기획에서는 우리 사회의 웰빙문화를 진단하고, 유무형의 불교문화를 통해 웰빙의 바른 자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껍데기에 치중한 '헛바람'



2004 웰빙페어 부스 내에 진열된 고가의 아로마 상품들.

지난 3월 26일 COEX 인도양홀에서 열린 '2004 웰빙페어'. 국내 75개 웰빙 업체가 참여한 박람회장에는 한국에서의 웰빙바람이 헛말이 아님을 증명하듯 북적대는 인파로 가득했다. 공기청정기, 자연주의화장품, 유기농식품, 아로마 관련 상품 등 부스를 통해 소개되는 웰빙상품들도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나 전시장 내에서 소개되는 '웰빙문화'는 국내 웰빙붐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아로마 관련 상품을 소개하는 부스에서는 아로마향을 첨가했다는 이유로 일반 상품 가격의 2~3배를 호가하는 상품들을 '웰빙의 필수제품'인 것인 양 떠들어댔다. 건강기구를 소개하는 코너에서도 수 십 만원을 웃도는 건강보조기구가 웰빙문화의 대명사처럼 소개됐다. 각각의 부스는 보다 '럭셔리해' 보이기 위해 온갖 소품들을 이용해 내부를 치장했으며,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20대 젊은 여성들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웰빙열풍은 사치풍조 및 상업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대상자의 능력이나 취향과는 상관없이 고가의 유기농 재료를 이용한 건강식이 '웰빙음식'으로 자리잡았고, 노동 강도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요가나 필라테스(요가와 스트레칭을 결합한 운동) 등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소비는 또 다른 소비를 낳아, 요가수련을 위한 요가의상과 요가용품 수요는 불황도 모르고 연일 치솟는 추세다. 웰빙 전문지를 표방하는 잡지 <얼루어>의 박지선 편집장은 "건강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코드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뜻하는 웰빙의 기본 개념이 '몸'의 건강에 치우친 데에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윤도경 교수는 "본래 웰빙 실천의 핵심은 마음에 달려 있으나 우리 사회 웰빙붐의 상당부분은 신체적 안녕에 쏠려있다"고 말했다.

그를 반영하듯 탄탄하고 균형잡힌 몸매를 강조하는 '몸짱' 신드롬이 사회를 강타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몸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다. 물론 운동으로 가꾸는 신체건강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 벌어 본때나게 살아보자' 식의 사고가 '건강'이라는 시대의 화두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외형에 치우친 웰빙 문화를 키운 데 있다.

그렇다면 웰빙족이 간과하고 있는 '마음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웰빙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것이 또한 '마음 다스리는 명상'. 이에 따라 단월드(단학선원), 마음수련원 등의 명상수련센터는 이미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과 관련한 심신수련의 문제도 상업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학선원에서 1년 6개월가량 수련한 박 모 씨는 "단월드의 한 '고급 수련 과정' 비용은 12회당 250만원에 이른다"며 "건강상의 절박한 이유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치고 있는 웰빙바람이 근사한 껍데기에 목마른 '헛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높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했지만 정작 남는 것은 정신적인 허기뿐이다. 아침저녁으로 명상을 생활화하지만 명상 이후의 시간은 경쟁사회가 낳는 스트레스에 지배당하고 마는 우리네 웰빙족. 술자리대신 아로마향과 함께하는 명상서적 탐독을 택하고 만족하지만 그것 역시 거죽만 끌어쓰는 웰빙라이프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프코치(life coach)인 탤렌 마이데너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웰빙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다분히 철학적인 코드다. 웰빙은 말 그대로 존재(being)의 안녕이자 완성이다.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상품에 웰빙 붙이면 가격 2~3배

능력·취향 생각않는 사치풍조
문화코드 상업적 이용 심각

비싼비용, 외형중시, 의미퇴색
명품아닌 '마음' 치중해야



요가 상품의 대명사가 된 탤런트 최윤영 씨(왼쪽), '인간세탁기'로 불리는 머드스파기구(가운데), 부유층 웰빙족을 타깃으로 제작된 '청동욕조'(오른쪽).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18

인위적 과정 거치면 섬유질 파괴

정제 식품과 튀긴 음식은 이래서 나쁘다



정제하면 자연성 · 식품 이점 감소
조직에 영향 주지 못한 채 분해
튀긴 음식, 마음혼란 타마스 유발

식품 본래의 자연성을 변형시켜 맛이나 모양, 질을 향상시킨 음식들은 그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인위적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식품에 덮여져 있던 섬유질이 분리돼 나가기 때문이다.

쌀이나 밀가루, 설탕 등의 정제에서 보듯 정제는 자연성을 해치고 식품의 전체적인 이점을 감소시킨다. 영양소를 싸고 있는 섬유질은 대장의 연동 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따라서 섬유질이 떨어져 나간 정제 음식을 즐겨 먹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변비에 시달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제된 음식들은 작으면서도 아주 강력하다. 또한 바타 운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와 동화되기 전에 신진 대사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영양을 주지도 못한 채 바로 분해되어 버린다. 정제된 설탕을 예로 들어보자.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나무의 수액들에는 많은 무기질과 영양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제 과정을 거쳐 설탕으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설탕은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흡수되어 간과 췌장, 그리고 다른 피타 영역의 장기들에 과부하된다. 이런 가볍고 정제된 성질들은 발효를 일으키는 자극성을 증가시켜 조직을 산성화시키고 몸 속의 무기질과 다른 영양소들을 빨리 소비시킨다. 사탕, 초컬릿, 과자 등과 같은 정제된 설탕을 많이 먹는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어수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이는 바타의 영향이 지나쳐서 그런 것이다. 또한 오래 섭취할 경우 뼈 속의 칼슘이 저하되고 비만증에 걸리는 위험이 있다.

튀긴 음식은 왜 나쁠까?

식품을 튀기면 맛은 향상될지 모르나 음식 속에 배어 있는 기름이 소화 작용을 둔화시킨다. 가장 나쁜 점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해 조직을 산성화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활동적으로 만드는 상태, 즉 라자스에 빠지게 만든다. 깊이 오래 튀긴 음식들은 더 해롭다. 많은 기름 양으로부터 오는 무거움 때문에 마음을 혼란스럽고 산만하게 만드는 타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첨가물과 색소, 조미료도 아주 나쁘다. 이런 화학물질들의 대부분은 음식의 생산과 저장에 사용되는 다른 인공 화학물과 마찬가지로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몸 속에 들어와 독소로 작용한다.

탄산 음료는 또 어떤가? 모든 음료들의 대부분은 맛을 내고 달게 하기 위해 음료에 높은 압력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이것은 마시는 순간 거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산성화되어 위장관 내에 산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바타를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음식의 흡수와 동화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 속에 라자스를 증가시킨다.

■ 포천 중문의대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오케스트라 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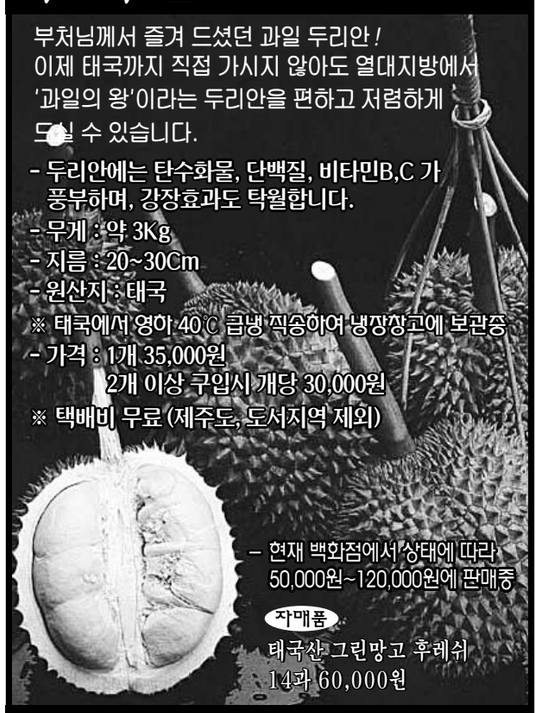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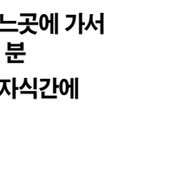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자매품
태국산 그린망고 후레쉬
14과 60,000원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인연이 되시는 분은 직접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힘을 얻는 좋은기회가 될 것입니다.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 음 사 주지 고봉 합장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에게 사주를 쉽게 통변하는 비법, 기공과 염력으로 영기를 천도하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불기 2548년 5월 마하몰(www.mahamall.co.kr) 기획 상품전

5월은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가정의 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과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 - 1520

추천선물상품



▮연마을11호
□ 백련차 선물세트
□ 32,000원
□ 백련잎차25g +1다기 2벌세트



▮황토목베개
□ 1개 : 30,000원
□ 2개 : 58,000원
□ 겉지 : 황토염색천 100%
□ 베개 속 : 녹차, 한약 100%



▮녹차약베개
□ 50,000원
□ 겉재질 : 천연녹차염색천
□ 속재질 : 녹차,한약재
□ 크 기 : 길이 48cm X 둘레 52cm
□ 색상 : 황토, 녹차, 숲, 맥반석



▮희담석 좌복
□ (30개 한정 할인판매)
□ ~~369,000원~~ → 298,000원
□ 백련잎차 25g + 1다기 2벌세트
□ 명상또는 참선등을 할 때 좌복으로 사용하면 원할한 기의 흐름을 도와주는 참선수행 용품입니다.



▮청자칠보투각향로 (靑磁七寶透刻香爐)
□ 일반판매가 : 49,000원
□ 특별할인가 : 39,800원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청자향로의 재현품 고려시대의 극도의 공예적 세련미를 보이고 있는 우수작품



▮생광석 건강염주 세트
□ 일반판매가 : 45,000원
□ 특별할인가 : 39,800원
□ 생광석 백팔염주 + 단주
□ 지름 10.5mm
□ 생광석 백팔염주 35,000원
□ 생광석 건강단주 10,000원
□ 염주 주머니 증정



▮황금달마핸드폰줄
□ 15,000원
□ 도금 세계특허 기술인 메탈릭 코팅기술로 정교하고,빛 반사율이 우수함



▮반야심경 은(銀)반지(외부각인)
□ 38,500원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銀반지
□ 은 92.5% 로듐도금, 폭 약 8mm

▮반야심경 목걸이(원형, 사각)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펜던트 (뒷면에는 연꽃 문양과 옴자 양각)
□ Silver 92.5%, 펜던트와 체인 포함

현수막



▮봉축현수막 : 나염
□ 90cm × 6m (40,000원)
□ 90cm × 7m (45,000원)
□ 90cm × 8m (50,000원)



▮봉축현수막 – 세로
□ 6m × 90cm (60,000원)
□ 7m × 90cm (70,000원)
□ 8m × 90cm (80,000원)



▮장엄 번(만장기)
□ 90cm × 210cm (40,000원)
□ 90cm × 230cm (45,000원)



▮지하철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은 변경가능



▮어깨띠
□ 2,500원
※ 100매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

※ 연등용 전선 주문 받습니다

연등



▮캐릭터비닐만월등
□ 32cm × 32cm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색상별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오렌지,흰색(영가)



▮궁단등(비단등,실크등)
□ (大) 23Cm / (中)18cm / (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빨강, 흰색(영가등)



▮종등
□ 높이 39cm 폭 27cm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장등(오색)
□ 높이 47cm 폭 25cm



▮팔각조립등
□ 높이 26cm 폭 28cm 입구 11cm
□ 핑크,봉축노랑,오렌지,성도일 노랑, 봉축빨강 등



▮비단팔모접등
□ 높이 28cm 폭 24cm 입구 11cm
□ 연분홍, 노랑, 연초록

봉축캐릭터용품



▮봉축리본 세트
□ 일반 : 25,000원
※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
□ 고급 : 35,000원
※ 100개 1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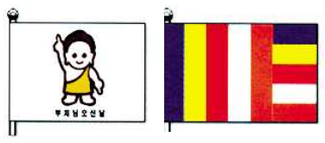
▮연꽃리본
□ 일반 : 25,000원
□ 노랑,연분홍,연보라
※ 100개 1세트



▮연꽃리본
□ 고급 : 35,000원
□ 빨강,오렌지,연분홍
※ 100개 1세트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90Cm×135m
※ 다른 사이즈 제작가능



▮차량용 깃발
□ 4,000원
□ 20 X 30cm



▮봉축 풍선세트
□ 30,000원
※ 100개 1세트(대롱 포함)



▮부채
□ 700원
※ 500개이상 인쇄 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 4,000원 고급 본염 인쇄
※ 최소주문수량 100개



▮봉축버튼)
□ 3,200원
※ 8개 1세트



▮봉축타이슬링
□ 5,600원
※ 8개 1세트



▮방생타이슬링
□ 2,000원
※ 2개 1세트

다용품



▮도자기연꽃
□ 33,000원
□ 14cm(높이) X 13cm(넓이)



▮연꽃전등(中 No.1)
□ 35,000원
□ 15cm(높이) X 17cm(넓이)



▮연꽃전등(大)
□ 50,000원
□ 15cm(높이) X 13cm(넓이)



▮연꽃보드(걸이형, 자석형)
□ 18,000원
□ 17.5cm x 24cm



▮큐방 연꽃 차걸이
□ 3,600원
□ 재질 : 마블
□ 색상 : 노랑,분홍,연두,보라,오렌지



▮봉축등표
□ (특대) 95mm × 265mm 6,000원 (100장)
□ (중) 65mm × 180mm 4,400원 (100장)
□ (소) 65mm × 132mm 3,200원 (100장)



▮연꽃등표
□ (대) 81mm × 240mm 4,800원 (200장)
□ (소) 63mm × 175mm 2,800원 (200장)



▮봉축스티커세트
□ 30,000원
※ 100매 1세트

다포

▮다 포
□ 39cm x 50cm
□ (백색)800원
(회색)1,200원
※ 200장 이상 사찰명 무료 인쇄

▮기도포
□ 39cm x 80cm
□ (백색)1,600원
(회색)1,800원
※ 100장 이상 사찰명 무료 인쇄

연꽃타올
□ 4,000원
□ 녹색, 노랑, 분홍, 청색
※ 100장 이상 사찰명 인쇄

지면에 광고된 상품 외에 보다 많은 봉축용품을 인터넷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